

머 리 말

「平和統一의 意志」로 命名된 本書는 1970年度의 始作과 더불어 分斷된 祖國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기 위한 大韓民國 政府의 主要政策宣言, 政策內容을 敷衍하는 演說文, 韓民族의 再統一의 必然性에 관한 우리의 政治的主張과 부르짖음을 重點的으로 엮어 본것이다.

우리 民族의 平和統一政策을 最終的으로 決定짓는 朴正熙 大統領閣下의 政策演說 및 記者會見內容을 主要 契機別로 拔萃, 收錄했고 또한 國務總理, 外務部長官, 國土統一院長官의 演說文을 可能한 範圍內에서 原文 그대로 收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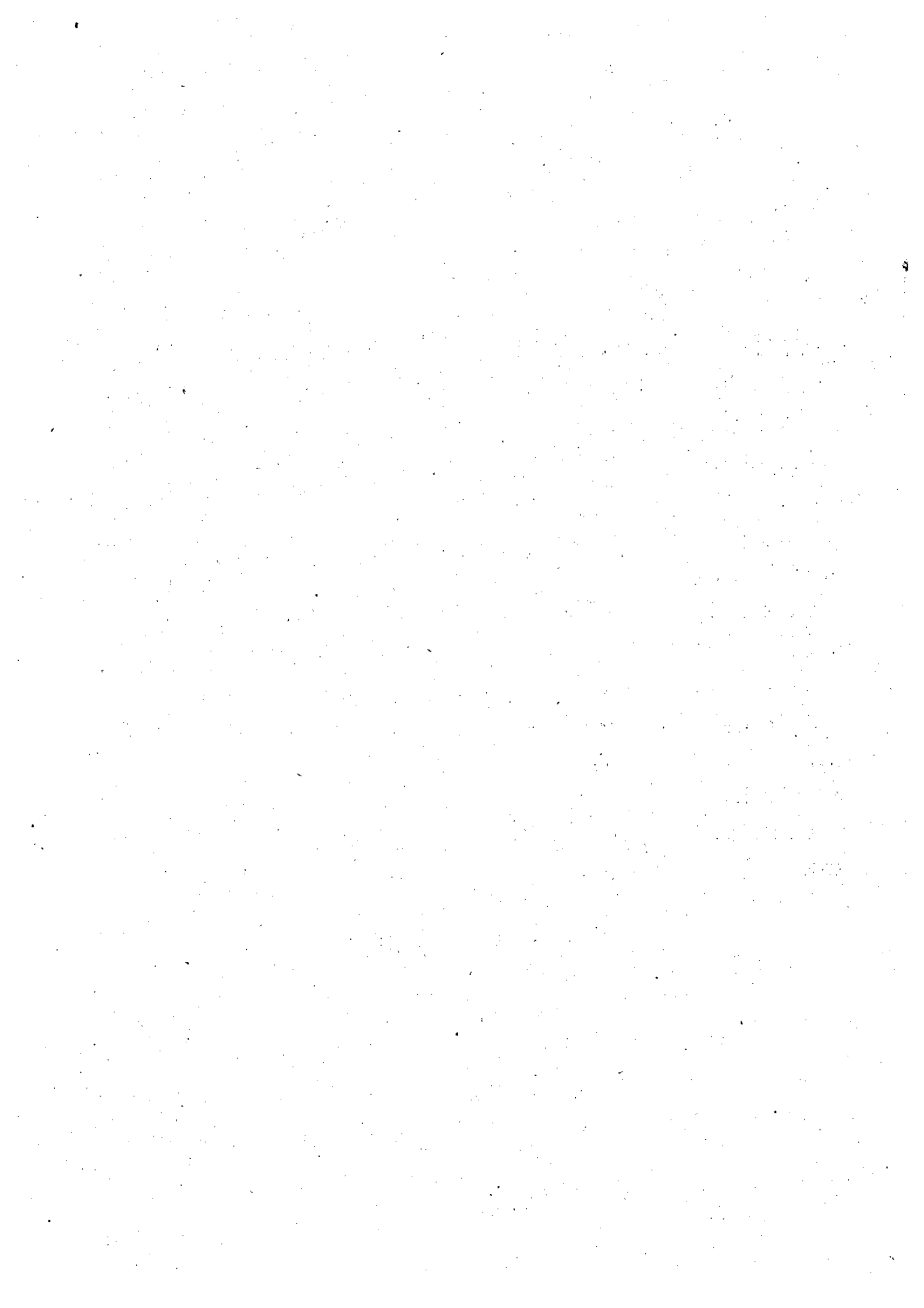
또한 지난 4半世紀동안의 南北韓의 對決構造를 對話構造로 轉換시킴으로써 5千萬 우리 民族의 가슴마다 마다에 平和統一의 希望을 심어준 南北對話關係 主要提案 및 演說文등도 必要한 範圍內에서 蒐集, 掲載했다.

本書는 이 時點에서 韓國의 統一政策과 努力을 理解하려고 하는 國內外 人士들에게 커다란 參考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韓國統一의 意味와 條件을 實感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編輯이나 內容構成面의 不備가 있다면 追後의 補完을 期約하면서 머리말에 대신 한다.

1975年 12月 30日

엮 은 이



차 례

머 리 말(5)

【大統領閣下 演說文 中에서】

平和統一 構想 宣言	(9)
南北赤十字會談 支援	(11)
7·4 共同聲明으로 祖國의 平和統一	(1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16)
南北相互 不可侵協定締結 提議	(19)
平和統一 三大基本原則	(23)
7·4 共同聲明 3周年 特別談話文	(27)
日本 毎日新聞 記者會見	(31)
뉴욕타임즈 記者會見	(36)

【國務總理 演說文】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背景說明	(40)
學軍團 將校任官式 致辭	(50)
在外國民統一會議 致辭	(52)
中央學徒護國團 發團式 訓示	(56)
第3士官學校 第12期生 卒業 및 任官式 致辭	(58)

【外務部長官 演說文】

第28次 유엔總會 第1委員會 演說	(60)
第29次 유엔總會 第1委員會 演說	(69)
第30次 유엔總會 第1委員會 演說	(77)

【國土統一院長官 演說文】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主催 學術會議 致辭	(84)
-------------------------------	--------

全國基督青年協議會主催 統一祈願禮拜 祝辭	(9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主催 學術會議 致辭	(94)
在外國民統一會議 基調演說	(101)
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 致辭	(109)
陸軍士官學校主催 全國大學校 國防科學學術會議 祝辭	(115)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共同聲明	(122)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124)
南北直通電話 架設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126)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演說	(128)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演說	(130)
8·29 李厚洛共同委員長の 聲明	(132)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總裁 特別聲明	(135)
第1次 南北赤 本會談 韓赤首席代表 閉會演說	(136)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	
○ 大韓赤十字社 總裁 人事	(139)
○ 大韓赤十字社 總裁 祝賀演說	(140)
○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歡迎人事	(143)
○ 國會議長 歡迎激勵辭	(146)
○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首席代表 演說	(149)
○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諮問委員 祝賀演說	(153)
○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諮問委員 人事	(156)
○ 서울特別市長 人事	(158)
○ 大韓赤十字社 首席代表 人事	(159)
○ 離散家族代表 祝賀演說	(161)
○ 代表團 首席代表 閉會辭	(163)

平和統一 構想 宣言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正熙大統領은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第25周年 慶祝辭에서 劃期的인 平和統一 構想을 內外에 闡明한바 다음은 同構想을 밝힌 主要部分을 拔萃한것이다.

...국토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전범 집단들이 끝내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통일 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괴가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우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우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우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大統領閣下 演說文 中에서】

南北赤十字會談 支援

—1971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正熙大統領은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 崔斗善總裁가 北韓赤十字會側에 南北韓의 1千萬離散家族찾기 運動을 提唱하고 이를 위한 南北對話를 提議한 3日後인 同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南北赤十字會談을 積極支援할 政府의 方針을 闡明한바 다음은 同演說文을 拔萃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새물결이 국제 사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오늘 이 마당에, 만약에, 복귀가 오늘이라도 대오 각성하여 종전의 호전적 정책과 교조주의적 작풍을 깨끗이 버리고 이 국제적인 새물결속에 혼연히 뛰어 들어 올 수만 있다면 이는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은 물론이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일대 서광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다시 이자리를 빌어 복귀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 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임을 다시 한번 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무력과 폭력을 포기하고 진지한 새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해 둡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회담』은 1천만 흩어진 가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5천만 동포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 주는 『복음의 제의』로서 나는 이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며 그 성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수천년 동안 지켜온 단일 민족으로서의 영광된 역사는 결코 인위적으로 단절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문제에 앞서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제의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때보다도 민족의 총화와 『자유 민주주의 민족 주체 세력』의 굳은 형성

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4반세기 동안 붉은 공산주의 사회 속에 젖은 조국의 반부를 다시 되찾아 조국의 통일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총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작게는 한 직장, 단체, 지역의 단결에서, 크게는 그 입장을 달리하는 상호간의 이해와 결속,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차원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총화가 바로 우리가 선행시켜야 할 조국 통일 준비 작업임을 거듭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는 국제 사회의 커다란 변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부닥치면 약한 자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굳센 자는 이것을 지혜롭게 포착하여 새로운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천하는 국제 정세에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비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주·자립·자위의 민족 주체성을 더욱 굳게 가다듬어, 강인한 민족으로서의 용기와 예지를 발휘하여 오늘의 현실을 중흥과 약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세대에 민족의 지상 과제인 국토 통일을 평화적으로 완수하여, 위대한 통일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통일의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민족의 전통과 긍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 나갑니다.

그리하여, 영광된 통일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 너도 나도 다 함께 전진합시다.

반드시 평화 통일의 여명은 밝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7·4 共同聲明으로 祖國의 平和統一

—1972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大韓民國政府主導下에 歷史的인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 後 朴正熙大統領은 1972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7·4共同聲明에 대한 政府의 立場을 闡明한바 다음은 同演說 文을 拔萃한 것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조국 통일과 민족의 중흥이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하에서, 그 동안 갖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국력을 태양하고 슬기를 계발하는 위대한 전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체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예방하고 자유민주체제 속에서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동포애로써 설득과 호소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그 보람이 있어 바야흐로 희망에 찬 새시대가 전개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의 민족사상 가장 희망에 차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사를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빛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민족의 염원을 성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 통일의 전도에 가해오는 일체의 도전을 단순히 우리 한민족에게 가해오는 도전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사의 진운에 역행하는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력을 더욱 증강하고 평화통일의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력의 뒷받침없는 통일의 염원은 부질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탄탄히 다져졌을 때 비로소 우람한 통일의 거목은 그 뿌리를 마음껏 내리고 영원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력이 아무리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국력을 평화 통일을 위해 총동원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국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고 그 국력을 평화 통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민족의식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철통같이 대동 단결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간에 대화의 문이 트이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파쟁과 낭비와 방종이 아니라, 성실과 능률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적 대동 단결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단결을 유지해 나갈 때 국력은 더욱 빠르고 더욱 알차게 다져질 것이며, 그 국력으로 남북간의 대화를 굳게 뒷받침할 때 민주 통일의 그 날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남북간의 민족적 대단결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오고야 말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날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들부터 먼저 대동 단결할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우리의 단결은 곧 민족적 대단결의 초석입니다.

우리 모두 정파와 지연, 그리고 혈연을 초월하여 통일의 대의 앞에 굳게 단결합시다.

그리고, 나는 국민 각자의 가슴 속에서 새차게 타오르고 있는 통일의 열원을 더욱 보람차게 우리의 모든 체제와 정책 속에 반영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북한 동포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해도 같은 말,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의 피로 이어져 온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데올로기」는 변해도 민족은 영원합니다.

하루 속히 한민족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고 북녘 땅에 민족의 양심이 소생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과감합시다.

우리 민족은 지난 반만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수난과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용기를, 위기 속에서 예지를 발휘하여 이를 훌륭히 극복해 온 위대한 민족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바로 이 위대한 한민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노력은 우리민족의 위대성과 뜨거운 동포애가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남북 적십자 회담을 성실히 운영하여 하루 속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협력을 아끼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7·4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진실로 원한다면 먼저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와서 이산 가족의 인간적인 고통을 덜어 주는 데서부터 동포애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양심 앞에는 거짓도 있을 수 없으며 정략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동포애와 성실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노력을 존중하고 이를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이룩바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당하였던 분단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는 민족의 위대한 전진인 동시에 세계 평화의 전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숭고한 전진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조국통일이 이룩되는 날 비로소 구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국 통일은 오직 이것을 희구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노력과 책임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통일의 영광을 위해 대동 단결합시다.

그리하여, 진정한 광복,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다같이 위대한 전진을 힘차게 계속합시다.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親愛하는 5千萬 同胞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推進해 온 南北對話의 經驗과 國際情勢의 推移에 비추어 民族의 宿願인 祖國統一의 興件을 實質적으로 改善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內外에 闡明하고자 합니다.

第2次 世界大戰後 우리는 解放이 되었으나 우리의 意思에 反하여 國土는 兩斷되고 民族은 分裂되었습니다.

當初 日本軍의 降伏을 받기 위한 軍事的 境界線이라고 하던 38線이 그後 鐵의 帳幕으로 변하고, 南과 北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分野에 걸쳐서 完全히 遮斷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美蘇共同委員會가 開催되어 38線의 解消와 統一民主政府樹立을 위한 交渉이 있었으나, 美蘇間의 根本的 對立으로 失敗에 돌아가고 結局 韓國問題는 國際聯合에 提起되었던 것입니다.

1947年 第2次 國際聯合總會는 南北韓을 통한 自由로운 總選舉의 實施를 決議하고, 이를 위해 臨時韓國委員團을 派遣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의 拒否로 南韓에서만 自由選舉가 實施되어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國際聯合에 의하여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 받게 된 것입니다.

1950年 6月 25日, 北韓共産軍의 不意의 侵略으로 因한 韓國動亂으로 無數한 同胞가 生命을 잃고 全國土는 焦土化되었으며, 3年間의 戰亂 끝에 休戰은 成立되었으나 分斷은 繼續되고 統一은 遼遠해졌습니다.

나는 이 分斷으로 말미암은 同族의 苦痛을 덜고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1970年 「8·15 宣言」에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促求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8月 12日 우리側은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으며, 昨年 7月 4日에는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南北對話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近 2年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成果는 우리 期待와는 距離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容易하고 實踐 可能한 問題부터 하나씩 解決해 나감으로써 南北間의 障壁을 漸次 除去하고, 具體的인 實績을 통해서 相互間의 不信을 信賴로 代替해 나가는 것이 對話를 生産的으로 運營하는 길이며, 平和統一을 成就하는 지름길이라고 主張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不信要素를 남겨 둔 채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一括 先決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北韓側은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進行中 밖으로는 事實上 祖國의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行動을 繼續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現狀으로 보아 우리가 期待하는 바 南北對話의 結實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難關이 豫見되며, 상당히 긴 時日이 所要되리라고 判斷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狀態가 그대로 放置된다면 結果적으로 不信의 深化와 緊張의 高潮마저도 憂慮되는 바입니다.

한편 最近의 國際情勢는 第2次世界大戰 後의 冷戰時代가 끝나고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列強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維持하려는 것이 그 主된 潮流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 間 이 地域에 있어서의 一聯의 周邊情勢의 發展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國土統一이 短時日內에 成就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고 있습니다. 卽 祖國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念願과 目標를 國際情勢의 現實 속에서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의 問題입니다.

親愛하는 5千萬 同胞 여러분!

우리는 客觀的 現實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祖國統一을 國內外的 現實 속에서 實現되는 賢明하고도 確固한 方案을 樹立하고 이를 強靱하게 追求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現實을 直視하고 平和를 이땅에 定着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政策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1.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傾注한다.
2.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

야 한다.

3.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具體的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서 계속 努力한다.
4.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5.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 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國聯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6.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7.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

나는 以上에서 밝힌 政策 중 對北韓 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的 期間 중의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하여 드립니다.

親愛하는 南北同胞 여러분!

나는 우리 祖國이 처해 있는 오늘의 內外情勢를 冷澈히 評價할 때 이 길만이 緊張緩和의 國際潮流 속에서 民族의 威信과 矜持를 維持하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적으로 成就하는 지름길이라고 確信합니다.

슬기롭고 勇敢한 民族 앞에는 결코 失望이나 挫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希望찬 勇氣와 슬기로 韓半島의 平和, 겨레의 繁榮, 그리고 祖國統一을 위해 힘차게邁進합시다.

1973년 6월 23일

大統領 朴 正 熙

南北相互 不可侵協定締結 提議

—1974年 1月 28日 年頭記者會見에서—

朴正熙大統領은 1974年 1月 18日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間の <相互不可侵協定>을締結할 것”을 提議했다.

朴大統領은 이날 會見에서 統一을 指向하는 새로운 南北關係에 있어서 가장 緊要한 問題는 韓半島에 眞正하고도 恒久的인 平和를 構築하는 것이라고 強調하고 統一에 이르기까지 過渡的 平和共存의 土臺로서 南北韓이 不可侵協定을 締結할 것을 다음과 같이 提議하였다.

...“평화협정을 맺자”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1971년 8월에 『뉴욕타임즈』의 어느 기자가 중공을 방문 했을 때에 주은래 중공 수상이 처음으로 끄집어 낸 이야기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북한측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고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석상에서 북한측에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서 이런 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 진심이나 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따져보면 한 서너 너덧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외군 철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앞으로는 군비경쟁을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장비나 군수물자도 들여오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지금 있는 휴전협정은 없애 버리자, 여기에 평화라는 말을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평화란 어휘에 대해서 약간 현혹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다 나가고 군대는 10만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에서부터 무기는 절대 들여 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 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꼭 6·25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며,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평화 평화 하지만, 이 평화협정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그런 음모와 계략과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6·25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든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 한 번쯤 속을지 모르지만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 한번은 속지마는 두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요즈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한 연방제」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것과 꼭 같은 그런 수법입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격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평화 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 그 협정 조문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협정이 되면 그 날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남한이나 「유엔」군측이나 공산측이나 무기를 들여와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산측에서는 이것을 먼저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자주 반입하기 때문에 「유엔」측에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공산측에서는 들은체 만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문은 죽은 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라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이것은 오늘날 「월남」 휴전협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후 1년이 된다는 말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번 위반 사건이 있고, 수십번 전투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를 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

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운운하는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모든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또 도발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장 전술이다, 그래서 북한측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선전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남한에 제의를 했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남한에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이 똑 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평화협정 같은 것을 새로 맺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휴전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나는 전쟁은 막을 수 있다, 또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만3천여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 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7·4 공동성명을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 남북 공동성명을 내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조문에도 명시되어있는, 서해 해역을 자기들 관할해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7·4공동성명의 정신이나,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하한 경우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물자만 포함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는 정의와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협정을 열번 스무번 맺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 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자, 그 동안에 서로 대화도 활발히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여름에 우리정부에서 발표한 「6·23 선언」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갈망해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써는 당장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전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면서 그 동안에 남북이 활발히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나가자, 이것이 「6·23선언」의 정신이요 또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결국으로는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평화를 원하는 체하면서 뒷전으로는 만전을 피우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平和統一 三大基本原則

—1974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祖國의 平和統一에 關한 大韓民國政府의 基本立場은 1974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正熙大統領께서 밝힌 平和統一 三大基本原則으로 集約되는바 다음은 同原則을 闡明한 演說文을 拔萃한것이다.

...여기서 잠시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해 볼 때에, 우리가 해방과 함께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더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12월에 만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주 독립을 열망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여 「모스크바 삼상 회의」의 신탁 통치안을 거족적으로 반대하였더라면 우리는 그 때 이미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북한 공산 주의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포변하여 반민족적인 신탁통치안을 찬성 지지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 땅에는 민족 분열의 씨가 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1947년 11월, 「유우엔」총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우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를 건의하고 선거의 감시 의무를 말을 임시위원단까지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또 다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회를 무참히도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우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임복을 거부하는 한편, 북한 지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위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광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8년 5월에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예성강의 물줄기를 끊어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토와 민족을 양단하는 반민족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같은 정세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겨레의 여망에 따라 「유우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유우엔은 우리 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악랄하게도 당초에 기도했던 바 그대로 한반도를 적화할 목적으로 기습적인 무력 남침을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 6·25동란입니다.

그들의 반민족적 만행으로 동족의 귀중한 인명 희생은 막대하였고, 전국토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침략은 국제 여론의 규탄을 받았고, 드디어 「유우엔」은 그들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오직 반공 구국의 일념으로 일치 단결하여 공산 침략을 물리쳤고, 세계의 많은 자유 애호 국가들은 우리의 이 투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전 성립 후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정치 회담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제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거부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기회를 또 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이른바 사대군사노선을 강행하여 군비를 계속 증강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전쟁 재발의 위험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도발의 양상이 이 이상 더 격화된다면, 그것은 남북을 가릴것 없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 땅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여 5천년동안 연연히 유지되어 온 우리의 민족사를 단절이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자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첫 길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다는 판단하에 1970년 광복절에 북한에 대해 무력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서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하자고 촉구하는 8·15 선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고, 또한 72년에는 온 겨레의 여망을 받들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반 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에 비로소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대화의 과정에서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간에 가로놓인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모든 정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통일의 기회를 저해하기만 해 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도리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는 남북 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작년 6월 23일 평화 통일의 대전제인 항구적인 평화를 이땅에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꾸준한 평화 노력에 대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남북 대화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터무니 없는 비방 중상을 더욱 노골화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서해 5도 수역과 휴전선 근처에서 각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긴장 고조의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금년초에는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 상호간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요, 지상 명제인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일관성 있는 노력을 꾸준히 다각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발전을 질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불가침협정 제의마저 외면하고, 최근에는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격침·나포하고 경찰 경비정을 격침하는 등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만행을 계속 자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는 평화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운위하고 있으나, 그 실에 있어서는 동족의 분열과 무력 남침만을 획책해 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 민국이 북한의 집요한 침략적 도발 속에서도 줄기찬 평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민의 마음은 새마을 운동으로 더욱 새롭고 희망차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수출 입국의 파도는 이제 5대양으로 힘차게 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학 공업건설의 우렁찬 발걸음은 약진하는 대한 민국의 맥박이 되어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류 파동과 자원난으로 야기된 작금의 세계적 경제 불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준공과 더불어 개통을 자랑하게된 서울 지하철의 건설 등 대중복지 생활의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력이야말로 이땅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또한 그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역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창조력이요, 그 주체인 민족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생명력 그것입니다. 창조력에 의하여 역사는 발전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민족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의 지상 염원인 평화 통일은 무궁한 창조력을 가진 민족사의 당연한 귀

결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찬연한 증흥과 번영도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민족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온 평화 통일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 통일 기본 원칙이야말로 오늘의 국제 환경속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성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행통일 후통일의 정책 기초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성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한시바삐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7·4 남북 공동성명과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남북 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과 불가침협정 체결체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평화의 정착이 이룩되지 않은 곳에 평화 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特別談話文

—7·4 南北共同聲明 3周年에 즈음하여—

親愛하는 國內外 同胞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念願하는 5千萬 거리의 汗結같은 興望과 全世界 平和愛護國民들의 聲援 속에서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한지 3周年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7·4共同聲明의 基本精神은 南北間에 서로 對話를 통하여 信賴를 恢復하고 交流를 擴大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땅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自主的인 統一의 길을 摸索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3년이 지난 오늘, 南北對話는 膠着狀態에 놓여 있으며 韓半島의 緊張은 그 어느 때보다도 高潮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동안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해 努力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줄기찬 意志와 政策을 다시 한 번 內外에 闡明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北韓共產侵略主義者들은 일찌기 6·25南侵戰爭을 일으켰으며, 休戰後에도 계속 우리에게 대해 온갖 武力挑發을 恣行해 왔습니다.

특히 1968年 1月에는 靑瓦臺襲擊企圖事件을 비롯하여 같은해 11月的 蔚珍·三陟地區 武裝共匪浸透事件, 그리고 1969年 12月的 大韓航空旅客機 拉北事件 등 70年을 前後하여 韓半島의 緊張은 한층 高潮되었을 뿐 아니라 戰爭再發의 危險마저 높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1970年 8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戰爭의 慘禍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平和를 維持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8·15 宣言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는 그 宣言을 통하여 萬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유우엔」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유우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參席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에게 대하여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部門에서 善意의 競爭을 하자고 促求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1年 8월에 우리는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北韓侵略主義者들의 6·25 南侵으로 말미암아 散散히 흩어진 離散家族들의 人間的 苦痛을 하루속히 덜어주고 그들의 再會를 實現시키기 위한 同胞愛의 發顯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南北이 서로 對話를 통하여 平和統一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야 하겠다라는 衷情에서 萬難을 무릅쓰고 平壤에까지 사람을 보냈고, 그 結果로써 1972年 7月 4일에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南北對話는 北쪽의 非協調的인 姿勢 때문에 沈滯를 免치 못하는 狀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1973年 6月, 對話의 進展에 또 하나의 契機를 마련하고, 平和를 指向하는 國際潮流 속에서 우리의 諸般 與件을 現實的인 것으로 改善하고자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南北對話에 誠實과 忍耐로써 努力하는 한편, 北韓이 우리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參與하는데 反對하지 않을 뿐 아니라, 互惠平等의 原則아래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에게도 門戶를 開放한다는 등 7個項의 平和統一을 위한 政策闡明이었습니다.

그러나 北韓侵略主義者들은 이같은 우리의 正當하고도 現實的인 平和政策에 대하여 誠意있는 應答은 커녕, 소위 「聯邦制」나 「大民族會議」나 하고 非現實的이고도 常套的인 主張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中傷과 謀略으로 맞서고 나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은 해 8月 28日,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撤廢하라는 등 우리가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要求條件과 口實을 내세우면서 一方的으로 南北對話를 中斷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그 같은 無道한 行爲에 대해서도, 오직 祖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一念으로 忍耐에 忍耐를 거듭하여 그들을 타이르면서 南北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本會議의 再開를 促求하였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共產集團은 對話의 正常化는 拒否한 채 오히려 西海上의 우리 島嶼에 挑發行爲를 加해 오는가 하면, 休戰線一帶에 各種 軍事施設을 계속 強化하여 南侵威脅을 한층 激化시켰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急迫한 狀況 아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을 防止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74年 1月 18日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을 提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15光復節을 期해 나는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을 다시 한번 促求하고 相互門戶를 開放할 것과 南北間의 信賴恢復을 바탕으로 自由總選舉를 實施함으로써 統一을 이룩하자라는 것을 骨子로 하는 가장 現實的이면서도 實現性있는 平和統一 三大基本原則을 提示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統一을 武力에 呼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며, 이는 기필코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決然한 民族的 意志의 表象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誠意있는 平和提議와 說得에도 不拘하고 北韓侵略主義者들은 正當한 理由없이 南北對話를 拒否할 뿐 아니라, 最近에 와서는 심지어 實務級 接觸마저도 遷延시키면서 大韓民國의 顛覆과 武力統一이라는 妄想을 達成하고자 狂奔하고 있는 것입니다.

南北의 同胞 여러분!

北韓侵略主義者들은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始終一貫 소위「南朝鮮 武力革命」이라는 基本戰略을 秋毫도 바꾸는 일없이 執拗하게 追求해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南北赤十字會談을 推進하고 7·4共同聲明을 發表하는 바로 그 時刻에도 休戰線一帶의 地下에서 南侵攻擊用 大規模 땅굴을 파내려오고 있었다는 事實로 보나,

우리과 南北對話를 하고 있던 그 時間에도 大韓民國을 顛覆할 目的으로 武裝共匪와 狙擊犯 등을 浸透시켜 反民族的이고 野蠻的인 挑發行爲를 계속적으로 恣行해 왔다는 事實로 보나, 그들이 武力革命路線을 固守하고 있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侵略主義者들이 말하는 「平和」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平和가 아니라, 南侵戰爭과 暴力革命을 隱蔽하기 위한 欺瞞術策에 不過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言必稱 「自主性」을 되풀이 하면서도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統一의 첫걸음이 되는 南北對話를 忌避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同族끼리 한 자리에 앉아서 겨레의 將來問題를 討議하는 南北對話를 忌避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멀리 第3國에 돌아다니면서 거짓 宣傳으로 우리 大韓民國에 대한 誹謗·中傷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같은 事實만 보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平和」와 「自主」라는 用語가 한낱 欺瞞에 不過하다는 것은 自明합니다.

그리고 南北對話가 膠着狀態에 빠져 있는 責任도 全的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南北間의 信賴恢復을 위한 民族的인 努力을 外面하고, 오직 暴力과 武力에 의한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狂奔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民族」이니 「平和」니 또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云謂할 資格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 機會에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強力히 促求해 두고자 합니다.

그들이 萬一 眞心으로 民族을 사랑하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願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侵略戰爭의 準備와 一切의 間接侵略行爲, 그리고 國際社會에서 同族을 恨뜨는 民族自害行爲 등을 卽刻 中止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本會議의 赤十字本會談을 하루속히 再開함으로써 中斷되고 있는 南北對話를 正常化시킬 것을 거듭 促求합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지금 우리 世代가 當面하고 있는 時急한 課業은 北韓侵略主義者들의 武力南侵을 斷乎히 沮止하면서 이 땅에 굳건한 平和를 定着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國力을 培養해야 하고, 그 莫強한 國力은 바로 南北對話를 뒷받침하는 必須的 要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南北對話와 平和統一의 推進力이 되는 國力培養을 위해 總和團結로써 加一層 獻身합시다.

1975年 7月 4日

大 統 領 朴 正 熙

記者會見

—日本毎日新聞 論說主幹과의 會見內容—

1975年 1月 14日

• 韓半島에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朴大統領=한마디로 말한다면 可能性은 크다. 무엇보다도 北韓共產集團의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라는 기본정책은 1950년 그들이 韓國에 侵攻한 때 以來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同時에 그들은 全力을 기울여 軍비확장에 힘쓰고 있으며 준비는 끝났다고 그들 자신의 입으로 떠들고 있다.

물론 金日成이 전전한 상식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전쟁의 위험은 적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도 防備에 全力을 다하고 있으며 韓國軍과 駐韓美軍을 합치면 共產側에 勝算이 없는 것은 明白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들은 國際的支持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金日成이 이런 상식위에서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그가 韓國의 힘을 過小評價하여 국제정세의 분석을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은 커진다. 따라서 이런 과오를 그로 하여금 犯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弱點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테면 韓國內에 國論의 分裂이 있거나 韓國과 美國·日本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으면 그것은 金日成에게 그릇된 判斷을 주게 된다.

• 그러면 그 緊張을 緩和하는 길은?

朴大統領=韓國은 韓半島에 어떻게하여 平和를 定着시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南北平和統一에 관해서는 다음의 3大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韓半島에서 戰爭의 再發을 막기 위해 南北不可侵協定을 맺어 緊張을 완화하고 平和를 構築하는 것. 둘째로, 南北對話의 積極化·交流의 擴大로 相互信賴를 회복하는 것. 셋째로, 이런 與件위에 서서 人口比例에 따라 公正한 선거관리와 감시아래 南北總選舉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수립, 조국을 平和的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韓國은 이런 일장에서 北에 대해 갖가지 호소를 해왔으나 지금으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平和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라더라도 相對便이 옹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의 國力이 北보다 優越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韓國을 武力에 의해 屈服시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깨달았을 때 北은 對話에 응해올 것이다. 우

리는 긴장완화의 노력을 참을성 있게 계속하는 동시에 國力の 培養에 全力을 다하고 있다.

• 北韓이 提唱하고 있는 南北聯邦制는 어떤가. 聯邦이 되면 南쪽만이 美國과 關係를 맺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韓國은 반대하는 것이라는 비평이 있는데...

朴大統領=南北會談의 자리에서 聯邦制의 구체적 내용을 물은적이 있는데 진지한 대답은 없었다. 北은 政治宣傳을 위해서만 聯邦制를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한다. 聯邦制 實現을 위해서는 相互不信을 제거하는 것이 先決이다.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現在로서는 聯邦制는 非現實의인 論議이다.

•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에 의한 南北對話는 中斷된 채로 있다. 打開의 方法은 없을가요.

朴大統領=南北對話의 자리에서는 온갖 얘기를 했다. 北의 侵略으로 시작된 韓國戰爭의 책임을 따졌더니 北은 直接的 형식으로는 시인하지 않았으나 『지나간 일을 문제삼는 것은 그만두고 장래의 일을 의논하자』라는 表現을 했다. 또 1·21事件을 들어 『이런 태도로 平和達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金日成은 『내가 죄송해하고 있다고 朴大統領께 전해달라』고 우리대표(李厚洛 중앙정보부장·當時)에게 말한 일이 있다.

이때 金日成은 옆에 있던 金仲麟(對南工作책임자)에게 『그事件의 책임자는 속칭했느냐』고 물었다. 金仲麟은 이에 대해 『妄動分子는 처벌해서 炭鑛으로 보냈읍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北의 자세도 진지해졌다고 當時는 느꼈다. 그런데 작년 8월 15일의 나에 대한 저격사건의 犯人 文世光은 72년 9월에, 즉 南北共同聲明發表 2개월 뒤에 北으로부터 行動指令을 받고 있었다. 休戰線의 땅굴도 技術的으로 보아 共同聲明과 同時期에 착공된 것이 明白하다. 이밖에 여전히 間諜을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北은 平和統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해 共同聲明에 응했다는 것이다.

韓國국민의 경계심을 弛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응한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해 보니 그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다. 대표단이 서울과 平壤을 왕복하는 가운데 北의 閉鎖社會의 恥部도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은 對話를 中斷했다. 韓國은 戰爭을 防止하기 위해 對話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再開를 提案해 왔다. 그러나 北은 熱意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파괴를 위해 無理한 難題를 들고 나온다. 이를테면 韓國의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을 폐지하라, 反政府分子를 석방하라고 한다. 이것은 『서로 內政에 간섭 않는다』는 共同聲明의 조항에 위반하는 요구이다.

이 現狀을 打開하는데는 참을성있게 最善을 다해 나갈 수 밖에 없다. 南北離散가족의 현지왕래와 같은 쉬운 問題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北側은 이에 대해 온갖 口實로써 거절하고 있으나 朝總聯의 많은 사람들은 韓國政府의 呼訴에 응해 韓國을 訪問하고 있다. 우선 朝總聯과라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 「유엔」의 場은 韓國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意義를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朴大統領=지금까지의 「유엔」의 韓國에 대한 貢獻度는 컸다. 今後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최근 變質해 버린것 같이 생각된다. 加盟國이 늘어남에 따라 充分한 機能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 總會의 政治委員會에서의 西方側과 共產側의 서로 對立하는 2개의 결의안의 同時 채택은 「유엔」의 權威와 威信을 失墜시키는 것이다. 韓國은 統一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南北의 「유엔」 同時加盟을 주장하고 있다. 無法者를 「유엔」에 넣어서 平和共存을 받아드리게 하여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이다. 「유엔」의 普遍性的 原則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올바른 方法이다. 駐韓 「유엔」軍司令部에 대해서는 北은 休戰協定을 대신하는 平和維持의 機能도 만들지 않고 이것을 解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戰爭狀態의 復活이다.

駐韓美軍을 철수시켜 그 空白期間을 利用하여 戰爭을 挑發하려 하는 것이다. 韓半島 문제를 해결하는데 韓國을 제외하고 北과 美國만으로 처리하려는 奇妙한 말도 하고 있다. 이런 主張의 결의안이 政治委員會에서 可決된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유엔」이 아직도 올바른 機能을 발휘할 조건은 充分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憲章의 基本정신을 살려서 本來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希望이다.

• 日·美·中·소등 관계가 깊은 나라들이 韓半島의 安全確保를 위한 協議을 했으면 어떤가라는 意見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朴大統領=그런 나라들이 協議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키신저美國 務長官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當事者끼리에 의한 會談을 추진하는 것이 實質的이며 現實的이다. 왜냐하면 韓半島의 문제에 관해서는 南北間의 合意나 了解가 없으면 實質的인 效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과 中共은 다같이 키신저提案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 훗날은 몰라도, 가까운 장래에 이런 會談이 實現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現在의 韓國의 維新體制는 一時的인 것인지 아니면 오래 계속되는 것인지……

朴大統領=韓國은 北으로부터 武力에 의한 威脅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따라서 現在의 最優先課題는 國家와 民族의 生存權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와 民族이 살아가는데 威脅이 있는 限, 現在의 國內體制를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北이 武力에 의한 韓國의 赤化統一의 妄想을 버릴 때까지는 이 體制를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維新體制에 대해 外國에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國家의 生存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라고 外國의 사람들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韓國에서는 現在 政府비판의 言動은 크게 制約되고 있다. 이것이 日本國民間에 韓國에의 親愛感을 기르는데 있어서 방해가 돼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朴大統領=그런 소리가 日本에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韓國도 日本과 같은 自由民主主義의 國家이며 자유롭고 開放된 社會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는 물론 政府에 대한 비판은 基本的으로 보장돼 있다. 現實적으로 新聞에 의한 政府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國會에서의 野黨의 정부 비판 발언은 극히 신랄하다. 결코 國民에게 沈黙을 強制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의 制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理由는 되풀이해서 말한 것처럼

럼 韓國이 國難에 直面해 있는 것이다. 非常事態아래서는 放任主義는 許容되지 않는 것을 理解해 주기 바란다.

現行의 制限은 國家와 民族의 生存을 지키기 위한 國論의 統一과 國民의 단결을 阻害하는 言動에 대한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國民의 단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것도 排除하지 않으면 안된다. 非合法的手段에 의한 顛覆活動을 보아 넘길 수는 없다. 거듭 말한 것처럼 이런 制限은 現在 韓國이 놓여있는 特殊事情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不愉快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特殊事情을 이해하는 配慮도 가져주기 바란다. 만일 日本이 「도쿄」(東京)의 北쪽 25「마일」(40km) 지점에서 分斷돼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日本國民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그 日本의 北쪽 部分이 南쪽 部分에 대해 武力侵攻을 기도하고 있으며, 「테러」를 하고, 間諜을 보내며 數10萬의 군대를 分斷線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고 假定하자. 그럴 경우 日本국민은 現在의 日本이 갖고 있는 自由를 그대로의 형태로 허용할 수 있을까. 몇가지의 制限이 必要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現實적으로 이런 威脅아래 놓여있는 韓國의 立場을 알아주기 바란다.

• 日・韓經濟協力은 어떠한가 하고 생각합니까.

朴大統領=韓・日의 經濟協力은 韓國의 경제발전에 多大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동시에 日本에도 또 貢獻하고 있다. 韓國의 貿易收支는 작년 1년동안 약 30億「달러」의 赤字였는데 그중 12億「달러」가 日本관계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對日入超가 계속되고 있는데 日本은 韓國의 수출품에 一部 수입 제한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大량어・生鮮魚類・生絲등이다. 日本의 農漁民보호의 見地에서이겠지만 이런 一方的인 制限이 아니라 互惠平等의 原則유지의 大方針이 經濟協力 増大의 길이라 생각한다.

兩國間의 자본협력도 상당한 額에 달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日本의 一部에 이해부족이 있는 것 같다. 借款은 正當한 利子を 붙여서 返濟하는 것이며 日本의 利益도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마치 日本의 無償援助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또 日本의 資本協力은 韓國民의 福祉를 위해서가 아니라 政權의 延命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見解가 있으나 이것도 誤解이거나 中傷이다. 韓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先進國의 경우와 달리 먼저 資本을 축적하여 生産과 雇用을 증대시켜 國民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社會福祉확충의 가장 健全한 方法이라 생각한다. 더우기 兩國間의 경제 관계는 다른 角度에서 볼 필요도 있다.

韓國의 경제가 발전하여 國力이 증대하는 것은 韓半島에서의 戰爭防止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韓半島의 安全과 平和는 日本을 포함한 全「아시아」, 아니 世界平和를 위해 필요하다. 兩國의 경제 관계는 그런 높은 次元에서 볼 필요가 있다.

• 이른바 日・美・韓 軍事同盟說에 대해서는...

朴大統領=최근 美國과 日本의 사람들로부터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은 日本의 그것에 直接 重大한 영향을 갖는데 日本은 어떤 기여를 해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日本은 헌법과 國內사정 때문에 軍事協力은 어려울 것이나 經濟協力은 強化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韓·日閣僚會議에 「후쿠다」(福田) 副總理에게도 말했지만 지금 韓·日·美의 3角관계에 있어서 日·美間과 韓·美間에는 각각 軍事同盟이 있으나 韓·日間에는 그것이 없다. 現實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나 平和維持協力の 3角態勢를 굳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日本이 할 수 있는 部門은 지금으로선 經濟協力이다.

• 日本 및 日本人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朴大統領=韓·日兩國間에 歷史적으로 不幸한 관계가 여러차례 있는 것은 사실이다. 兩國은 地理的, 文化的으로 가까운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理由는 하나는 地理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 상대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不足했기 때문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나는 日本 및 日本人에게 親密感을 갖고 있다. 兩國이 장래 좋은 「파트너」로 되는 것은 兩國을 위해서도, 「아시아」와 世界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우며 可能하다. 韓國民中에 日本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다. 그나름의 理由가 있기 때문이지만 小乘的 立場에서가 아니라 大乘的인 마음으로 서로 理解·尊重에 힘쓰는 것이 重要하다.

• 日本이 「北韓과 交流를 해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朴大統領=日本과 北과의 交流는 日本政府가 하는 일이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韓國의 立場에서 注文한다면, 北의 軍備擴張에 直接으로든 間接으로든 기여하는 것은 삼가 주기 바란다. 北과 協力하여 日本이 얻는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인가.

• 이밖에 다른 意見이 있으면 이 기회에 들려주기 바랍니다.

朴大統領=日本의 「매스컴」은 韓國과 北을 볼때 偏見을 갖지 말아달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北은 地上의 極樂, 國民에게는 自由가 넘치도록 있다. 한편 南쪽은 朴대통령의 獨裁가 심하다... 왜 日本의 「매스컴」은 그런 偏見을 갖는가. 韓·日兩國이 올바른 理解 위에 서서 親善을 깊게 하는데 기여하는 報道를 바라고 싶다. 北은 日本과 理念的으로도 다르다.

그들은 侵略集團이다. 日本에 대해서도 敵對國이다. 「日本軍國主義」라 비판한 일도 있다. 그런 한편으로 日本國民에 대해서는 매우 아양을 띤다. 政府와 國民을 離間시키려는 惡意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하든 南을 뒤집어 共產化하려 하고 있는데, 가령 그렇게 되면 다음 목표는 日本의 左翼세력·朝總聯과 짜고서의 日本赤化일 것이다.

President Park Chung Hee :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Korea Peninsula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Tokyo Bureau Chief Richard Halloran, on August 20, 1975, President Park talked about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question. The following is the New York Times article on the interview.

President Park Chung Hee says that in five years his nation will no longer need American ground, air or naval forces or even logistic support to help defend itself if North Korea attacks without Chinese or Soviet aid.

Even now, the President said in a two-hour interview, American ground forces are not required to fight North Korea.

"If the North Korean Communists launch an attack against us without any external help," said the President, a former general "then we would be able to repel it successfully if proper air and naval support is given by the United States, with appropriate logistic support."

Mr. Park thus appeared to open the way for the reduction and eventual withdrawal of the 40,000 American troops and airmen here, although he carefully specifi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his Government might approve of that. Until now, Mr. Park has emphatically insisted that American forces must remain at their current levels for the foreseeable future.

"We know very well," President Park said, "that we cannot depend on the United States for the upgrading of our military capabilities indefinitely and it is our wish to possess the capability to defend ourselves with our own means. In my view, that will take about four to five years."

When the current American aided program to modernize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has been completed, the President said, "Korea will be able to defend itself against any North Korean Communist attack—if such an attack were launched by the North Koreans alone, without any help from their military allies."

Mr. Park answered questions through his official interpreter in his large, comfortable office in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mansion.

The President, who smoked and sipped coffee throughout the interview, relaxed and tanned from a recent vacation at a southern coastal town. He had been in seclusion for several days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e death of his wife, who was killed by an assassin's bullet intended for him during Liberation Day ceremonies on Aug. 15 last year.

In the interview, Mr. Park also made the following points.

He is willing to meet personally with President Kim Il Sung of North Korea to discuss easing Korean tensions if the Communist Leader show he is truly interested in peaceful unification.

He is strongly opposed to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s President Kim has proposed, and asserted that South Korea has a commitment from Washington that, in effect, gives Seoul a veto over such discussions.

He has suggested to Japanese leaders that Japan give preferential trade and economic treatment to South Korea as European nations have done for their former colonies in Africa.

He has told Japanese leaders tha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have a special relationship in defense since both are linked to the United States by security treaties.

President Park was vigorous in defending his current political position, under which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here are severely restricted. "The absolute majority of our people believe that those measures were absolutely necessary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he asserted.

He said, however, that if the North Koreans gave up their objective "of unifying the whole of Korea by means of force and violence, and if they accepted peaceful coexistence with us, then I would immediately repeal the emergency measures I have taken and I would take much more liberalized policies."

The shift in nuance in Mr. Park's attitude toward the American troop issue comes when many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ve questioned the continued stationing of American forces here, contending that they risk involving the United States in another politically unpopular land war in Asia.

Mr. Park's assessment of the current roles of American ground, air and naval forces also appears to agree with that privately held by American military commanders here but not expressed publicly because of South Korean attitudes.

The President said that modernization of South Korea's armed forces meant improving military capabilities "to that level where we can withstand aggression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s alone," that is, without the overt help of the Chinese or Russians.

He noted that a new defense tax, comprising about one-fourth of the nation's internal re-

venue, had been imposed to help pay for the modernization. Korean officials said that would amount to about \$5-billion in five years, though much depends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program calls for completing a \$1.5-billion American military aid plan, drawn up in 1970, that is running well behind schedule.

Mr. Park asserted that "at least until the modernization is fully accomplish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to be kept at their present level. "An aide said later that the President considered the military, combat role of American forces to be separate from their political, deterrent function. South Korea considers the presence of American ground forces necessary now to insure an American response to a North Korean attack and as a deterrent against Chinese or Russian intervention on behalf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one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artillery and a missile brigade stationed near the demilitarized zone dividing this peninsula,

"When we accomplish the modernization fully" the President said, "then there might ar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is still needed. If we can be sure that there is absolutely no threat of war with external backing, the necessity of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would accordingly be diminished."

"But we must 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have military alliances with both Communist China and the Soviet Union." Mr. Park continued. "If detente develops to such an extent that the military alliances of these two powers are abrogated, then we might be able to reconsider the whole situation."

Bo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ve apparently told the North Koreans recently that they do not want to become engaged in a Korean conflict for fear of clashing with the United States, upsetting detente and risking nuclear war. They are also more concerned with the rivalry with each other.

President Park said that even while North Korea's military alliances remained intact, American forces in Korea might be reduced as long as a presence remained "to prevent any outbreak of hostilities in this part of the world."

He suggested, however,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at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global strateg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ests and the influence of four big powers,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Communist China and Japan, are closely interlocked," he sai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in this very delicate part of the world."

President Park, who has called for a resumption of the dialogu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egun in 1972 but now stalled, was asked whether he would be willing to meet with

President Kim to negotiate an easing of tensions in Korea.

He replied: "If Kim really intends to seek the unification of this country by peaceful means and not by military force, it would not be meaningless for me to meet with Kim Il Sung and talk about the unification of this country."

But, he added, "As long as Kim thinks that he must communize the whole country by military means, it would just be a waste of time for me to have any direct dealings with

Kim Il Sung." The President also said: "It would take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confirm Kim's real intentions." "We know that he is trying very hard to have some sort of direct dealing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passing us or, rather, going over our heads," Mr. Park said. "We believe that the Japanese or, for that matter, the U.S. Government, know very well that we are opposed to this,"

The President said: "We have been assur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without any prior consultation with this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ould not have any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Noting that Sou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have been strained in the last few years, President Park indicated impatience with the Japanese on several scores.

記者會見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의 背景說明—

I. 背景說明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역사적 전환을 이룩하는 일대 영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여러분에게 그와같은 외교정책에 대한 배경과 또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염원이 무엇이나 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조국의 통일,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 통일된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이룩하고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꾸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일관된 추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된채로 불행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4개국이 신탁통치를 실시하자, 이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거족적으로 이 신탁통치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염원과 양심이 있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야 할터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표변해 가지고 신탁 통치를 완성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정부나마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기회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북쪽에서는 먼저 정권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분단을 획책하는 행위들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1947년 「유엔」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 총선거를 감시하고 돕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정권을 수립했던 북쪽 사람들은 이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 정부를 수립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는 매년 남북의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권유하고 있었읍니다만, 시종일관해서 북쪽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통일 정부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북한측 사람들의 조국 통일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것으로 그쳤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은 일요일 날 새벽에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해 왔읍니다.

이것은 더 설명드릴 나위 없이 무력에 의해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그와 같은 적화 통일의 기도로, 무력 침공을 감행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적인 죄과를 계속 범해 왔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강렬하게 염원하고 있었던 조국의 통일, 그것도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도는 이상 설명드릴 것과 같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동족상잔의 참화를 겪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북쪽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참화는 없었야 되겠다」, 「통일은 이룩해야 되겠다」, 「평화적인 방법으로써 통일이 이룩되어야 되겠다」는 열망은 굳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쪽 사람들은 6·25사변 후에 있어서도 계속 「개릴라」를 보낸다든지, 무장간첩을 보낸다든지 해서 무력 통일이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생하게 기억하실 뿐 아니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몇가지 예를 든다면 1·21 사태라든지 또한 울진·삼척 사건이라든지, 「푸에블로」호 사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저쪽 사람들의 이와 같은 도발은 끊임 줄을 몰랐읍니다.

1·21사태는 다름이 아니라 북쪽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해치려고 교도로 훈련된 무장 「개릴라」를 침투시켰던 것으로서 용서 못할 이러한 일들을 북쪽 사람들은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쪽 사람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가 북쪽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데에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득을 하고 기회를 마련해 주고 호소를 하고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통일의 길에 접근하여야 겠다는 굳은 신념에서 8·15선언을 하시면서, 북쪽에게 개발과 창조,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의하심으로써 우리의 폭넓은 조국애와 민족애를 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어떠했읍니까? 오히려 같은 해 11월에 노동당 제 5차 전당대회에서 우리의 그와 같은 제의를 유린하고 「4대 군사 노선」이라는 철저한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한 준비와 방책을 확인하고, 내외에 전쟁 준비가 완료 되었다고 호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화된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쪽 사람들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박 대통령 각하는 비상 사태를 선언하시고, 북쪽 사람들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또 6·25와 같은 전쟁을 감행할지 모르는 사태하에서 우리 국민은 총력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유비(有備)하면 무환(無患)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정신적인면, 체제면, 혹은 생활면에서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강화를 함으로써 북쪽의 도발을 무언중에 억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렇게 고도로 고조된 남북간의 긴장이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역시 북쪽이 그와 같은 도발을 해 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인내를 가지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불식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와 신뢰의 바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에서 남북 적십자간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나아가서는 72년 5월 2일에 이후락 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내시고, 우리의 참된 평화통일의 정신을 설명시키심과 아울러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고, 그 후 적십자 회담이나 조절위원회 회담이 수차례 걸쳐서 열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화 진행 중에 있어서도 북한 사람들은 무력 도발을 계속했읍니다.

그러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같이 해 놓고서도 막상 문제를 다루는 단계에 들어가면 어려운 난제를 제시해서 회의를 진행을 저해하거나 또는 밖에서 대화를 하는 이면에서 국제 사회에서 강력하게 외교 경쟁을 벌임으로써 오히려 대립을 격화시키고,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시키는 행동을 자행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평화적 통일을 내외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과감한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 조류는 화해와 현상 유지를 기초로 해서 여러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냉엄한 국제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통령 각하께서 가지신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에 피동적으로 적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은 비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국제적으로 변동해가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대처하거나 적응해 들어가지 못하고 피동적인 자세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이 해방만 하더라도 그러했습니다. 또 100년 전의 함말(韓末)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나라

를 우리 나름대로 근대화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찾아 왔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 적절히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일본이 강점하는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그럼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마는, 통일에의 접근론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는 현상 타파가 전제되는 자주적인 노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국제 조류에 적응을 해 들어가면서 통일에 접근하는 것; 이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성격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는 국제 조류를 거부해야 하는 접근 방법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분단 고정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동에 적응하는 것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지 목표나 그 목적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평화 통일의 대전제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인 적응과 대처가 필요불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며, 평화통일의 노력을 적극화하고,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차원높은 통일 전략을 바로 오늘 아침에 천명하신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따라서 내외에 명백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우리 대통령 각하의 성명은 평화통일을 위한 원대한 포석이며, 또한 잠정적인 방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남북대화는 실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적십자회담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천만명이나 되는 이산가족들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신 왕래를 보장해 주고,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만나게 해 주고, 같이 살겠다면 같이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인도적인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간에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자고 하면 북쪽에서는 법률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 문제다, 탄공법과 보안법을 폐기해라, 그리고 한국의 반공 정책을 포기해라, 이와같이 인도적인 적십자회담의 근본적인 정신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내정 간섭을 일삼아 왔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조절위원회의 경우도 조절위원회는 「7·4공동 성명」에 담겨진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문제들을 성실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조절위원회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군사문제를 들고 나와서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교류를 실천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신뢰의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조절위원회에 있어서는 좀더 폭을 넓혀서 우리는 남북 사회의 완전개방을 하자, 거기에서 서로간에 신뢰를 찾자, 이와 같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의를 하는 데 반해서, 북쪽에서는 군비 축소를 하자, 병력을 감축하자, 장비 도입을 중지하자, 미군을 철수시켜라, 평화 협정을 맺자, 이런 식의 도저히 회담을 진행시킬 수 없는 그와 같은 난제를 내어 놓음으로써, 사실상 회의 진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북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자 하는 극히 건설적인 제의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도발은 계속되고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해 놓고서도 일방적으로 비방·비난 방송을 재개하고 점점 더 그 태도를 경화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대화의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분단을 고정화하는 행위를 더욱더 강화했고, 그와 같은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추구하자는 조국의 통일이 정말 어렵구나, 점점 갈 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북쪽 사람들의 행위를 국민 여러분도 같이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쪽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왔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설득이 효과가 적거나 혹은 어렵다고 한다면 국제 무대 같은 데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설득을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의 진의를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슬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직접·간접의 방법으로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 오늘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천명하신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은 바로 그와 같은 정신에서 천명을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내외에 명백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남북간의 대화가 어렵다고는 하나, 이것을 계속 추구해 들어가야 되겠고,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하는 냉엄한 상태로 변화해 들어가고, 내외에 매우 어려운 여건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말에 「순천자는 존(順天者存)하고, 역천자는 망(逆天者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천(天)이란 천리(天理)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리는 천하의 대세(大勢)를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천하의 대세에 적응하면서, 적응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날까지 굽히지 않고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에 대통령 각하께서는 많은 고민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남북대화를 하는데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자세라든지, 국제적인 냉엄한 현실이라든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열원과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놓고서 이런 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들어가야만 되겠느냐하는 문제를 대통령 각하께서는 몇 달 전부터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시는 등 평화통일을 위한 일련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외교정책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많은 숙고를 거듭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대통령 각하께서는 역사적인 전환을 결단하시게 되었고, 이를 오늘 내외에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 천명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가 이제 한반도 속의 한 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응비한 우리 나라의 힘의 뒷받침이 그와 같은 일대 영단을 내리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10월 유신으로 우리 나라는 국력이 다져지고, 안정 기반이 강화 되고, 또한 국력이 조직화되어서 총화 체제가 이룩되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10월 유신에 의한 총화 체제가 곧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인 영단을 뒷받침 해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주적 역량, 그리고 주체적인 기반이 그 뒷받침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국력의 반영입니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서로의 이해 관계와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다변적인 국제 관계를 맺어 나가고, 화해와 평화, 공존의 시대적 조류에 뛰어들어서 능동적으로 대응, 대처하겠다는 우리 대통령 각하의 천명은 북쪽과의 외교 해결에서 능히 이길 신념과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건국 이래 일관되어 온 평화통일의 끈질긴 노력의 계속입니다. 통일로 가는 평화의 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제 조류에 적응하면서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자주적 평화 통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천명하신 성명은 우리 국민에게 총력 외교 시대의 도래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가지 변화가 우리 나라에 일어날 것이 예측됩니다. 그것은 북한이 우리와 같이 여러 국제적 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북한이 우리와 같이 어느 때인가 「유엔」에 가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나라가 문호 개방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출입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세계 만방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우리들이 또 출입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소화해 나가면서 국제 조류의 변화에 적응해 들어가는 격변하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세계 속의 한국민」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국민 여러분께서 소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통령 각하의 영단을 받들고 국론을 통일해서 총력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나는 강조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녀야 할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견지하여야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성명에서 명백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국제적인 기구에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한다, 혹은 「유엔」에 같이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해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백히 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조치는 통일까지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적인 조치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명확히 아시고, 우리는 유일 사상 체제하의 북한과는 달리, 협동 총화로서 상부상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민족사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되겠고, 민족사적 정통성은 단연코 우리 측에 있다는 긍지와 이에 따르는 사명감을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견지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매진을 해야 된다고 나는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한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 속에서 확고한 좌표를 굳건히 차지할 것이고, 또한 유신 한국을 세계에 선양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화 통일은 국력이 뒷받침합니다. 이 국력이 뒷받침돼서 비로소 수다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인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해서 하나에도 국력 배양, 둘에도 국력 배양이라는 철학을 견지하고 모두 일심 동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의해서 국제적인 여러 장소에서 북한과 새로운 차원에서 외교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경쟁도 전개될 것입니다.

「유엔」에서 혹은 국제 기구에서 앞으로 전개될 이와 같은 북한과의 모든 경쟁은 이겨내야만 할 경쟁입니다. 이겨내야만 북한이 우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야만 북한이 자세를 가다듬어서 대화에 성실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겨내야만 통일의 길이 그만큼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겨내는 길은 오직 우리 국민들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국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인 외교정책을 천명하심에 뒤이어서 그 배경과 우리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강조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굴의 전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質疑 應答

【문】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특별 성명이나 지금 총리께서 배경 설명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제 연합 같은 데에 북한과 같이 들어갈 용의가 있다,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 질문 감사합니다.

이 점은 매우 명백히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휴전선 이북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두 개의 한국」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민족적 통일 염원에 비추어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박 대통령이 오늘 선언한 정책의 두번째 항에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북한측이 우리 국내 법률을 개폐해라 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행정에 속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내정 간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번 성명을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상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선을 제하려는 조치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이번의 정책 전환은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긴장 완화의 국제 조류에 신축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우리의 저시적인 안목과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를 또한 취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 전환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성명에 「언커크」나 「유엔」군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유엔」총회에서도 공산측에 의해 「언커크」해체 문제나 「유엔」군 철수 문제가 다시 제기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뭇입니까?

【답】 「유엔」군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존속하는 한

이것을 없애는 것은 반대합니다. 「언커크」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므로 그 해체 여부에 언급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동안 「언커크」는 「유엔」이 부여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성실하고 훌륭하게 활동하였다고 인정합니다.

「언커크」는 남북 자유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현단계로서는 남북 자유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커크」 존속 여부에 관해서는 「유엔」 결의에 따를 것입니다.

【문】 종래 우리 정부는 한국통일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어서 토의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장애를 가져 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제가 「유엔」에서 상정되어 토의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김총리께서는 남북 대화의 여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원래,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들쭉 풀어 가고 제 3국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려한 자주적인 노력에 대해 여유를 좀 가지고 지켜 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하는 방향으로 그 움직임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한국 문제의 「유엔」상정이 불가피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여에 걸친 북과의 대화가 우리의 소원과 달리, 진전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통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남북대화가 결실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마는, 「유엔」에서나 또는 다른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가 논의가 될 경우,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화를 확대하고 공개화하는 동시에 그로써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특별 성명 제 6항은 대한민국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하고 아울러서 우리와 이념 체제를 달리 하는 모든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공산국가 사람들이 한국을 대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한국 실업인들이 소련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명은 앞으로 공산 국가와 수교하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미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세계 조류에 적응해서, 긴장 완화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적대적이 아니고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이념이나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교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해 오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자유 진영에서는 북구라파 몇 개 나라의 경우와 같이, 북한을 승인하고 국교를 맺음으

로써 호혜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고 남북간의 균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는 정반대로 나가는 사태를 빚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정세 전환을 해 가면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불균형의 조성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 진영 국가들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고 자유 진영 국가들은 성급하게 북한을 승인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 북한이 국제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고립과 폐쇄로 특징되어 있던 북한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 생각으로는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엔」이나 자유 국가와 자주 접촉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이 경과한다면 그들 내부의 체질도 변화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동질성을 그만큼 증진시켰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보는 것입니다.

【문】 어제 남북 관계는 그 형태상에 있어서 동·서 관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새로운 남북한 관계와 동·서독 관계는 긴장 완화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동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계속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 동·서독과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致 辭

—2·24 學軍團 將校 任官式에서—

親愛하는 新任將校 여러분,

本人은 오늘 여러 분의 任官에 즈음하여 마음으로부터 祝賀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堂堂한 陸軍將校로 任官의 榮譽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學友들과 더불어 學業에 精進하면서 또한 軍事教育課程을 誠實하게 밟아 나와야만 했습니다.

本人은 그렇듯 남달리 코되고 어려운 나날을 훌륭하게 이겨낸 여러분의 굳건한 意志에 讚辭를 드리는 바이며,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벽찬 矜持가 끝내 이 나라 이 겨레의 將來를 위해 보람있게 發揮되어 나가기를 비는 마음 懇切합니다.

특히 여러 분은 大學軍事教育이 실시된지 15年만에 國軍將校로서 任命된 분들입니다. 그 뜻이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期間에 여러 분의 많은 先輩들을 日南전선에 出陣하여 熾熾한 戰果를 올리고 世界의 戰史에 빛나는 數많은 武功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瞬間에도 前方 第一線에서 軍의 中堅幹部로서 祖國防衛의 重責을 遂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大學軍事教育은 國家가 必要로 하는 有能한 新進將校를 養成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이 制度가 發足한지 於焉 15年이 지났습니다.

이제 大學軍事教育은 그 基盤이 確固해졌고 자랑할만한 傳統이 確立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軍의 資質과 能力向上에 크게 寄與하였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 時點에서 新任將校 여러분께 온國民의 여러 분에 對한 信賴와 期待가 날이갈수록 두터워지며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銘心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新任將校 여러분!

여러분은 大學所定의 學業과 軍事教育 課程에 다같이 忠實했고 그 어려운 二重의 課程을 默默地 그리고 훌륭하게 完遂함으로써 國家와 民族이 難局에 處한 이 時代를 사는 使命感과 責任을 自覺한 生活을 통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더 없는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社會에서는 지난 1年有餘를 두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놓고 甲論乙駁으로 國論이 엇갈리는 現象이 빚어져왔고 一部 젊은 이들도 그러한 論爭에 휘말려들어 淪령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武力侵攻威脅이 嚴然히 存在할 뿐만 아니라 實際的인 挑發危險이 加重되고 있는 이때 이에 對備하고 共產主義者들의 無謀한 挑發을 抑止할 수 있는 優越한 힘을 우리가 갖추도록 全力을 다 하는 것보다도 더 時急하며 重大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진데 國民 모두가 自己位置에서 소리없이 最善을 다하여 國力을 키워 나가는 着實한 生活이

바로 이 나라의 安全을 保障해 주고 平和와 繁榮의 礎를 다져줄 것이며 自由와 民主主義를 確保할 수 있게할 것입니다.

自由와 民主主義는 이 나라와 우리 國民의 生存權이 確保될 때 비로소 保障될 수 있는 것이지 國力을 뭉치고 키워나가는 피눈물 나는 努力의 뒷받침 없이 한낱 理想이나 주장만으로서의 한치의 伸張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認識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自由와 民主主義에 對한 眞正한 敵 그리고 참으로 可恐할 敵이 누구냐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 威脅과 挑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國論의 統一과 總和團結의 바탕 위에서 加速的으로 培養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壓倒的인 多數國民이 無益한 是非에 終止符를 찍고 維新體制를 堅持해 나가야겠다는 決斷을 내린 以上 모두가 多數의 決定을 받아 드릴 줄 아는 民主國民의 슬기를 發揮하여 內外로부터의 試鍊을 이겨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本分을 지키며 確固한 姿勢에 徹底하였고 이제 國防의 干城으로써 온 國民의 祝福속에 이 나라 防衛의 第一線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녀온 毅然한 態度는 반드시 이 社會의 正常化와 젊은이들의 奮發을 促求하는 維新體制 強化의 큰 힘이 될 것임을 本人은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우리가 毅然하고 強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親愛하는 新任將校 여러분!

屢屢히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모두가 虛事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과 같은 數 많은 有爲하고 氣銳의 青年將校를 우리 軍이 確保할 수 있게된 것을 國家的인 慶事가 아닐 수 없으니 本人이 여러 분께 最大의 忠誠과 獻身的인 奉仕를 거듭하여 當부하는 所以입니다.

將校는 指揮官이요 教官이자 管理者이고 뛰어난 科學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任務는 그토록 莫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國家와 民族에 忠誠을 다 하는데 있어 萬의 하나의 遺漏도 없을 將校로서의 資質을 向上시켜나가는데 힘을 다하여 努力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配屬될 部隊將兵들은 여러분께 큰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은 將兵과 同苦同樂함은 勿論 언제고 生死를 함께 할 수 있는 將校가 되어 이 나라 이 겨레의 期待에 또한 副應할 수 있도록 重大한 國防의 任務完遂에 모든 情熱과 精力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本人은 여러분의 敎育을 爲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오신 各大學 總·學長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軍關係官 여러분의 勞苦에 致賀와 慰勞를 드리며 新任將校 여러분의 앞날에 榮光과 幸運이 있기를 다시 한번 빌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75年 2月 24日

國務總理 金 鍾 泌

致 辭

—光復30周年 記念 在外國民 統一會議—

尊敬하는 在外國民 指導者 여러분!

오늘 8·15 光復30周年을 記念하는 在外國民統一會議의 開會에 즈음하여 本人이 여러분께 몇말씀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解放後 30年の 時日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民族은 아직도 南北分斷對立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苦痛의 深淵속에서 呻吟하고 있습니다. 南北韓 分斷對立 30年の 歷史는 民主主義와 全體主義·平和와 暴力의 날카로운 對決의 過程이었습니다.

1947年 유엔總會는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를 實施하여 韓半島에 統一·自由·民主國家를 세울 것을 決議하였습니다.

이 決議는 內外共產主義勢力의 頑強한 反對에 부닥쳐 結局 南韓에서만 自由選舉를 實施하여 大韓民國의 樹立을 보았습니다. 같은 時期에 北韓共產黨은 解放直後부터 創設하기 始作한 共產主義暴力 革命基地를 더한층 鞏固히 만들고 南侵의 발판을 굳히기 위해 所謂「人民共和國」이라는 것을 發足시켰습니다.

1950年 北韓共產集團은 蘇聯 및 中共과 緊密히 提携하여 同族相殘의 戰爭을 일으켰습니다. 6·25 動亂 3年間에 우리 民族은 數百萬의 死傷者를 내었고 아름다운 三千里江山은 廢虛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願하는 自由社會體制下의 統一도, 共產黨이 노리는 共產社會體制下의 統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6·25 動亂이 남긴 最大의 敎訓은 武力行使는 絶對로 統一의 方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1953年 7月 休戰이 成立된 以後에도 休戰凍結狀況下 南北韓의 峻嚴한 敵對的인 對立은 持續되었습니다. 이런 狀況下에서 우리 大韓民國은 全世界 平和愛好國과 緊密히 協力하면서 戰爭의 再發을 막고 平和롭게 統一에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을 꾸준히 摸索해 왔습니다.

70年代 世界情勢의 基本的인 潮流는 平和協商과 平和共存입니다. 우리 政府는 韓半島라 해서 그 潮流의 밖에 놓일 수는 없다고 判斷했기 때문에 南北對話를 開始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1972年부터 南北對話가 始作되었습니다. 우리는 南北對話를 통해 南北韓間의 對立緊張을 풀고 分斷對立이 자아내는 民族的인 苦痛과 犠牲을 輕減함으로써 우선은 平和共存의 기반을, 窮極的으로는 平和統一의 基盤을 構築코자 했습니다. 南北對話가 開始되었을 때 五千萬民族은 統一의 希望에 부풀었고 世界平和愛好勢力은 對話의 開始를 祝福하면서 그 結實에 큰 期待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南北對話에 의한 緊張緩和와 平和統一의 期待는 1년도 못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北韓共產集團이 어리석게도 赤化統一野望을 버리지 못하고 暴力革命主義者로서의 本性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니다. 그들은 對話를 통하여 緊張을 풀고 平和를 定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對話를 가지고 우리 國民의 精神을 解弛시키고 政治的 攪亂을 일으켜 이른바 「南朝鮮革命氣運」을 成熟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對話를 시작한 直後부터 休戰線 一帶에 南侵用 地下터널을 파기 시작함으로써 南侵作業을 本格的으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렇듯 僞計를 弄하고 있었지만 朴正熙大統領閣下께서는 先平和 後統一의 現實的인 統一에 對한 接近을 誠實하게 推進해 나가기 위한 一聯의 重要한 政策을 繼續 提示하셨습니다.

1973年 6月 23日에 發表된 平和統一에 關한 外交政策宣言, 1974年 1月 18日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 提議와 1974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闡明하신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平和統一 3大原則은 첫째 確固한 平和가 韓半島에 定着되어야 하며, 둘째 南北은 相互間 門戶를 開放하고 信賴를 回復해야 하고, 셋째 이러한 바탕 위에서 公平한 選舉管理와 監視아래 土着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選舉를 實施함으로써 統一을 達成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모두가 한결 같이 戰爭再發의 威脅이 없는 平和를 確保하여 온 겨레의 念願인 平和統一基盤을 構築하자는 뜻입니다.

지난 30年間 北韓共產集團은 혹은 「南北協商」 혹은 「中立國監視下의 統一選舉實施」 혹은 「大民族會議의 構成」등 갖가지 統一方案을 내놓았읍니다. 이러한 戰術上 變化는 그들 나름의 內外情勢에 對한 判斷과 評價에 따라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戰術上 變化가 어떻게 일어났건간에 한가지만은 首尾一貫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바로 南韓征服에 의한 赤化統一의 俱顯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暴力革命을 輸出하고 最終的으로는 武力을 行使하여 大韓民國을 顛覆하고 統一赤色國家를 세우고자 했고 또 지금도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共產集團의 統一政策은 항상 二重性을 띠우고 있음을 그 特徵으로 합니다. 그들은 韓半島內에서는 大韓民國政府와 大韓民國을 認定치 않겠다는 것이며 所謂 「南朝鮮革命勢力」만을 相對로 統一問題를 協議하겠다고 云云하여 露骨的으로 暴力革命을 煽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際舞臺에서는 平和愛護集團인것 같은 印象을 주기 위해 순한 羊의 탈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最近에 北韓共產集團은 美國을 向해 平和條約을 맺자고 주제넘은 提議를 또 했읍니다. 南北對話를 事實上 中斷狀態에 빠뜨리고 우리가 提議한 不可侵協定을 頑強히 拒否하고 있는 者들이 自主統一을 하겠다 하면서 美國을 向해 平和條約을 맺자 云云하는 것은 自家撞着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二重性 때문에 外國사람들과 外國에서는 우리 僑胞 가운데에는 北韓은 平和를 願하는데 韓國과 美國이 平和를 拒否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疑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海外僑胞社會에서 指導的 地位를 차지하고 계시는 여러 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韓對立의 歷史的 現實을 直視하

시고 平和統一을 願하는 勢力이 누구이고 이를 拒否하는 勢力이 누구인가를 明確히 判斷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南北韓間의 對立은 이데올로기의 對立이요, 社會體制의 對立이요, 政治權力의 對立입니다. 따라서 이 峻嚴한 對立을 短時日안에 解消하고 平和統一의 目標을 達成한다는 것은 至難한 일입니다. 우리는 統一을 願합니다만 반드시 그것이 平和로운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確信합니다. 만약에 不幸하게도 平和와 統一이 兩立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平和에 대해서 優先的인 價値를 賦與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民族全體의 生存을 保全한다는 것은 우리 民族史의 至上課題이기 때문입니다.

統一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平和로운 方法으로 着實하게 統一을 向해 接近해 나가는 것이 重要합니다. 우리는 北韓共產集團이 「덜어 놓고 統一부터 하라」는 口號를 憑藉하여 피비린내 나는 同族內戰의 策動을 벌이는 것을 絶對로 容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對話를 가지고 分斷對立이 자아내는 緊張과 苦痛을 解消하고 南北韓間에 平和를 定着시켜 共存의 基盤부터 닦아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平和共存은 南北韓間 接觸交流의 門戶를 활짝 넓혀주는 것이요, 사라져가는 同胞愛, 同族意識을 蘇生시켜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精神的인 基盤과 政治的인 與件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政策은 이렇듯 平和로운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하자는데에 歸一되는 것입니다. 平和統一의 길이 아무리 險難하고 멀다 할지라도,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의 어떠한 奸計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屈하지 않고 꾸준하게 또 끈질기게 이를 追求해 나가려고 합니다. 無知蒙昧한 者들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說服하고야 말겠다는 強力한 信念과 忍耐로서 우리는 앞으로 一貫된 政策으로 平和統一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韓半島情勢는 대단히 嚴重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南侵準備를 서둘러 온 北韓共產集團이 戰爭準備를 完結해 놓고 南侵의 機會를 엿보고 있는데다가 印支事態의 悲劇的인 結末은 그들을 鼓舞·激勵하여 談判을 일으킬 可能性을 增大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우리는 生存과 自由를 위해 國家安全·保障에 가장 優先的인 順位를 賦與하고 不退轉의 臨戰態勢를 갖추어 難局을 突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共產侵略의 現實的인 危險으로부터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을 保護하기 위해 一聯의 大膽한 改革措置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勿論 自由롭게 살고 國家社會가 民主的으로 運營되기를 願합니다. 그러나 죽은 者에게는 自由가 無意味하고 나라가 亡하면 民主主義가 無意味해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過渡的인 措置로서 自由와 民主主義의 自己制限을 甘受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國民과 政府가 一致團結하여 敵侵을 警戒하고 또 友邦인 美國이 確然한 態度를 보이고 있어 北韓共產集團은 現在로서는 敢히 武力戰爭을 發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은 南侵統一의 野望을 버린 것이 絶對로 아닙니다. 武力侵略의 條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들은 이른바 「統一戰線」戰略 戰術에 依據해서 大韓民國의 內部崩壞를 促求하려고 갖은 惡辣한 策動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國內外를 莫論하고 우리 國民에게 손을 뻗쳐 不平不滿을 助長하고 擴大하여 暴力革命을 誘發코자 巧妙한 浸透攻勢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統一戰線」戰略 戰術에 따르는 浸透攻勢를 막기 위해 우리가 치밀한 社會安全防衛態勢를 갖추어 놓는다고 해서 누가 敢히 이를 非難할 수 있을 것입니까? 萬若에 非難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嚴重한 環境을 전혀 모르는 者이거나, 或은 이미 共產主義者들의 宣傳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民族이 비록 南北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다 하지만 五千萬을 헤아리는 人口가 유엔에 加入치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痛嘆할 일입니다. 그래서 몇해전부터 우리 政府는 統一될 때까지의 過渡의인 措置로서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하자고 提議해 왔습니다. 이 同時加入案에 對해서 北韓共產集團은 그것이 「民族分斷을 恒久化한다」云云하며 頑強한 反對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主張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엔加入問題와 統一問題는 別個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南北韓이 共히 유엔에 加入하지 않았다해서 統一이 促進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南北韓이 共히 유엔에 加入한다해서 統一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南北韓의 유엔加入實現은 오히려 南北韓關係를 유엔憲章의 테두리 안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시키고 平和를 定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 分明합니다. 休戰成立後 四半世紀가 되어 오히려 아직도 韓半島는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아닌 不安스러운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이 不安狀態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確實한 戰爭終結措置 平和定着措置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繼續 同族相殘의 不安·공포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措置를 덮어놓고 拒否하는 北韓共產集團이야말로 好戰의 무리요, 民族叛逆의 무리라고 斷罪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會議에 參加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韓半島情勢의 現實을 올바르게 把握하고, 統一이나 平和問題에 對한 大義名分이 大韓民國側에 있음을 잘 認識하시고 統一問題에 對해 올바른 姿勢를 定立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民族의 現在 및 將來를 위해 대단히 重要한 것입니다. 國內外를 莫論하고 우리 國民들이 合心協力하여 眞正한 平和統一路線을 追求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民族은 統一·民主·自由·富強의 榮光스러운 祖國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會議가 여러 분으로 하여금 올바른 統一觀을 세우는데 좋은 契機가 될 것을 期待하면서 여러분의 健闘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1975年 8月 9日

國務總理 金 鍾 泌

訓 示

—9.2中央學徒護國團 發團式—

親愛하는 150萬 護國學徒 여러분!

全國의 高等學校와 大學에서 그 동안 學徒護國團의 發團을 본래 이어, 마침내 오늘은 이 자리에 學徒代表 여러분이 모여 中央學徒護國團의 發團式을 갖게 된 것을, 本人은 無限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發團式은 우리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國難을 이겨 내고자 決然히 일어난 온 學徒의 愛國表情이 한데 뭉쳐 이룩된 것이며, 배우면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젊은이다운 意志와 決意를 誇示하는 것입니다.

둘이켜 보건대, 5千年의 歷史를 이어 온 우리 民族은, 이 나라가 大陸勢力和 海洋勢力的 中間에 位置한 地政學的 與件으로 말미암아, 外部勢力으로부터의 수많은 挑戰과 侵攻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슬한 어려움을 견디며 끝내는 外侵을 물리침으로써, 이 疆土와 民族의 血統을 지켜 온 것입니다.

특히 新羅花郎들이 젊은 意氣로써 民族統一의 偉業을 成就하는 데 主動이 되었던 일이나, 6·25 共產南侵을 맞아 우리 學徒들이 책과 펜을 내던지고 自進해서 滅共戰線에 參加하여 血戰을 벌였던 일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오직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가며 앞장서는 透徹한 愛國表情을 實證한 偉大한 例들이며, 나라가 危急할 때에는 목숨을 草芥같이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崇高한 護國精神의 發露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冷徹하게 생각해 보면, 3百80年前에 우리 民族이 壬辰倭亂을 당한 것이나, 25年前에 6·25의 悲劇을 뚫지 못했던 것은, 다름아닌 우리 겨레가 危難이 迫頭하고 있었음에도, 서로 合心協力하여 재빨리 萬般의 對備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侵略者들에게 스스로 虛點을 드러냈던 데에 큰 原因이 있었던 것을 否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成事시켜 보겠다는 變함 없는 속셈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奸巧한 策動으로 이 社會안에 分裂을 일으키고 우리 國民의 團結을 破壞함으로써 다시금 侵攻을 取行할 機會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由世界 友邦과의 離間을 노려 血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絶對로 지난날의 뼈아픈 過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고 또 되풀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民族의 正統性을 守護하겠다는 不退轉의 決意와 確固한 對備를 秋毫도 늦추어서는 안 될 뿐더러, 더욱 다지고 또 다져야만 합니다.

事實인즉 그러한 自覺 아래, 一線將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온 國民이 豫備軍, 民防衛隊 등 組織에 參與하여 내 고장을 지키기 한층 廣範하고 鐵桶 같은 防衛態勢의 確立을 推進해 나가면서, 各其,

의 生業에도 더욱 忠實하게 從事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學徒護國團에 參加한 뜻도 바로 그러한 學國民的인 自覺과 一致합니다.

내 나라를 지키다는 것은 國民된 사람 모두의 本分이요 義務입니다. 여기에는 異意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킬 決意를 가다듬고 對備를 서두르는 것은 겨레를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나라 없는 내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때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學徒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 나라 내 疆土를 지키고 나와 내 民族을 지키기 위해서 온 國民이 結束된 安保隊列에 기꺼이 參加하였습니다.

衝天하는 氣魄을 지닌 여러분의 決意가 그토록 굳건할 때 이 나라를 넘보는 어떠한 兇計도 容納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힘이 뭉치고 護國精誠이 불타오를 때 우리 앞에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삼 말할 나위도 없이, 學徒 여러분은 來日의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指導者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時間을 다투어 勉學하고 科學하는 것을 本分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값어치를 깨닫고 이를 남김 없이 宣揚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價値는 韓國人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世界人 行勢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韓國人이 되지 못하고서 世界人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체 뿌리를 大地에 確實하게 내리지 못한 나무가 茂盛해지고 꽃을 피울 수는 없으며, 及其也는 延命도 어렵게 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眞價를 올바르게도 充實하게 發揮하려면, 透徹한 韓國人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韓國人으로서 思索하고 行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勉學에 沒頭하며 心身을 鍛鍊하고, 一朝有事時에는 毅然히 일어서 國難에 對處하고 祖國을 爲하여 殉한다는 分明한 自覺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要請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學徒로서의 本分과 나라가 어려운 때에 國民된 사람으로서의 本分을 다같이 깊이 自覺하였기에 欣然히 護國學徒의 隊列에 參加한 것이니, 더 이상 값어치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中央學徒護國團이 發團한 오늘을 期해서 그 自覺을 더욱 굳히고,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國民이 여러분과 같이 姿勢를 가다듬어, 北韓共產集團의 不斷한 挑發과 威脅에 對處할 總和團結과 國力培養의 加速化에 加一層 힘써 나갈 劃期的인 契機를 맞게 되기를 懇切히 빌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指導하는 學校當局, 그리고 學父母 여러분께 다시 한 번 致賀와 慰勞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75年 9月 2日

國務總理 金 鍾 泌

致 辭

— 第 3 士官學校 第12期生卒業 및 任官式 —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本人은 오늘, 여러분의 榮譽로운 卒業과 任官에 즈음하여, 마음으로부터 祝賀를 드려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年동안 매우 嚴하고도 어려운 敎育과 訓練課程을 모두 훌륭하게 이겨내고 이제 堂堂한 陸軍將校로서 祖國防衛의 第一線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커려니와 霸氣滿滿한 新進 指揮官 여러분을 맞는 우리 軍과, 이 나라의 安保態勢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기를 念願하는 온國民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것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이 나라를 지키고 韓半島의 平和를 維持해 나가는데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重要한 때입니다. 이 나라 이 民族의 生存에 對한 挑戰과 威脅이 前例없이 增大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北韓共產侵略集團은 날로 戰爭準備를 強化하며 저들이 一方的으로 優勢한 軍事力을 確保하려고 노리고 있는 同時에 우리 內部에 分裂과 混亂을 造成하여 南侵의 口實과 契機를 찾아려고 한 層 奸巧한 策動을 벌이기에 血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妄想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反民族的 非人道的인 手段과 方法으로 間斷 없는 挑發을 일삼는 그들에 對處하는 길은 오로지 힘 밖에 없습니다. 共產主義者들에게 虛點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侵攻을 自招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우리가 萬般의 準備를 갖추고 決然한 覺悟로서 그들을 對할 때 비로소 共產主義者들은 誤算을 하지 않게 된다는 不變의 眞理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代價를 치르더라도 戰爭의 再發을 막고 平和를 定着시켜 우리 겨레의 繁榮과 平和로운 統一을 成就하겠다고 確固하게 다짐한 우리로서는, 北韓共產集團의 戰爭挑發企圖를 挫折시키고 그들이 誤算할 수 있는 餘地를 徹底하게 封鎖하는 것이 가장 賢明하고도 確實한 일입니다. 그러기 爲해서 우리 軍은 더욱 強해야 되고 우리 國民은 總和團結을 堅持하며 스스로 規制하는 緊張된 生活로서 國力培養을 加速化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戰爭을 爲해서가 아니라 平和를 爲해서 그토록 피나는 訓練의 나날을 보냈고 이제 平和의 防牌로서 이 나라의 安全을 지켜 平和와 自由가 保障된 가운데 우리 國民이 繁榮을 追求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最前線에 配置된다는 것을 銘心해 주시기 바랍니다.

共產主義者들의 不斷한 破壞的인 策動으로부터 平和를 지키다는 使命은 實로 嚴重합니다. 이는 身命까지를 바치는 獻身없이 完遂하기는 바라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軍人에게 要求되고 있는 것이 바로 平和를 爲한 獻身이라는 것을, 여러 분은 마음 깊이 되새겨 주어야 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軍人에게 주어진 殺身成仁의 길입니다.

新任將校 여러분!

우리 軍과 온 國民의 여러분에 對한 信賴와 期待는 至大합니다. 여러 분은 그러한 興望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에 副應하기 爲해 大韓民國의 陸軍將校이며 一線指揮官다운 矜持와 不退轉의 勇氣로서 任務를 遂行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國防의 尖兵이자 總力安保態勢의 核心입니다. 一線에서는 部下 士兵들의 尊敬을 받는 精神的인 支柱가 되어야하며, 同時에 上官에게는 믿음직스럽고도 有能한 補佐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 國民에게 紀綱과 忠誠의 龜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本分을 지키고 責任을 다하게 됩니다.

富國의 根本인 強兵을 爲해 將校가 맡은 바 責任이 그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 분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분이 軍務의 一線으로 進出하는 이 때가 祖國과 民族의 百年大計에 決定的으로 重要한 때라는 것을 깊이 認識하고 透徹한 愛國心과 軍人精神을 남김 없이 發揮하기를 深甚 當부하는 바입니다.

新任將校로서 여러분이 지닌 重大한 使命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本人은 이 뜻 깊은 날에 여러분의 幸運과 成功을 빌면서 激勵을 아끼지 않는 바이며, 아울러 第3士官學校長을 비롯한 敎官一同과 여러 분의 家族 모두에게 거듭 致賀를 드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不屈 不斷한 努力을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975年 9月 5日

國務總理 金 鍾 泌

演 說 文

—第28次 유엔總會 第1委員會에서—

議長,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本人은 本委員會의 韓國問題 討議에 大韓民國代表를 招請하여 주신 데 대하여 本委員會의 議長 및 존경하는 委員들에게 深甚한 謝意를 표하고자 합니다. 本人은, 戰爭의 慘禍로부터 人類를 救濟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際聯合의 바로 이 殿堂에서 5천만 韓國民의 참된 念願을 說明드릴 機會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榮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國際聯合에서의 韓國問題 討議史上 처음으로 여기 北韓代表가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本人은 北韓에서 온 우리의 兄弟들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거 수천년동안, 우리 民族은 동일한 民族的 根源, 文化風俗, 言語, 國家意識 그리고 共同運命을 함께 해온 單一民族으로서 韓半島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의장에서 우리 韓國人들이 마치 다른 民族처럼 韓國問題 해결에 두개의 다른 見解를 피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本委員會가 韓國問題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韓國에 대한 國際聯合의 貢獻은,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기 이전인 1947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와같은 國際聯合의 貢獻은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暗黒과 절망에 찬 韓國動亂 기간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建國 初創기부터 國際聯合과 이처럼 緊密한 關係를 가졌던 國家는 世界에서 거의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國際聯合은 設立이후 거의 30년간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매우 獻身的인 노력을 청주하였으며, 매년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決議를 採擇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國際聯合의 統一을 위한 노력은 아직 結實을 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國際聯合의 금차 회의가 韓半島의 平和維持 및 窮極的인 韓國統一을 目的으로 한 南北對話를 進展시킬 수 있도록 建設的인 結論에 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1953년 韓國動亂이 끝난 이래 20년동안 南北韓의 약 백만 軍隊는 155마일 休戰線에서 相互對峙하여 왔습니다. 重武裝한 약 백만의 軍隊가 20년동안 境界線에서 相互對峙하고 있는 事例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不安定한 狀況下에서 韓國 國民은 國際聯合에 대하여 韓國國民에게도 平和를 달라고 끊임없이 외쳐 왔습니다. 平和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武力을 통한 統一은 진정한 統一이 아니며 侵略의 한 形態에 불과한 것입니다.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여야겠다는 것이 韓民族의 強烈하고도 끊임없는 念願입니다.

이러한 念願을 實現함에 있어서 1950년의 韓國動亂과 같은 同族相殘의 慘狀을 다시 가져올 如何한 民族的悲劇의 再發도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韓國 國民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韓半島에 있어서의 문제는 如何히 하여 恒久的인 平和를 이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議長, 尊敬하는 대표 여러분

어느 問題이건 이에 대한 正當한 解決은 언제나 眞實에 입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38線上의 韓國의 人爲的인 分斷은, 世界 第2次 大戰末, 韓國에 主權하고 있던 日本軍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聯合軍이 마련한 軍事的 便宜의 產物이었습니다. 당초, 臨時 措置로 의도되었던 이러한 軍事分界線은, 冷戰 기간중, 韓國을 政治, 軍事, 經濟 및 社會的으로 分斷하고 相互往來가 불가능한 境界線으로 급속히 發展하였습니다.

韓國을 統一하려는 聯合國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으며, 韓國問題는 1947년 國際聯合에 提起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7년 제 2차 國際聯合總會는 代議政府하의 獨立된 民主韓國을 樹立하기 위하여 韓國全地域에서의 自由選舉 실시를 勸告하였습니다. 그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이 韓國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北韓占領軍 당국은 同委員團이 부여받은 任務遂行을 위하여 北韓에 들어가는 것을 許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엔」總會는 1948년 自由選舉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選舉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同 決議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韓國民 3분의 2가 居住하고 있는 韓國 南部地域에서 國際聯合 監視下에 總選舉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동년 8월 15일 數世紀동안 韓國民의 首都였던 서울을 首都로 하여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제3차 「유엔」總會는 同政府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하였습니다.

한편, 北韓 占領軍 당국은 그들 자신의 意圖대로 韓國의 北部地域에 별도의 政府樹立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事態進展은 다만 早期統一 가능성을 훨씬 遼遠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韓國의 分斷은 正面으로 相馳하는 그들의 理念과 制度 때문에 相互對決, 敵對意識과 不信을 助長하였을 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北韓은 武力으로 韓國을 統一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에 대하여 不法侵略을 敢行하였는 바, 이때는 大韓民國을 實質的인 無防備狀態로 두고 聯合軍이 撤收하고 난 뒤였습니다.

「유엔」安全保障理事會는 그러한 武力侵攻이 平和破壞行爲라고 斷定하고 「北韓은 敵對行爲를 즉시 중지하고 軍隊를 撤收하라」는 決議를 採擇하였습니다. 北韓은 故意的으로 이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를 무시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7일 安全保障理事會는 武力侵略을 격퇴하고 韓國에서의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필요한 援助를 國際聯合會員國이 大韓民國에 提供하도록 勸告하는 또 다른 決議案을 採擇하였습니다. 1950년 7월 7일 安全保障理事會는 다시 다른 하나의 決議案을 通過시켰습니다. 이 決議案에서 安全保障理事會는 6월 27일자 決議에 따라 軍隊 및 기타 援助를 提供하는

會員國들이 同援助를 統合司令部가 사용할 수 있도록 勸告하였고, 同司令部에 대하여 「유엔」旗를 사용하도록 명백히 許可하였습니다. 4년동안 「유엔」군은 엄청난 犠牲과 難關에 直面하면서도 韓國에 관한 「유엔」決議의 履行을 위해서 英雄的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武力으로 韓國을 統一할려던 北韓側 企圖는 韓國國民의 4천년 歷史上 前代未聞의 悲劇과 犠牲을 남긴 후 비로소 挫折되 었습니다.

1954년 름 제네바에서 關係國間에 政治會談이 개최되었으며 韓國國民을 위한 平和的 統一問題를 討 議한 이 會談에는 南北韓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會談은 東西의 冷戰對決로 澎湃한 國 際情勢下에서 엇갈린 主張만을 露呈하였을 뿐 冷酷한 問題解決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같이 해결되지 아니한 韓國問題는 國際聯合에 다시 回附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韓國問題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 每年 유엔의 討議案件으로 上程되었으며 매년 本 委員會는 韓國國民의 自決原則을 再確認하는 決議를 壓倒의 多數로 採擇하여 왔습니다. 同決議는 「유엔」監視下의 韓半島全域에 걸친 自由選舉를 통한 自主·民主 및 代議政府를 樹立함으로써, 韓國 統一이 成就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決議는 北韓의 非協調的인 태도로 인하 여 履行되지 못하였습니다.

韓國動亂이후 韓半島에서 發展되어온 狀況과 최근의 南北韓관계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습니 다.

첫째, 南北間의 障壁은 더욱 더 높아지고 두터워졌습니다. 軍事分界線은 軍事分界線으로서가 아 니라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포함한 모든 交流를 妨害하고 排除하는 하나의 견고한 障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둘째, 南北韓 兩社會는 同質性을 喪失하였습니다.

兩側은 수십년동안 相互 완전히 隔離된 상태에서 相異한 理念과 體制下에서 살아왔습니다. 民族 의 同質性은 모든 分野에서 특히 政治, 經濟, 文化, 社會分野에서 弱化되었습니다.

세째, 양측의 相互不信과 敵對意識이 深化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는 韓國動亂에 저지른 非人道的 殘虐行爲와 軍事的 對決을 指向한 이후의 北韓政策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北韓은 지난 20년동안 20,000건 이상의 休戰協定違反行爲를 恣行하였습니다.

北韓은 1950년대의 武力에 의한 韓國統一企圖가 挫折된 후에도 그들의 能力을 엄청나게 벗어난 軍事力을 維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청난 軍事力에 힘입어 北韓은 軍事的 解決을 교묘히 劃策함으 으로써 大韓民國을 威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北韓의 高位指導者들은 1970년 11월 2일 제 5차 勞動黨大會에서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및 裝備의 現代化라는 4大軍事 路線의 目標를 完遂하였다고 宣言하였습니다. 北韓의 軍事力은 전투기, 잠수함, 기타의 무기에 있 어서 大韓民國을 凌駕하고 있습니다.

議長,

南北韓間에 緊張이 高潮되어 韓國의 平和統一 展望이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平和統

一의 實現을 위하여, 戰爭은 抑制되어야 하고, 緊張은 緩和되어야 하며, 韓國과 北韓의 人爲的 障壁을 除去하고 相互 信賴를 增進하기 위해서 對話는 促進되어야 한다고 確固히 믿고 있는 바입니다.

大韓民國 大統領은 1970년 8월 15일 제25주년 光復節을 맞아하여 北韓이 힘과 共產主義의 지배하에 韓國을 統一하려는 劃策을 拋棄하도록 促求하였습니다. 朴大統領은, 이러한 精神에 立脚해서, 南北 對話를 主導하였던 것입니다.

南北 赤十字 會談은 離散家族에 對한 人道的인 問題를 다루기 위해서 1971년 가을 우리의 主導下에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1972년 7월 4일에는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成就하려는 歷史的인 南北 共同 聲明이 발표되었습니다.

5천만 韓國民은 南北對話가 窮極的으로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祖國의 平和統一 成就에 貢獻하리라는 確信을 가지고 진심으로 對話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民族的 念願에 비추어 大韓民國 政府는 民族 分斷 4半世紀만에 韓人들사이에 最初로 試圖된 이 對話의 成功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壓倒的 多數의 國際聯合 會員國 역시 對話를 환영했으며 對話의 成功的 結實을 보려는 熱望 속에서 總會는 1971년 및 1972년 양차에 걸쳐 2년간 韓國問題의 討議를 延期하기로 決定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南北 對話는 韓國 內外에 있어서 많은 希望과 期待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南北赤十字會談은 서울과 平壤에서 7차에 걸친 會談을 가졌으며, 한편 南北調節委員會는 그와는 별도로 5차의 會談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외에 數次에 걸친 實務級 會談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實質的인 問題의 解決을 위한 進전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遺憾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南北對話의 日標가 南北간의 深化된 不信을 除去하여, 이를 相互信賴로 代置하고 平和를 鞏固히 하며 窮極的으로는 南北交流를 增進함으로써 統一을 達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緊張이 持續되거나 高潮된 武力衝突이 發生할 경우,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통일을 수십년간 지연시킬 것이며, 직접적으로 平和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의 基本立場은, 南北 交流, 제 1단계에서는 人道的인 問題를 해결하고 제 2단계에서는 人道的, 非政治的 交流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3단계는 政治的 問題의 解決을 試圖하는 段階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 立場에 따라 우리 政府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해 수차례 걸쳐 具體的이고 實際的인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南北調節委員會에서 여러 가지의 進就的인 提案을 했습니다. 이러한 提案 속에는 共同 事務局의 設置, 經濟社會 分野에서의 交流의 施行, 南北韓 社會의 완전한 相互 開放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大韓民國 大統領은 지난 6월의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에서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暫定措置로서 南北韓이 相互 內部問題에 干涉함이 없이 國際聯合에 同時加入할 것을 提案하였습니다. 또한 “大韓民國은 互惠와 平等의 原則에 立脚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 門戶를 開放할 것임”을 強調하였고, “동시에 우리와 理念과 社會制度를 달리하는 나라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

했습니다.

對話에 임한 우리의 立場은, 또한 兩側이 서로 他方의 內政과 制度에 干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對話는 먼저 現段階에서 解決이 가능한 非政治的 問題를 다루고 相互信賴가 일단 形成되면 段階的으로 더 어렵고 複雜한 政治, 軍事的 문제에 옮겨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北韓의 立場은 建設的이고 進就的인 우리의 立場과 극히 對照的입니다. 對話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基本戰略에는 何等의 變化가 없음은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北韓 權力構造의 核心을 形成하고 있는 北韓 勞動黨 規約前文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朝鮮 勞動黨의 當面目標은 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전한 勝利를 거두고, 汎民族的 反帝 反封建 및 民主革命에 필요한 課業을 遂行하는 것이다.” “最終的 目標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것이다” 上記 宣言은 北韓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平和統一”의 窮極的 目標을 露骨的으로 暴露한 것입니다. 그들의 基本 立場은 南北對話의 全過程을 통하여 疑心과 反駁의 餘지없이 明白히 드러났습니다.

人道的 問題를 다루는 赤十字 會談에서 北韓은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관한 討議의 先行條件으로서 大韓民國 國家保安法의 廢止를 要求하였습니다. 北韓은 우리의 現實的 提案인 物的, 人的 交流를 반대하는 반면, 大韓民國에서의 軍事的 空白을 招來시키려는 計劃的인 主張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今年 8월 28일 北韓은 一方的으로 南北對話를 中斷했습니다. 우리는 北韓이 즉각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南北對話에 있어서 그들의 役割을 계속할 것을 促求해 왔으며, 다시 促求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數次에 걸쳐 對話를 계속하겠다는 우리의 熱望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모든 誠意와 忍耐로서, 우리의 對話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北韓이 깨닫도록 說得하기 위하여 계속 努力할 것입니다.

對話만이 恒久的인 平和를 保障할 수 있고, 祖國統一이라는 5천만 韓國民의 念願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確信하는 바입니다. 이 念願은 누구도 꿀 수 없고, 억누를 수 없이 계속 타오르고 새로워지는 熱望인 것입니다.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

本人은 韓國問題에 관하여 提出된 두 개의 決議案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합니다. 이 두 決議案은 그 接近方法과 論理展開에 있어서 큰 差異가 있습니다. 本人은 우선 그 接近 方法과 관련하여 몇가지 점을 거론코자 합니다.

첫째로, 北韓側 立場지지자들은 韓國 國內問題에 대한 外國의 干涉을 중지하는 것이 休戰을 持續的 平和로 轉換시키고, 南北對話를 圓滿히 추진하는 것이며 緊張을 緩和시키는 關鍵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主張은 眞正한 狀況을 올바르게 代辯하고 있는 것이 못됩니다.

本人은 大韓民國의 國內問題가 外勢에 의해서 干涉받거나 操縱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45년 解放이래 北韓은 韓國全域에 걸친 總選舉를 통한 民主代辯 政府의 수립이라는 主要原則을 頑強히 拒絶했습니다.

北韓은 1954년 「제네바」會談이래 韓半島에서의 「유엔」軍司令部와 「外軍」이 韓國 國內問題를 干涉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不斷히 「유엔」軍司令部 解體를 要求해 왔습니다.

우리는 北韓이 계속 人類의 良識과 合理性뿐만 아니라, 國際聯合의 權威, 機能에 挑戰하고 이를 無視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北韓은 천연스럽게도 「유엔」軍司令部를 “外軍”으로 규정하고 또한 “占領軍”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들이 韓半島에서 緊張과 磨擦을 惹起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軍司令部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라는 唯一한 目的을 위하여 우리의 全幅的인 同意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決議案은 平和條約, 締結, 政治, 軍事, 經濟, 文化, 外交分野에서의 多方面的 協調와 交流가 實現되어야 한다는 希望을 表示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南北對話에서 어떤 문제이든 이의 해결을 위한 前提條件으로 「유엔」軍司令部 및 外軍撤收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美軍이 全面 撤收한지 불과 몇 개월 後인 1950년 6월 25일 北韓의 不法侵略으로 惹起된 民族的 悲劇을 經驗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狀況은 安全保障理事會의 議事記錄과 관계 決議에 생생히 記錄되어 있습니다.

本人은 또한 적어도 表面上으로는 平和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所謂, 平和協定이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을 반대하는 北韓側 입장과는 矛盾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提案은 또한 祖國의 永久分斷을 막기 위하여 單一國家로 「유엔」에 加入하자는 그들의 提案과도 兩立될 수 없는 것입니다.

北韓이 이처럼 自家撞着的인 提案을 내세우는 窮極的 目的은 韓國에서 유엔군을 撤收시키고, 그리하여 大韓民國 安保體制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그들의 저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北韓側이 南北對話의 계속 進展의 前提條件으로 平和協定締結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本人은 濠洲 및 26개국이 提出한 決議案의 結論 부분에 관한 我國政府의 立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國際聯合 韓國統一 復興委員團의 해체에 관한 것입니다. 同 委員團은 國際聯合에 提出한 今年度 年次報告書에서 그의 自進解體로 勸告하였습니다. 國際聯合 統一復興委員團은 國際聯合會員國 絶對多數의 贊成으로 採擇된 總會결의에 따라 1950년 10월 大韓民國의 再建 및 復興과 平和統一을 目的으로 設置되었습니다. 이 委員團이 처음 任務를 開始할 당시, 大韓民國은 熾烈한 戰鬥로 焦土化된 상태였으며, 극심한 避難民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敵對行爲 끝에 休戰協定이 締結되자 同委員團은 가능한 모든 手段을 動員하였으며 그의 어려운 課業을 遂行함에 있어 卓越한 熱意와 効率性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委員團이 韓國에서 이룩한 獻身的인 業績에 대하여 深甚한 謝意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委員團이 前述한 勸告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駐韓「유엔」軍司令部에 관한 것입니다. 「유엔」軍司令部는 休戰協定의 一方 當事者로서 協

定遵守를 保障하는 義務의 一環으로서 休戰協定 締結이래 도합 344차에 걸친 軍事停戰委員會 會談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유엔」軍司令部는 이 地域에서의 戰爭 再發을 效果的으로 억제하여 왔으며 平和와 安全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유엔」軍司令部的 解體는 休戰協定の 主要一方 當事者를 除去하는 것이며 結果적으로 休戰協定の 事實상의 消滅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엔」軍司令部的 解體는 休戰協定の 履行을 監視하는 效果的인 唯一한 機關이며 또한 韓國에서의 敵對行爲 再開에 대한 唯一한 制度的 抑制力인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 監視委員會의 解體를 招來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效果的인 代案없이 「유엔」平和軍의 撤收가 悲劇的인 結果를 招來한 事例가 許多함을 留意하여야 합니다. 「유엔」軍이 韓國에 영원히 駐屯하는 것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엔」軍의 撤收는 韓國이 持續的 平和를 위한 모든 필요한 條件이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유엔」軍司令部를 설치한 安全保障理事會가 緊張이 緩和되고 軍事의 衝突의 危險이 없어진 後에 關係諸當事者와 더불어 이 問題를 다루는 것이 妥當하고 現實的인 方法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北韓은 大韓民國으로부터 外軍이 撤收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韓國의 外軍駐屯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詳細히 論評할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相互 合意와 우리의 要請에 의한 것이며, 또한 關係國家의 主權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本人은 다만 오늘날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도 兩者 協定에 의거 外軍이 駐屯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外國軍隊의 駐屯은 國際聯合憲章에 의하여 명백히 認定된 自衛措置의 하나인 것입니다. 기실, 각 國家는 스스로 그러한 措置가 요청되는지 여부를 決定할 主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大韓民國은 「알제리아」등이 提出한 文書(A/C.I/L.644)에 포함된 決議案은 韓國의 現實을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非妥協的인 北韓의 主張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우리는 文書(A/C.I/L.645)에 포함되어 있는 濠洲 및 기타 26개국에 提案한 決議文은 平和와 安全을 確保함으로써, 韓半島의 現實에 立脚한 民族的 和解와 發展을 造成시킬 수 있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이 世界機構에의 大韓民國과 北韓의 加入에 관하여 言及하고자 합니다.

大韓民國政府는, 금년 6월 23일 새로운 外交政策에 관한 聲明을 통하여 統一이 이룩될 때 까지의 暫定措置로서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충분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同時加入이 國家의 分斷을 固定化할 것이라는 北韓의 主張은 正當性을 缺如한 誇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國際聯合에서의 單一 代表權 原則에 許多한 例外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 또는 그 이상의 會員國이 하나로 統合된 前例가 있음을 注目합니다. 이는 會員國들이 원한다면 加入 이후에도 統合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과 北韓이 別個의 國家로 加入한다고 해서 韓國의 統一을 위한 우리의 努力이 결코 沮害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本人은 北韓이 個別國家와 外交關係를 擴張함으로써, 또한 大韓民國이 이미 오래전부터 加入하고 있는 世界保健機構, 國際議員聯盟, 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 및 其他 國際機構에 最近 加入함으로써 “두 개의 韓國”을 對外的으로 固定化하려고 試圖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北韓의 主張이 論理的으로 어떻게 正當化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一貫性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北韓立場의 虛構性은 北韓이 1949년 및 1952년에 각각 國際聯合加入을 申請한 사실과 1957년 安全保障理事會 理事國中 몇몇 中立 및 社會主義會員國이 제안한 大韓民國과 北韓의 國際聯合加入을 北韓이 反對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아도 明白합니다. 北韓의 加入申請은 事務的으로는 아직도 安全保障理事會에 繫留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南北韓이 普遍性 原則에 相應하여 國際聯合에 加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大韓民國政府는 全 韓國民의 이름으로 虛構에 찬 似而非 提案으로 말미암아 5천만 韓國民이 이 世界殿堂에서 그들의 意思와 所望을 開陳할 수 있고 世界平和와 國際協力에 貢獻할 機會를 剝奪당하는 어떠한 경우도 이를 단연코 反對할 것입니다.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

本人은 代表 여러분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立場을 披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5천만 韓國民의 將來와 韓半島에서의 戰爭과 平和의 問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重大한 問題를 討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韓國問題 決解에 있어서 가장 큰 障礙는 무엇보다도 뿌리 깊은 不信과 敵愾心입니다. 이는 韓國動亂, 勃發이래 계속 惡化되어 왔습니다. 境界線은 南北을 갈라놓는 事實上의 堅固한 障壁이 되었으며, 時間이 갈수록 分斷의 結果는 韓國民의 統合을 妨害해 왔던 것입니다.

分斷의 結果로 만연된 相互 敵愾心과 疑懼心의 분위기가 解消되기 전에는 平和統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어느 누구도, 國際聯合의 어느 會員國도 이점에 관하여 그릇 인도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性急한 解決을 서두르기 보다는 이 冷嚴한 現實을 繼續 認定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大韓民國은 南北韓을 相互 理解의 平和的 關係로 結束시키기 위하여 慎重하게 검토한 漸進的인 方法을 提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全 韓國民과 正當한 平和統一을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全 世界의 平和를 위하여 이것을 提唱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相互間 人道的, 社會的 措處를 통하여 分斷된 우리 民族을 段階的으로 接近시키려는 努力으로서 南北 對話를 主導했던 것입니다. 이 努力이 達成되고 相互信賴가 回復된 후에 우리는 어렵고 重大한 政治, 軍事 問題 解決에 接近하려고 합니다.

우리 大韓民國 代表團은 1950년과 같은 南侵의 再發과 이에 隨伴될 破綻的이고 殘忍한 鬪爭의 反復을 容納하지 않겠다는 우리 民族의 決意를 再認識하는 바입니다.

되풀이하지만, 統一은 우리의 目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平和的 方法에 의해서 이룩되어야 합니다.

다. 우리는 中傷에는 中傷으로 대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平和的으로 말하고 行動할 것입니다.

北韓 兄弟 여러분, 바로 이 世界機構에서 우리의 正當한 位置를 確保하여 國際聯合과 祖國에 貢獻합시다. 그리고 우리 韓國民族의 榮光스러운 歷史에 획기적인 장점을 아룩합시다.

우리의 과제는 중차대하며 쉽게 解決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와 여러분의 슬기로 이 世界 殿堂의 교무를 받아 解決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悲劇的 歷史를 바로 잡아 우리땅 에 平和의 基礎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歷史的 使命인 것입니다.

그리고 代表 여러분, 특히 우리와 같은 地域에서 오신 代表 여러분께, 本人은 우리가 그들과의 關係改善을 熱望하고 있음을 再 確認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問題를 이 地域의 어느 나라와도 論 議할 用意가 있습니다.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保障은 그 地域의 모든 나라의 平和維持에도 決定的인 要素인 것입니다.

本人은 人類의 平和와 福祉의 保障이라는 目標을 追求하는 이 國際聯合에서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께서 眞理와 正義가 支配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希望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立場이야말로 民族統一의 窮極的 目標을 달성하려는 韓國國民의 熱望을 代辯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973年 11月 15日

外務部長官 金 溶 植

演 說 文

—第29次 유엔總會 第1委員會에서—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여러분,

本人은 韓國問題討議에 參與하도록 大韓民國 代表를 招請하여 준 本委員會에 對하여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昨年 本委員會가 만장일차로 韓國問題에 關한 合意聲明을 採擇하였을 때, 우리는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重大한 進展이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希望과 期待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尙今 南北對話가 中斷狀態에 있고 중오심과 긴장이 緩和되지 않고 있음을 本委員會에 報告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 演說을 行함에 있어 우리 韓國民이 當面하고 있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가슴이 벅참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民族意識은 우리 民族 역량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韓國民으로 하여금 過去의 모든 시련을 극복케 하였으며, 미래의 도전에 대하여도 韓國民을 支援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單一民族意識은 現今의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韓國問題는 本委員會에 잘 알려져 있는 問題로서 韓國의 平和와 安全에 對한 國際聯合의 關心을 잘 表現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韓民族의 至上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統一 成就를 돕기 위한 國際聯合의 熱望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世界第2次大戰의 結果로 韓國民에게 國土分斷이 強要되었습니다. 38度線은 元來 美國과 蘇聯間에 軍事的 便宜를 爲해 定하여 놓은 것이나, 곧 南과 北의 障壁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同 分斷은 4千年의 韓國歷史를 通하여 그 前例를 찾아볼 수 없는 悲劇과 苦痛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으며, 이러한 物理的 兩斷은 韓民族에 커다란 苦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同 分斷은 悠久한 單一民族意識을 斷絶시켰습니다.

韓國統一 問題는 美國과 蘇聯이 同 問題를 解決할 수 없게 되자 1947年 처음으로 國際聯合에 提起되었습니다. 그 以後 國際聯合은 이에 對한 責任을 擔當하게 되었으며, 韓國의 平和統一 達成을 爲하여 끈질긴 努力을 傾注하여 왔습니다.

1947年 韓國 全域에서의 自由選舉를 監視하기 爲하여 國際聯合 臨時委員會가 設立되었습니다. 同 委員會의 目的은 統一, 獨立, 民主 韓國의 樹立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南쪽의 우리는 이러한 努力을 全幅 支持하였으며, 모든 協調를 提出하였으나, 北韓當局은 同 委員會의 入北을 拒否하였습니

다. 그리하여 國際聯合總會는 選舉가 可能한 地域에서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을 決定하였습니다.

1948年 5月 韓半島 全體 人口의 2/3가 居住하는 南韓에서 國際聯合 監視下에 自由選舉가 實施되었습니다. 그 結果 大韓民國 政府는 1948年 8月 15日 樹立되었으며, 國際聯合은 大韓民國 政府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하였습니다.

1974年 現 時點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건대, 1947年 第2次 國際聯合總會가 韓半島 全域에 걸친 自由總選舉를 實施하기로 決定했을 때야말로 韓國民에 있어서는 平和統一을 成就할 수 있었던 決定的인 機會였던 것입니다.

大韓民國이 樹立된지 1年後 南韓駐屯 美軍은 完全히 撤收하였습니다. 한편, 北韓에는 共產政權이 恣意로 樹立되었으며, 同 共產政權은 即時 大韓民國을 征服하기 위한 戰爭準備를 開始하였습니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南韓에서 武裝暴動과 蜂起를 수 없이 煽動하였습니다. 그들은 美軍이 韓半島에서 全面 撤收함에 따라 直接的인 武力 侵攻을 위한 與件이 成熟되었다고 생각하자, 1950年 6月 25日 日曜日 아침 38度線을 넘어 奇襲攻擊을 敢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北韓의 明白한 侵略行爲였으며, 國際聯合도 이를 侵略으로 烙印 찍었던 것입니다. 同 侵略은 國聯軍 司令部 指揮下의 國聯軍에 依해 擊退되었으며, 이는 國際聯合 歷史上 最初의 集團安全保障措置였던 것입니다. 戰爭은 3年間 繼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400萬의 死傷者가 發生하였고, 產業施設과 民間財産의 破壞는 헤아릴 수 없을 程度였으며, 더우기 南北間에 깊은 敵愾心과 不信을 招來하였던 것입니다.

1953年 韓國休戰協定이 締結된 以後에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韓半島 全體를 武力으로 共產化시키려는 政策을 버리지 않았읍니다.

休戰協定이 締結된 以來, 그들은 25,000件 以上이나 協定을 違反하여 왔읍니다. 이 중 많은 挑發事件은 非武裝地帶에서 發生한 것이며, 또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繼續 우리 海岸線을 通하여 大規模의 게릴라部隊과 武裝間諜을 집요하게 南派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數次에 걸쳐 大韓民國 大統領 暗殺까지 企圖하였습니다. 1968年 1月 大統領 官邸를 襲擊하기 爲하여 北韓의 特攻隊가 서울로 南派되었으며, 1970年 6月 北傀間諜은 國立墓地顯忠門에 「다이나마이트」를 裝置하여 追悼式에 參席豫定으로 있던 朴大統領과 其他 政府高位人士들의 暗殺을 企圖하였으나 失敗하였던 것입니다.

民間人에 對한 非人道的 蠻行이 여러번 返復되었는바 多數의 漁船과 警備艇에 砲擊을 加하여 擊沈시키고, 公海上에서 漁夫를 拉致하고 民間 航空機를 拉北한 事件等이 그 實例입니다.

韓半島 問題의 核心에는 北韓이 그들의 當面 至上 目標로서 暴力에 依한 南韓 共產化와 韓半島 全體에 對한 共產 支配를 繼續 追求하고 있다는 重大한 事實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北韓 勞動黨 規約 前文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습니다.

“朝鮮 勞動黨의 當面 目標은 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確保하는 것이며 窮極的인 目標은 共產社會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議長,

그러나 本人은 이와 같은 主張에 反하여 平和統一만이 大韓民國政府와 國民의 變更할 수 없는 目標임을 嚴肅히 宣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平和統一에 對한 代案이 있을 수 없으며, 戰爭은 如何한 境遇에도 防止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貴重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 緊張이 緩和되고 相互 信賴가 回復되며 平和가 定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大韓民國은 一聯의 主要한 「아니시아티크」를 取하였습니다. 그 첫 段階로서 朴大統領은 1970年 8月 15日 光復 第25周年 記念辭에서 北韓이 武力 統一政策을 拋棄하고 民族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위하여 大韓民國과 善意의 競爭을 할 것을 要求하였습니다.

둘째로, 다음해 8月 大韓赤十字社는 北韓赤十字社와의 會談을 提議하였습니다. 赤十字 會談의 目的은 祖國의 分斷에서 緣由된 人道的 問題를 解決하고 1千萬 離散家族을 再結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로, 1972年 5月 우리는 對話開催에 關해 協議하기 위하여 平壤에 特使를 派遣하였습니다. 그 結果, 1972年 7月 4日 서울과 平壤에서 平和統一原則을 闡明한 歷史的인 南北共同聲期이 發表되었습니다.

네째로, 朴大統領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特別 聲明을 發表함으로써 劃期的인 措置를 取하였습니다.

朴大統領은 國際聯合의 各種 機構에 北韓이 加入하는데에 反對하지 않을것임을 밝히고, 統一될때 까지 暫定 措置로서 大韓民國이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할 用意가 있음을 闡明하였습니다.

朴大統領은 또한 平等과 互惠原則에 立脚한 門戶開放政策을 提示하고, “大韓民國은 世界의 모든 國家에 對하여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同時에 世界 모든 國家가 우리나라에 對하여 門戶를 開放하도록 促求한다”고 宣稱하였습니다.

今年 1月 18日 우리 政府는 北韓에 對하여 武力使用拋棄, 相互不干涉, 平和共存의 3大原則에 立脚한 不可侵 協定을 締結할 것을 提議하였으며, 6月과 8月에는 이러한 平和와 平和統一政策을 再確認하였습니다.

南北對話의 開始를 비롯한 이러한 諸般 措置와 이에 關聯된 事態 發展은 모든 韓民族 뿐만 아니라 全世界 모든 平和 愛好國民들로부터 歡迎을 받았습니다.

國際聯合도 韓半島의 緊張 緩和를 위한 이러한 重大한 움직임에 呼應하여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습니다. 1971年과 1972年에 國際聯合 總會는 激論과 對決을 避하기 위해 討議를 延期하였습니다. 昨年 第28次 國際聯合 總會는 合意 聲明을 採擇하였습니다. 同 合意 聲明은 南北韓이 對話 및 多方面에 걸친 交流와 協力の 增進을 通하여 韓國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것을 促求하였습니다.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國際聯合의 建設的 役割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平和統一이 國際聯合과 大韓民國의 共同 關心事이며 共同 目的이기 때문입니다.

議長,

우리의 共同 目的의 達成은 南北對話의 將來에 달려 있으니 만큼, 本人은 對話의 重要한 經過에 關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 聲明에 따라 南北 調節委員會가 對話의 公式 經路로서 設立되었읍니다. 1973年 8月까지 南北調節委員會는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가며 3次에 걸쳐 會談을 가졌읍니다. 南北赤十字會談은 1972年 8月부터 다음해 8月까지 7次에 걸친 本會議를 開催하였읍니다. 同會談에서 我側은 離散家族 所在 確認, 相互 訪問 및 窮極的인 結合의 周旋等을 包含한 人道的 問題를 다루자고 提議하고, 또한 體育, 文化, 經濟 및 社會分野에서의 交流도 提議하였읍니다. 그 後에 보다 複雜한 政治 및 軍事問題에 關한 討議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意圖였읍니다.

우리는 理念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制度面에서 南北間에 相當한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實質的이고 容易한 問題를 討議, 解決하는 것이 南北間의 相互 不信과 緊張을 漸進的으로 除去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相互 信賴가 回復되고 緊張이 緩和되었을 때 비로소 보다 複雜한 問題의 討議에 必要한 條件을 造成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은 우리의 實質的이고 現實的인 立場과는 正反對의 態度를 取하면서 모든 問題에 앞서 軍事 및 政治問題를 優先的으로 解決하여야 한다고 固執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大韓民國이 國家安保에 關한 法律을 廢棄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對話 繼續의 前提 條件으로, 大韓民國으로부터의 國聯軍 撤收까지도 要求하고 있습니다. 北傀는 그와같이 우리가 결코 受諾할 수 없는 提案을 頑強히 固執하였읍니다.

그들은 급기야 1973年 8月 28日 不過 1年만에 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켰읍니다. 이미 開催키로 合意한 第4次 南北調節委員會 本會議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議長,

大韓民國은 對話가 再開되어야 한다고 믿읍니다.

이것이 지난해 國際聯合 總會에서 採擇된 合意 聲明에 符合되는 것입니다.

實로 우리는 이를 爲해 끊임없는 努力을 해 왔읍니다.

1973年 11月 以來, 우리는 南北 調節委員會 本會議 再開를 위해 數次 會合하였읍니다. 雙方 赤十字社 역시 本會議 再開를 爲해 여러차례 實務級 會議를 開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會談을 통해 우리는 北韓側에 對하여 對話를 再開할 것을 끈질기게 說得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北韓으로부터 아무런 肯定的인 反應이 없읍니다.

우리는 北韓側이 더 以上 遲滯없이 對話를 再開할 것을 強力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議長,

이러한 對話는 平和와 安全의 霧囂氣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本人은 지금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問題에 關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韓半島의 平和는 全的으로 休戰協定에 依해 維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1953年 休戰協定 締結 以來 武力에 依한 所謂 南韓 解放이라는 目標達成을 爲하여 그 軍事力을 繼續 增強해 왔습니다. 1970年 11月까지 北韓은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 幹部化, 裝備의 現代化라는 4大軍事 目標을 達成하였었습니다.

北韓은 非武裝 地帶를 要塞化함은 勿論, 武器를 導入하고, 休戰線 近方에 多數에 空軍基地를 建設하였었습니다.

北韓의 金日成은 1973年 10月 28日 行한 演說에서 祖國의 統一은 鬪爭을 통해서만 達成될 수 있으며 南韓과는 어떠한 妥協도 있을 수 없다고 公公然히 主張하였었습니다.

議長,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

祖國 統一이 5千萬 韓民族의 한결같은 念願일지라도 우리는 只코 武力에 依한 統一은 容納할 수 없습니다.

惡夢과 같은 韓國動亂의 悲劇을 韓國民은 아직도 生생하게 記憶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은 戰爭의 再發을 防止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本人은 昨年 總會以後 北傀가 恣行한 挑發行爲中 몇가지 實例을 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今年 2月 15日 北韓艦艇은 西海 公海上에서 平和的으로 漁勞作業中이던 우리 漁船을 攻擊, 其中 1隻은 現場에서 沈沒하여 一部 漁夫들은 溺死하였으며, 다른 1隻은 漁夫와 함께 強制로 拉北되었었습니다.

둘째로, 2月 16日 數未詳의 北韓 武裝間諜이 慶尙南道 統營近處 東海岸에 上陸, 其中 1名은 逮捕되었고, 5月 20日 多數의 北韓 武裝間諜이 濟州道에 浸透, 1名이 射殺되었었습니다.

셋째로, 6月 21日 北傀 砲艦 3隻이 漁船團 保護를 爲해 大韓民國 漁路區域을 巡察中이던 海岸 警備艇을 東海 公海上에서 攻擊하였었습니다.

네째로, 8月 15日 北韓의 指令을 받은 狙擊犯이 朴大統領에 對한 暗殺을 企圖하였으나, 大統領令 夫人이 犧牲되었었습니다.

다섯째로, 北韓은 最近 非武裝 地帶 附近의 곡산과 해천에 軍用飛行場을 建設하였으며, 軍事 分界線 附近의 豫備 飛行場을 休戰用 空軍 基地로 變更하였었습니다. 約 6百萬의 人口가 살고 있는 大韓民國 首都 서울은 非武裝 地帶로부터 불과 約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最近 北傀가 恣行한 가장 重大한 挑發行爲에 對해 여러분의 注意를 喚起시키고자 합니다.

11月 15日 國聯軍 司令部 所屬 民情 警察隊는 通常의인 巡察 任務를 遂行하던 中 非武裝 地帶內에서 北傀에 依해서 構築된 地下터널을 發見하였었습니다.

調査에 依하면 同 터널은 北쪽으로 부터 軍事分界線을 넘어 非武裝地帶 南方地域으로 1km以上 파들어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同터널 內部에서 北傀製 explosives 道具, 野戰用 電話器, 電氣配線 및

照明施設, 其他 北傀製 各種 物品들이 發見되었습니다. 밥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있고 터널속에 흙이 쌓여 있었던 點으로 보아 同터널이 十中八九 發見 直前까지도 工事中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休戰協定の 單純한 違反이 아니라 大韓民國에 對한 侵略行爲인 것입니다.

國聯軍 司令部는 北傀側에 對하여 이 事件에 對한 合同調査를 要求하였으나, 北傀側은 餘他 休戰協定違反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同 要求를 一蹴하였던 것입니다.

同 터널 構築工事의 緻密性으로 보아 그것이 徹底한 長期計劃에 따라 進行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調査에 依하면 同 터널의 構造는 單純히 間諜浸透만을 爲한 것이 아니라 大規模의 部隊를 秘密裡에 迅速히 移動시키기 爲하여 計劃되었음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本人은 그러한 터널을 파는 目的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터널은 北傀가 언제든지 그들이 願한다면 大韓民國에 對해 大規模의 奇襲攻擊을 敢行하기 爲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同 터널은 北傀의 全般的인 戰爭準備의 一部分에 不過한 것으로 看做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軍事分界線을 넘어 터널을 構築하고 있는 동안, 한편 그들의 所謂 外交部長은 “平和統一”을 요란스럽게 主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널을 파면서 平和를 이야기 하다니 실로 自家撞着일뿐입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 수록 戰爭을 防止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것이 明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民族 問題를 解決하는 手段으로서의 武力使用을 拋棄할 것을 本 委員會앞에 南北韓이 함께 굳게 盟誓할 것과 朴大統領이 提議한 不可侵協定締結을 受諾할 것을 北韓代表들에게 促求하는 바입니다.

議長,

本人은 이제 駐韓國聯軍 司令部의 役割에 關하여 言及하고자 합니다. 國聯軍 司令部는 韓國休戰協定の 一方 署名 當事者로써 韓國에서의 休戰을 履行하는데 重要한 機能을 遂行함으로써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維持에 貢獻하여 왔습니다.

善後策없이 國聯軍 司令部가 解體되면 休戰協定の 一方 當事者が 消滅됨으로, 休戰體制가 破壞되고, 나아가서는 이 地域 平和와 安全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國聯軍司令部의 重要한 役割과 國聯軍 司令部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創設되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國聯軍 司令部의 將來問題가 安全保障理事會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함은 當然한 것입니다.

이와 關聯, 大韓民國은 安全保障理事會가 國聯軍 司令部의 將來 問題에 關하여 適宜 檢討할 수 있도록 이 問題에 關하여 關係當事者들과 適切하게 交渉할 用意이 있습니다.

本人은 이자리를 빌어 駐韓美軍은 1953年 韓·美相互防衛 條約에 依據 大韓民國政府의 要請에 따라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것임을 分明히 밝히 두하고자 합니다.

北韓의 主張과는 反對로 國聯軍司令부와 美軍은 大韓民國의 內政에 干涉한 일이 決코 없으며, 또

한 우리는 우리의 內政에 對한 外勢의 干涉을 決코 容納하지 않을것입니다.

實로, 駐韓 國聯軍이나 駐韓美軍의 繼續 駐屯을 不可避하게 하는 것은 北韓의 公公然한 侵略野慾과 끊임없는 挑發때문입니다.

議長,

이제, 本人은 國際聯合加入問題에 對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本人은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北韓이 統一전까지의 暫定措置로써 우리와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할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北韓이 지금 國際聯合에 加入할 수 없다면 人口 3千5百萬의 大韓民國은 當然히 普遍性 原則에 따라 國際聯合에 加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尊嚴한 殿堂에서의 우리의 正當한 議席은 北韓의 反對로 因하여 拒否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同時에 우리는 北韓이 大韓民國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것이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期待하기 때문에 이에 反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國際聯合加入이 分斷을 永久化하거나 平和統一에 支障을 招來할 것이라고는 믿지않습니다.

北韓은 이미 世界保健機構, 萬國郵便聯合, 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 國際原子力機構,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等 大韓民國이 이미 오래전부터 正會員國으로 되어있는 國際聯合專門機構 및 其他 國際機構에 加入한바 있습니다.

北韓은 이러한 國際機構에 南北韓이 同時加入함으로써 國土分斷이 永久化된다고 보지않았던 것입니다. 北韓이 2次에 걸쳐 大韓民國과 함께 國際聯合에의 加入을 申請한바 있음을 想起하여야 할 것입니다.

大韓民國의 國際聯合 加入 問題가 韓半島 全體 人口 3分の 1 未滿을 支配하는 北韓의 恣意에 左右되는 것은 不當한 것입니다.

議長, 尊敬하는 代表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韓國問題에 關한 2個의 決議案이 있습니다.

이와 關聯, 本代表團은 여러분에게 다음 몇가지 重要事項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昨年 北韓에 依하여 中斷된 南北對話의 再開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습니다.

南北韓은 이 對話를 通하여 비로소 相互不信을 解消할 수 있고 이 對話를 通하여 民族的和解를 爲한 與件을 造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本代表團은 對話가 아무 先行條件없이 再開되어야 한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한 本人은 이것이 바로 昨年에 本委員會가 採擇한 合意聲明에 明白히 나타난 바, 本委員會의 意思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本代表團은 國聯軍 司令部의 將來問題에 關하여 同問題가 當事者들과의 協議下에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強力히 主張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國聯軍 司令部는 1953年 休戰協定の 一方 署名當事者로서 同協定 履行에 重要한 役割을 다해 왔습니다.

國聯軍司令部가 效果的인 善後策이 마련될때까지는 그 莫重한 役割을 繼續遂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以上 말씀드린바에 따라 本代表團은 文書 A/C, 1/L, 6F6에 包含된 決議案이 韓國問題에 關한 合意聲明의 完全한 履行을 促進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本決議案은 또한 韓國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크게 貢獻할 것이며 現時點에서 國際聯合이 取할 수 있는 가장 適切하고 建設的인 措置를 提示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大韓民國代表團은 이 決議案을 全的으로 支持하는 바입니다.

그 反面에 文書 A/C, 1/L, 677에 包含된 決議案은 國聯軍이 韓國의 內政에 干涉하고 있다는 口實으로 이들의 卽刻的인 撤收를 劃策하고 있습니다.

同決議案은 韓半島의 冷徹한 現實을 反映하는 것이 아니라 同地域에 있어서의 國際聯合의 役割을 훼손할 뿐입니다.

同決議案은 大韓民國의 安保體制를 크게 攪亂시키고 對話의 再開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窮極의 으로는 極東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을 威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理由로 本代表團은 文書 A/C, 1/L, 677에 包含된 決議案에 決斷코 反對하는 바입니다. 議長, 尊敬하는 代表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南北對話를 通하여 韓民族의 民族的和解를 勸獎하고 이 지역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느냐, 아니면 南北對話를 中斷된 狀態로 無限定 放置하고 韓半島에 있어서의 보다 深刻한 對決의 危險性을 增大시키느냐의 緊迫하고 重大한 決定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本委員會가 韓半島의 現實을 公正히 그리고 客觀的으로 評價하고 지난 28年間 韓國問題討議에서 보여준 公正성과 叡知를 가지고 賢明한 判斷을 내릴것임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北韓代表團에게 呼訴합니다. 다시는 同族相殘의 戰爭을 되풀이 하지 않기로 지금 이 자리에서 盟誓합시다.

對話의 자리로 돌아와서 民族的和解를 爲하여 모든 努力을 아끼지 맙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最小限의 任務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이자리에서 惡意的인 政治論爭을 中斷하고 對話를 再開합시다. 그리고 朴大統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歷史의 審判에 맡깁시다.

大韓民國政府와 國民은 이러한 우리의 崇高한 動機와 業績이 歷史와 後世의 公正한 判斷아래 길 이길이 빛날 것임을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74年 11月 29日

、外務部長官 金 東 祚

演 說 文

—第30次 유엔總會 第1委員會에서—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第一委員會 代表 여러분,

本人은 大韓民國 代表를 本 討議에 參加하도록 招請하여 준데 對하여 本 委員會에 謝意를 表하고자 합니다. 또한 本人은 基調演說에서 大韓民國政府와 國民들에게 理解와 支持를 表明해 주신 多數 平和愛護國의 高明하신 政治家들에게 謝意를 表하고자 합니다. 今番 總會에서 그들이 보여주시는 好意에 對하여 大韓民國 國民은 恒常 그들에게 感謝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同時에 本人은 유엔에 符合하는 理性과 公正性을 벗어난 몇몇 演士의 中傷的이며 侮辱的인 發言에 對해 이를 斷乎히 排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昨年 本 委員會에서의 討議後 總會는 韓國의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爲하여 大韓民國과 北韓當局間의 對話의 繼續을 促求하고, 休戰協定の 繼續維持를 沮害함이 없이 유엔司를 解體할 수 있도록 希望을 表示한 決議 3,333號를 壓倒的으로 採擇한바 있습니다. 本人은 大韓民國 政府가 同 決議에 따라 南北對話를 再開하며 유엔司 解體를 可能케 하는 必要한 措置를 마련코자 모든 努力을 傾注하여 왔음을 本 委員會에 報告드리고자 합니다.

今年 6月 27日 本人은 모든 問題를 조용하고 合理的으로 協議하기 爲하여 韓半島의 休戰維持와 關聯된 直接 當事者會議를 提議하였습니다.

今年中 數次에 걸쳐 本人의 政府는 南北對話의 無條件 再開를 要求한 바 있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여러분께서 記憶하시겠지만 朴正熙大統領께서는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을 爲한 新外交政策 聲明”을 發表하고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며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한 一聯의 措置를 提案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74年 1月 朴大統領께서는 南北間 不可侵協定締結을 正式提議하였습니다.

本人은 이러한 建設的 提議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成果가 없음을 報告하게됨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같은 提案은 北韓側으로부터 아무런 肯定的인 反應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北韓當局은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辱說과 挑發을 恣行하였습니다. 對決과 高潮된 緊張이 韓半島를 繼續 뒤덮고 있으며 戰爭再發 威脅을 加重하고 있습니다. 韓半島에는 아직도 眞正한 平和가 없습니다.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여러분

1950年 6月 北韓이 大韓民國에 對한 不法侵略을 敢行한지도 4半世紀가 흘러갔습니다. 北韓의 南

侵이 야말로 우리나라에 莫大한 人命被害와 破壞를 招來한 犯罪 行爲였읍니다. 그 以後 常存하는 北韓의 再侵威脅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오로지 戰爭의 傷處를 아물게 하고 廢虛化된 祖國을 再建하며, 國民의 生活을 向上시키기 爲한 經濟를 튼튼히 하고 急速히 發展시키는데 온갖 努力을 傾注하여 왔읍니다.

이같은 우리의 努力은 많은 成果를 거두었읍니다. 經濟分野에서만 보더라도 過去 十年間에 걸쳐 國民總生産에 있어 年平均 成長率 10.3%, 年平均 輸出增加率 44.7%의 成果를 거둔바 있읍니다.

1980년까지 우리는 自立經濟와 現代工業國의 位置에 到達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如何한 基準에서 보더라도 刮目할 成果인 것이며 모든 韓國民은 宜當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同時에 韓國民은 政治, 經濟, 文化分野에서 이룩한 發展이 北韓의 또 다른 侵略에 의해 戰禍로 消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니다. 우리는 世界 모든 곳 特히 東部亞細亞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態發展에 대해 繼續 警戒와 注意를 기울이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우리는 不斷한 警戒야말로 平和와 獨立의 代價라는 敎訓을 배웠읍니다.

한국민에게 統一은 民族至上의 念願입니니다. 한국민의 長久하고 자랑스러운 歷史, 文化의 單一性과 民族的 同質性은 우리民族의 共同運命을 期約하고 있읍니다. 또한 韓國民은 南과 北을 莫論하고 祖國이 再統一될 날을 期待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가장 高貴하고 珍박한 民族的 至上 命命으로서 平和를 所望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韓國民은 戰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苦痛을 겪어 왔읍니다. 또다른 戰爭은 過去 20年間 이루어 놓은 業績을 송두리째 破壞할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人間的 苦痛과 人命의 犧牲을 招來할 것이라는 것을 韓國民은 잘 알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理由때문에 統一은 우리의 至上目標이지만, 平和는 가장 緊急한 民族的 至上命令입니니다.

韓國民에게 統一없는 平和는 不完全한 것입니니다. 그러나 平和없는 統一은 民族的 참화를 招來케 할 것입니니다. 그러므로 韓國民의 가장높은 民族的 目標는 統一있는 平和입니니다. 즉 그것은 平和의 方法에 의해 이룩된 統一인 것입니니다.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한결같이 平和와 平和統一을 追求하고 있읍니다.

그럼 北韓의 統一政策과 統一을 위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方法에 關係 檢討해 봅시다. 全世界는 1950年 北韓이 어떠한 政策을 取하였으며 北韓이 어떠한 수단을 使用했는지를 記憶할 것입니니다. 즉 그것은 南韓에 대한 露骨的이며 不法의인 武力侵略인 것입니니다. 또한 全世界는 그 結果를 記憶하고 있으리라 믿읍니다. 즉 그것은 바로 北韓 侵略者에 대한 全 大韓民國 國民의 英雄的이며 成功的인 鬪爭입니니다. 이러한 經驗을 通하여 北韓 政權은 韓國民이 결코 그들의 支配에 屈服하지 않을 것임을 確實히 깨달아야 할입니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武力統一을 執拗하게 追求하고 있읍니다. 南韓의 우리들 韓國民들이 平和를 信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政權은 暴力을 信奉하고 있읍니다. 北韓은 盲目的 征服慾에 빠져 그들의 侵略政策으로 인하여 全 韓國民에 끼치고 있는 致命的 危險을 分明히 모르고 있거나 單

純히 介意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韓半島에 繼續되고 있는 緊張의 根本的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昨年 本人은 北韓에 의해 非武裝地帶를 가로 질러서 남쪽으로 구축된 땅굴을 發見한데에 관해서 本委員會에 報告드린 바 있습니다. 그 當時 北韓代表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北韓 政權에 대해 “狂亂的인 騷動”을 피우려고 꾸민 “造作된 事實”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또 다른 땅굴들을 發見하였습니다. 我側情報消息通에 의하면 非武裝地帶 밑에 10餘個以上の 그와 類似한 땅굴이 있다는 것이며 北韓이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할 것에 合意한 바로 그 當時에도 이같은 땅굴을 構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本人은 休戰協定에 대한 가장 重大한 違反인 이들 땅굴에 대한 合同調査를 계속 要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이를 一言之下에 拒否하였다는 事實을 報告하게 될 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땅굴들은 分明히 軍事目的을 위한 것입니다.

本人은 高名하신 代表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분 自身이 이 땅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굴들이 南侵을 促進시키기 위한 軍事目的의 外的 다른 目的을 위해서 構築되었는지 아닌지를 判斷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굴은 北韓의 意圖에 대해 가장 確固한 最近의 證據를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굴들은 北韓이 故意로 저지른 休戰違反事件 가운데 가장 最近에 記錄된 違反事件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앞으로 이러한 違反事件이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北韓에 의한 惡名높은 休戰違反事件記錄 가운데에는 非武裝地帶의 不法要塞化와 無謀한 破壞 및 우리 大統領에 대한 暗殺任務를 띤 無數한 決死武裝게릴라의 南派가 있습니다.

더우기 北韓은 오직 南韓을 侵攻할 目的만으로 類例없는 莫大한 軍費를 增強하는데 모든 힘과 資源을 投入시키고 있습니다.

經濟開發과 國民生活向上에 계속 最優先權을 賦與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國防을 위해서 國民總生產高의 但只 4%를 消費하고 있는 반면, 北韓 政權은 매년 軍事的目的을 위해서 國民總生產高의 14%이상을 消費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日成의 徹頭徹尾한 全體主義政權은 北韓地域을 하나의 兵營으로 轉換시켰습니다. 이같은 戰爭態勢와 準備 그리고 戰爭에 대한 執念은 우리의 긴 歷史上 類例를 發見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듯이 백마디의 말보다 行動이 重要합니다. 어떠한 北韓의 平和宣傳도 本人이 여러분앞에 報告드린 事實을 變更시킬 수는 없습니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對決은 2個의 好戰的인 國家사이의 對決이 아닙니다. 그것은 平和愛護國인 大韓民國과 侵略과 戰爭에 狂奔하고 있는 北韓政權과의 對決인 것입니다.

1975年 始初부터 北韓政權의 指導者들은 점점 더욱 당돌하고 好戰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對話를 拒否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公公연히 威脅하기 始作하였습니다. 北韓 政權의 首魁인 金日成은 지난 4월 外國訪問中에 “戰爭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休戰線이며 얻는것은 統一이다”라고 氣高萬丈하여 公言하였습니다.

이것은 確實히 自己 自身에 對한 個人 崇拜에 陶醉한 者의 言動이며 戰爭과 暴力에 沒頭한 者의 言動인 것입니다. 韓半島緊張이 高潮되고 戰爭에 걸은 구름이 우리 머리위에 감돌고 있다는 現實을 누가 疑心하겠습니까?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狀況을 念頭에 두고 지금 南北對話의 再開問題와 休戰協定을 保全하는 問題 및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위한 보다 恒久的인 措置를 마련하는 問題에 對處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3가지 問題에 대한 北韓側의 立場은 否定的입니다. 分明히 北韓當局은 “平和”나 “平和統一”이니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政策이 暴力에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平和가 世界的으로 要請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이 僞善과 欺瞞과 臆說을 늘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第2의 天性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平和”라는 假面뒤에 숨겨진 그들의 底意를 暴露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民族自決을 追求하고 있다고 主張합니다. 그러나 民族自決原則을 平和的으로 適用하는 唯一한 實際的 方法인 南北對話의 進行을 拒否하고 있습니다. 實際로 그들은 그들의 決議案 本文에서 對話에 關하여는 言及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軍司令部의 卽刻 無條件 解體를 主張합니다. 그들은 이같은 措置가 그들 主張대로 休戰協定의 終了 나아가서는 休戰體制 全體의 瓦解를 招來할 것이라는 事實을 介意치 않습니다.

그들은 美國과 代案을 協商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大韓民國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休戰協定의 保全을 沮害함이 없이 유엔軍司令部의 解體를 許用할 수 있는 措置에 關해 協商할 수 없다고 固執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全般的인 立場은 平和를 위한 交渉의 先行條件으로서 韓半島에서 戰爭의 再開를 要求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平和를 成就하는데 戰爭手段에 呼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1975年 8月 17日字 覺書에서 北韓과 美國만이 休戰協定의 “實際當事者”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다 長期的인 措置는 且置하고라도 休戰協定의 保全을 爲한 措置에 關하여 大韓民國과 協商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民族自決을 支持한다는 北韓이 어떻게 休戰協定乃至 韓半島의 平和에 關한 諸般問題를 但只 北韓과 美國사이의 問題라고 主張할 수가 있겠습니까? 全體 韓國民 3分の 2以上の 人口를 包容하는 大韓民國을 排除한 韓半島 平和措置에 對하여 云謂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입니다. 大韓民國이 休戰의 不可缺한 當事者이며 平和維持의 主 當事者임은 누구에게나 明白한 일이며 그 以上 說明을 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反論은 代表여러분의 知性에 對한 冒瀆이며 그것은 平和에 對한 北韓側의 터무니 없는 侮辱的 態度를 餘地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北韓은 雙務的인 協商을 通하여 南北韓間의 軍事的 對決을 解消할 “實際的 措置”를 論議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主張합니다. 그들 이야기의 진실이라면 그들은 南北對話의 즉자 再開에 同意하여야 할 것입니다. 北韓이 그들 決議案에 例擧된

“實際的措置”를 協商하겠다면 兩側의 直接協商을 爲한 唯一한 通路를 再開할 것을 아직도 拒否한다는 것은 僞善에 찬 言辭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始終一貫 그들의 立場은 이러한 自家撞着과 眞한 不誠實과 欺瞞으로 覆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決議案이 採擇된다면 韓國에는 休戰의 破壞와 戰爭의 再發이 招來될 것입니다. 北韓政權이 말하는 “統一”이란 平和的 方法으로 두개의 實體로 하여금 自由로운 合意下에 結合시킨다는 自發的인 過程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統一”이란 侵略을 通하여 一方이 他方을 強制的으로 吸收하는 것을 말합니다.

北韓은 또한 大韓民國으로부터 모든 外軍을 撤收시키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要求는 무엇보다도 大韓民國이 享有하는 固有의 主權行使에 대한 不當한 干涉이며 이는 유엔憲章의 가장 神聖한 原則中的의 하나를 違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干涉을 斷乎히 排擊합니다. 北韓의 主張은 北韓으로부터 모든 外軍이 撤收하였으니 南韓에 駐屯하고 있는 外軍도 撤收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似而非論理로는 韓半島의 軍事的, 地政學的 現實을 아는 사람을 누구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必要하다면 北方國境을 바로 건너 駐屯하고 있는 外軍에 依存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實際的으로 그들의 땅에 外軍을 駐屯시킬 必要性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年 韓國動亂때 유엔이 韓國에 對한 効率的인 支援을 提供하는데에 2個月 以上이 걸렸으나, 外軍이 北韓을 돕기 위하여 大的으로 介入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事實을 想起할 必要가 있습니다. 기왕에, 卽 大韓民國 政府樹立直後 우리나라 國會는 駐韓 美軍撤收要求決議를 採擇하였습니다. 이러한 決議에 副應하여 모든 美軍은 1949年末까지는 大韓民國에서 撤收하였습니다. 그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歷史에 記錄되어 있습니다. 悲劇的이고 無分別하며 殘忍한 記錄인 것입니다. 卽 그로부터 6個月後 北韓은 南韓에 대해 大的인 軍事的 侵略을 敢行함으로써 3年間에 걸친 쓰라린 韓國戰爭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赤裸裸한 그리고 不法的인 侵略行爲는 유엔의 精神을 愚弄한 武力行使로서 유엔으로 하여금 事實上 유엔의 存在 그 自體에 대한 根本的인 挑戰에 對處하기 위한 行動을 取하도록 拍車를 加하게 한 것입니다. 理性있고 良識있는 사람들과 善한 目的을 가진 사람들이 侵略을 擊退하기 위하여 團合하였으며 그 結果로 나온 韓半島에 대한 集團 安全保障措置는 유엔의 歷史에 하나의 名譽로운 章을 記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엔이 똑같은 敎訓을 두번 다시 배우지 않기를 衷心한 마음으로 祈願합니다. 「過去를 記憶할 수 없는 사람은 前轍을 밟게 된다」는 賢明한 말이 있습니다. 本人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北韓이 바로 北方國境線 넘어 隣接하고 있는 2개의 強大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想起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事實과 함께 北韓의 好戰的인 態도와 侵略的인 政策이야말로 大韓民國 政府로 하여금 南·北間의 軍事的 均衡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諸般措置를 취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本人은 北傀로부터의 深刻한 軍事的 威脅이 持續되는 한 우리 自身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우리 固有의 主權을 계속 行使할 것임을 이 會議場에서 明白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論難의 餘地가

있을 수 없는 모든 主權國家의 權利이며, 國家가 그 國民을 保護해야 할 神聖한 義務에 直接 緣由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유엔憲章과 그 精神에 立脚하여 그의 主權行使에 對한 어떠한 外勢干涉도 이를 斷乎히 排擊합니다. 本人은 北韓側에 이 事實을 分明히 하여둡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誤算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平和에 對한 우리의 獻身을 우리의 弱點으로 誤算해서는 안되겠습니다.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團合되어 있으며 어떠한 侵略에 대하여도 우리나라를 지킬것입니다.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여러분,

今年 8·15 朴正熙大統領께서는 光復節 致辭를 通하여 “過去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統一을 위하여 暴力이나 武力을 行使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韓半島의 平和定着보다 더욱 切實하고 所重한 것은 없습니다.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 努力하는 것은 곧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平和가 定着되지 않은 곳에 平和的 統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言明하였습니다. 이러한 精神에 立脚하여 우리 政府는 平和를 定着시키고 平和統一을 위한 與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措置로서 다음 事項을 提議코자 합니다.

첫째는 現行 休戰協定을 保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休戰體制는 韓半島平和의 基礎입니다. 우리의 一次的이고 가장 緊急한 課題는 어렵게 이루어진 그리고 不安定하나마 貴重한 이 協定을 保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政府는 現行 休戰協定의 効力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條件으로 유엔軍司令部의 解體와 그傘下 유엔軍 撤收에 同意하고자 합니다. 이를 爲하여 休戰協定의 維持에 直接 關聯된 當事者들 間에 會議를 開催하자는 것입니다. 本人이 今年 6月 27日 言明한바 있거니와 우리는 어느때, 어느 場所에서라도 他方 當事者들과 會同할 用意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軍 司令部의 解體와 유엔軍의 撤收가 1976年 1月 1日까지는 完了될 수 있도록 今年末 以前에 問題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眞正으로 希望합니다.

세째로, 우리 政府는 休戰協定을 代置하고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며 韓半島의 恒久的인 平和와 安全을 保障할 보다 根本的인 措置를 爲한 協商을 包含하여 其他措置를 考慮할 用意가 되어 있습니다. 過去 우리가 南北對話를 主導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大韓民國은 南北間의 關係改善을 爲한 모든 努力을 傾注할 것입니다.

本人은 北韓側이 協商을 위한 이러한 建設的 提議를 慎重히 考慮하고 受諾할 것을 眞心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緊張緩和와 窮極的 和解를 爲한 唯一한 實際的 方法은 南北對話를 卽刻 再開하자는 것입니다. 南北對話 없이 民族自決이니 民族問題의 自主的 解決이니 하는 北韓의 모든 言動은 僞善에 지나지 않습니다.

對話를 通해서만 戰爭의 傷處와 우리에게 強要된 分斷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입니다.

對話를 통해서만 南北韓은 限없는 敵對와 對決로부터 벗어나 和解의 希望찬 廣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에 依하여 設置된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對話는 1973年 8月 北韓側에 의하여 一方의으로 그리고 無期限 中斷되었읍니다. 韓週日前인 지난 10月 13日 南北調節委員會의 서울側 共同委員長 代理는 北韓側 共同委員長에게 보낸 通知文을 통하여 거듭 調節委員會의 早期再開를 促求하였읍니다. 우리의 眞正한 希望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우리의 南北對話 早期再開提議를 10月 17日 다시 한번 拒否함으로서 우리를 크게 失望시켰읍니다. 本人은 南北對話가 中斷되어 있는 限 南北間에 現存하는 어떠한 問題에 대한 어떠한 解決도 可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우리政府가 對話의 再開에 어떠한 先行條件도 붙이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北韓當局이 그 무슨 口實을 내세울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提議를 正當하게 拒否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議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

이것이 우리政府의 立場입니다. 이러한 立場은 祖國統一을 熱望하며 平和를 至上命令으로 생각하는 全體 韓國民의 念願을 基礎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立場을 全人類의 平和와 民族自決에 대한 念願에 全的으로 副應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大韓民國 政府는 友邦國들이 提案하여 여러분 앞에 提示된 決議案(A/C, 1/L. 708/Rev. 1)은 韓國民의 이러한 正當한 立場을 全的으로 反映하고 있다고 믿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決議案을 全幅的이며 壓倒的으로 支持해 줄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同時에 우리는 相對方이 提出한 決議案은 만일 이것이 採擇될 경우 이는 韓國의 現存 休戰體制를 破壞하고 戰爭勃發 可能性을 增大시킬 것이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결코 "平和統一을 爲한 有利한 與件"을 造成시킬 수 없읍니다. 아 決議案은 전혀 反對의 效果를 자아낼 것입니다. 이 決議案의 採擇은 오직 北韓 政權의 非妥協的이고 侵略的인 態度를 복돋아 줄 뿐이며 따라서 悲劇的인 祖國 分斷을 長期化시키게 될 뿐입니다. 本人은 유엔會員國들이 그들의 知慧를 모아 이 決議案에 包含된 虛偽와 欺瞞性을 直視하고 이를 斷乎히 拒否하여 줄 것을 眞心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本人은 北韓 政權에 對하여 直接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本人은 그들에게 對話만이 戰爭과 民族的 悲劇을 막을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는 事實을 다시 한번 想起시키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戰爭의 恐怖를 다시금 再燃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歷史와 온 人類의 峻嚴한 審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 같이 平和的인 對話의 廣場으로 돌아 갑시다. 그리하여 民族的 和解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길로 邁進합시다.

感謝합니다.

1975年 10月 21日

外務部長官 金 東 祚

祝 辭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主催 學術會議—

尊敬하는 全南大學校 柳基春 總長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學界, 言論界의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本人은 于先 우리 모두의 所願인 祖國의 統一과 韓半島의 平和戰略이 政府의 새로운 選擇과 決斷에 의하여 가장 現實的 次元에서 새롭게 展開되는 重大한 時點에, 全國 各地의 統一問題 專門家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같은 大規模 學術會議를 組織하신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關係者들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임에 參席하기 위해 귀중한 時間을 割愛하여 이곳에 모이신 學界 및 言論機關의 參加者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알기로는 全國 各大學과 言論機關에 附設된 統一關係研究所의 指導級 人士들이 五千萬 우리 겨레의 共同關心事인 祖國의 統一과 平和問題를 討論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昨年度 嶺南大學校의 統一會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라고 記憶합니다.

本人은 平素부터 우리의 統一과 平和는 어느 경우에나 外部로 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를 必要로 하는 우리 政府와 國民이 自主의 努力과 決斷에 의해서만 成就될 수 있는 課題로 定義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임은 時期的으로는 統一로 向한 政府의 새로운 平和外交政策이 內外에 淸명된 데이고 또 構成面에서 보아도 共通된 問題狀況속에서 統一政策을 理論적으로 探究하는 國內專門家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확충 더 값있고 意味있는 結實이 豊富하게 生産되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 時點은 우리 民族의 進路를 우리 스스로의 努力, 智慧, 그리고 勇氣로써 開拓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民族的 自主, 自強의 時期이기 때문에 이 重大한 轉換期의 歷史를 誤謬없이 展開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國內 知識人들의 團合과 솔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切實히 要請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政府는 여러분들의 討論에 至大한 關心을 갖는 것이며 이 會議에서 導出되는 結論에 큰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철한 批判과 評價, 그리고 助言 및 聲援을 갈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친애하는 통일문제 전문가 여러분!

本人은 政府에서 統一政策을 맡고있는 閣僚의 한 사람으로서 이 機會를 빌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면서 지난 6月 23日에 發表된 朴大統領 閣下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과 이에 관련된 우리 政府의 立場, 그리고 앞으로 當面한 課題들을 隔意없이 議論해보고 싶습니다.

統一問題를 探究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이지만 70年代에 접어들어 韓半島 주변의 국제 정세는 이 나라가 북위 38度線을 境界로 兩斷되는 當時와는 根本적으로 다른 狀況을 造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南北을 가르는 分界線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南北을 人爲적으로 分斷시켰던 東西冷戰의 國際關係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美·日安保同盟과 中·蘇軍事同盟이 韓半島를 中間에 두고 冷戰으로 맞섰던 時代는 지나 갔습니다, 적어도 이들 4大國 關係에 있어서 同盟關係는 根本적으로 變質되었으며 文書上으로는 同盟條約이 殘存하고 있지만 自國의 利益을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實利追求의 새로운 強大國關係가 胎動하고 있는 것입니다.

同時에 이들 強大國들은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緊張의 緩和와 모든 局面의 現狀維持가 그들이 追求하는 새로운 아시아秩序 形成에 有益하다는 結論에 合意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強大國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維持하려는 것이 하나의 主된 潮流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情勢는 現狀의 維持가 아닌 現狀의 打破가 論理的 前提로 되는 우리의 統一努力과 正面으로 파찰한다는 點에서, 우리 民族의 進路에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는 情勢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即, 祖國의 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念願을 이같은 情勢속에서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의 問題인 것입니다.

한편 視角을 바꾸어 「유엔」의 機能과 情勢를 보아도 우리는 同一한 問題에 直面하게 됩니다.

周知하는 바이지만 오늘의 「유엔」은 그 成立의 基本이 되는 政治的 機能 即,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機能은 完全히 마비되고 世界의 모든 主要爭點은 例外없이 「유엔」 테두리 밖에서 論議되고 決定되는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只今 「유엔」은 本然의 政治機能이 完全 마비된 상태하에서 「유엔」의 부수적 기능에 屬하는 事項들, 例컨대, 環境改善問題, 海洋法 制定問題, 經濟的 先後進國間의 隔差解消問題, 航空機被拉防止 問題 같은 非政治機能이 爲主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侵略者와 平和愛護國을 엄격히 判別하던 創立當時의 權威는 빛을 잃고 모든 國家에 門戶를 여는 會員國 普遍主義가 強調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엔」은 더이상 기능과 능력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統一에 實質적으로 貢獻할 立場을 상실했 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統一과 安全에 關係되는 國際情勢는 周邊情勢와 「유엔」內部情勢를 莫論하고 우리가 이 情勢에 自主적으로 對處하지 못할 경우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統一에 대한 希望을 喪아가고 그 反對給付로 分斷의 固定化라는 民族的 危機를 造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國際的 孤兒로 만들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統一에 대한 우리의 希望의 위기가 있고 동시에 民族的 작성과 現實的 情勢觀 定立의 必然性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直面하는 위기는 非但 이같은 國際情勢에서만 提起되는 것은 아닙니다. 祖國統一의 展望을 밝히고 또 그 可能性을 全世界에 證言하기 위해 推進되고 있는 南北對話에서도 우리는 自主的 平和統一에 대한 希望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바라는 祖國의 平和統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平和統一에 대한 북한측의 拒否와 그들의 實質的인 反統一政策에 起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解放直後 두차례의 統一機會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反託으로 중쳐진 民族的 團合을 토대로 統一된 임시정부를 수립할 可能性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연합의 결의로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권고에 따라 南北을 통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可能性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機會는 北韓側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霧散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950년 6월 25일 不意의 南侵을 감행하여 百餘萬의 同族을 殺傷하고 全國土를 焦土化시키고 民族的 大悲劇을 일으킴으로써 이 땅에서 統一이 平和적으로 이루어질 可能性을 源泉의 으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南北間에는 증오와 적대의 두꺼운 軍事障壁이 쌓이고 이를 배경으로 南과 北은 相互 異質化의 길을 걷는 슬픈 歷史가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이같이 體質化된 平和背反的 屬性에도 不拘하고 國土分斷이 四半世紀를 經過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人爲的 分斷으로 말미암은 겨레의 苦痛과 不便을 경감시키고 5천만 동포가 전쟁없는 평화속에 번영을 구가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民族的 正當性에 立脚하여 南北間의 극한적인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기 위한 단계적 對策을 강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70년 8월 15일 光復節記念辭에서 밝힌 朴大統領閣下의 平和統一構想宣言을 起點으로 해서 1971년 8월 12日には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苦痛을 덜기 위한 赤十字會談을 提案했는가 하면 그 다음해인 1972년 7월 4日には 國內外的 錯雜한 反應을 예상하면서도 大統領에게 부여된 統治權을 行使하여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誘導해 냈던 것입니다.

이같은 措置를 통해 南北間에는 對話의 門이 열리고 이로서 지난 27년간의 淒絶한 對決의 構造는 對話의 構造로 轉換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對話를 통해 우선은 국토분단에 기인하는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기 용이한 것

부터 하나씩 덜어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苦痛을 完全히 除去하고 이 過程에서 조성되는 신뢰와 이해, 그리고 민족적 동질감의 확대된 기반위에서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부의 平和統一 誘導措置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大韓民國의 安全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一括解決이라는 強奪的 要求를 提起하여 會談進行에 難關을 造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對話를 그들의 國際地位伸張에 逆利用함으로써 對外的으로 「두개의 한국」 印象을 扶植시키는 分斷固定化 政策을 追求하는데 狂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여 北韓側은 또다시 祖國이 平和的으로 統一될 前途에 심각한 난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의 영원인 평화통일에 대한 希望의 危機를 直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통일문제 전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 5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國務總理를 隨行하여 西部 유럽의 友邦들과 日本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眞理가 있다면 그것은 단하나, 政治는 理想主義的 純粹理論이나 主觀的 倫理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엄한 現實主義의 論理에서 이루어진다는 事實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과의 對話는 하나같이 냉엄한 現實에 기초를 둔 問題의 提起에서만 비로소 協力과 理解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旅行을 통하여 우리의 讓步할 수 없는 基本 立場은 堅持해야 하지만 戰略戰術問題는 恒常 國際潮流에 能動的으로 伸縮性있게 調和시켜 나가는 智慧와 勇氣가 必要하다는 냉엄한 事實을 確信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的 正當性은 그것을 다른 國家들이 現實的으로 受諾할 때 비로소 實質的 意味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우리가 追求할 것은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현실적 기초 위에서 조화시키고 이 토대위에 우리가 성취시킬 목표를 定立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現代 國際關係가 形成되는 기본전제로서 緊張緩和의 潮流와 國際的 現實認定趨勢를 外面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問題解決의 새로운 基盤으로 能動的으로 活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國際情勢下에서는 우리가 休戰線以北에 樹立되어 있는 共產政權을 存在와 價値의 兩面에서 同時에 否認하여 얻을 수 있는 具體的 利益이 分明치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正當性은 否認하더라도 그 存在만은 認定하는 것이 우리의 對外的 進路打開에 非現實的 要素를 除去한다는 點

에서 有益한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정권을 국제사회에서 계속 봉쇄시키고 폐쇄시키는 것이 정녕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유익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냉철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국제진출 봉쇄는 우리의 지난날의 外交目標이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唯一合法性을 강화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정책은 북한체제 내부에 戰爭擁護勢力의 長期執權을 가능케한 측면도 있고 아울러 北韓體制가 東歐羅巴國家들처럼 自由化를 向한 體制變質의 可能性마저 봉쇄하는 結果도 招來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봉쇄정책에 수반하는 이같은 否定的 側面은 平和統一이라는 遠大한 目標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觀點에서 朴大統領閣下께서는 이번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에서, 北韓의 國際機構參與나 加入을 굳이 反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유엔」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韓半島內의 唯一合法性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國際關係에서 누릴 特權이 아니고 平和統一에 대한 政府의 責任을 意味할진대 우리가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迂廻戰略으로 북한의 국제 진출을 反對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以上の 決定을 包含한 새로운 통일외교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대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冷戰時代에 形成된 協力關係를 實利外交時代에 부합하도록 正常化시켰으며 나아가 過去の 「이데올로기」的 敵對國家들과도 關係를 改善한 기반을 다짐으로써 北韓이 우리 政府의 正當한 平和統一政策에 順應할 수 있게 하는 對外環境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選擇은 既往에 우리 政府가 가지고 있던 立場이나 原則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原則을 現實의 기초위에 定着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에서 우리가 喪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統一-外交政策樹立過程에 潛在해 있던 非現實的 감정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선택이 어느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承認하여 두개의 韓國을 制度化한 措置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北韓에 對한 國家承認은 國際情勢의 영향을 언제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반도의 政治構造속에서 一種의 統一포기, 分斷固定化로 評價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關係를 동서독 관계처럼 완전히 國家對 國家關係로 轉換시킨 基礎위에서 統一의 可能性을 전망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分明히 밝히고자 합니다.

東西獨關係와 우리나라는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分斷된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分斷의 背景과 狀況은 根本적으로 다릅니다.

즉, 독일의 分斷은 독일이 구주질서에 威脅이 되기 때문에 強大國들의 確固한 方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반도는 아시아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어서 分斷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 분쟁의 요인이 될 「힘의 공백」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긴장 완화의 정도에 따라 統一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差異點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분단의 고정화나 통일의 포기를 결과할 정책을 스스로 취한다면 그것은 잘라 말해서 민족적 자살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南北間에 이루어진 역사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相互不可侵, 相互不干涉의 原則에 立脚하면서 한편으로는 南北共히 國際 긴장완화의 정치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一方, 또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여건과 기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부단히 강구하는 남북 관계를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論理는 一見, 二律背反的으로 보일지 모르나 分斷固定化를 指向하는 強大國 政治의 격랑 속에서 統一에 대한 희망을 포기당하지 않기 위한 民族史의 論理에서는 現實性과 正當性을 갖는다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對共產圈體制 開放措置를 包含한 一聯의 새로운 外交政策이 우리의 對外關係에서 成功的 結實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友邦들의 積極的 支持와 共感 그리고 誠意있는 協調가 前提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萬一 우리 友邦들 가운데 우리의 對共產體制開放政策을 誤解하여 다른 共產國들의 對韓國政策을 考慮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北韓을 承認하게 된다면 이같은 處事는 南北間의 外交的 不均衡을 招來하게 되어 우리가 追求하는 現狀維持와 互惠平等原則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政府는 이러한 問題點을 豫見하여 對友邦 外交를 多角的으로 展開하는 一方 우리의 새로운 政策에 대한 民主友邦들의 아낌없는 協調를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朴大統領 閣下께서 밝히신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起點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民族은 지난 27年동안 엮어 놓았던 東西冷戰의 論理를 脫脚하고 南北間에 열린 對話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民族史 形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對決의 論理와 對話의 論理가 併存하는 狀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東西 和解 「무드」에도 不拘하고 이땅에 신빙할만한 平和의 뿌리를 定着시키지 못한 狀況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與件에서도 우리가 南北對話를 진행시키고 또 平和統一을 위한 새로운 外交政策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個年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아가 10월유신 작업을 통해 다져온 국론통일, 국력배양의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력조직화와 능률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10月維新은 아직 一次年度도 경과하지 않았고 온 국민의 정신혁명의 活力素가 되는 새마을운동은 농촌지역에서는 바야흐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으나 아직 都市에까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重化學工業의 첫 關門에 들어섰으나 우리의 산업체질이 근본적으로 現代化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時日이 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국제권력 정치의 거센 격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課業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決定에 따라 앞으로 外交的 側面에서는 南北外交의 自由競爭時代가 到來할 것이며 各分野로 南北의 優劣을 판가름할 體制競爭이 陽性化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 點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가져야할 기본자세를 세가지로 집약시키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形態의 體制競爭에서 勝利해야 한다는 國民的 正當性을 體質化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南北關係의 展開를 第三者의 立場에서 방관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外交的 側面에서는 總力外交時代에 적응할 知的 構造를 가다듬고 政府의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놓고 國民的 합의기반을 넓히는 國론선도의 역군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힘의 철학을 신봉하는 共產主義者들과 대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平和와 統一을 同時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國력배양이 첫째 요건임을 확신하고 우리 生活의 모든 영역에서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가 낭비됨이 없이 國력배양의 요소로 전환되도록 國력배양의 철학을 신념화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철학은 현실적으로는 10月維新課業의 성공적 완수로 구체화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지금 이 點만큼 政府와 知識人 그리고 全體國民이 國家的 狀況에 대하여 共感과 信賴를 돈독히 해야 할 때는 없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동일한 상황을 동일하게 의식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內外情勢에 對處한다면 우리 民族 共同의 目的인 平和와 統一은 이같은 총화의 구조가 획득해야할 當연의 대가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지원을 바랍니다.

1973年 6月 29日

國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致 辭

—全國基督青年協議會主催 統一祈願禮拜—

尊敬하는 韓景職 牧師님, 그리고 全國各地에서 모인 基督青年代表 여러분!

5千년의 悠久한 歷史를 지닌 우리民族을 南과 北으로 갈라놓은 休戰線을 바라보는 이 “自由의 다리”에서 우리 모두의 念願인 統一을 祈願하는 敬虔한 모임에 參席하여 말씀을 드릴 機會를 갖게 된 것을 커다란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945年 解放의 기쁨을 가진지 不過 한달도 못되어 우리는 5千년 歷史에 처음보는 南北分斷의 悲劇이 이 땅 위에 그 幕을 올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年後, 同族相殘의 처참한 戰爭이 勃發하여 百萬을 헤아리는 同胞의 처참한 죽음을 가져왔으며, 이 땅은 戰禍로 말미암아 焦土化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祖國의 分斷이 1945年 當時, 國際政治의 冷酷한 現實로 말미암아 우리의 意思에 反하여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이 分斷은 우리에게 커다란 不幸과 損失을 가져 왔습니다. 1950年 北韓의 南侵에 의하여 始作된 韓國戰爭은 祖國統一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南北間에 가로막힌 鐵의 帳幕은 더 높아졌으며, 더 두터워 졌습니다.

南과 北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모든 면에서 完全히 遮斷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저 休戰線에서는, 南과 北의 百萬大軍이 塹壕속에서 晝夜를 가리지 않고 20年間 對陣하고 있습니다. 東海에서 黃海로 155마일의 休戰線에서 完全히 武裝한 百萬大軍이 이와같이 長期間 對陣하고 있는 事實은 全世界, 또한 古今의 歷史에서 그 例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問題는 우리만의 問題가 아니라, 全世界이 問題로서, 韓國問題라는 이름 아래 거의 每年 國際聯合總會에 提起되어 왔습니다.

本人은 지난 10年동안 國際聯合總會에서 統一問題가 論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自己나라 立場에서, 이 問題에 對한 意見을 披瀝하였습니다. 10餘차례나 國際聯合總會는 韓國의 統一이 韓半島에 살고 있는 韓民族 全體의 「유엔」監視下의 總選舉를 通하여 實施되어야 한다는 決議案을 通過시켰습니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또한 그의 背後勢力은 이를 反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現實下에서 南北分斷에 關한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統一課業을 前進시키기 위하여

1970年 大統領 閣下의 8·15宣言에 이어 그 다음해 8月 우리는 우리의 主導下의 南과 北이 對話를 始作하였읍니다.

全世界는 이러한 우리의 努力에 對해 全幅的인 支持와 聲援을 보냈읍니다. 昨年 第28次 國際聯合總會는 우리의 意思를 反映시켜 南과 北이 相互對話를 繼續할 것을 支持하는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採擇하였읍니다.

世界의 모든 나라가 表決없이 滿場一致의 形式으로 우리가 主張하는 對話의 繼續을 促求하도록 決定하였다는 事實은 우리의 立場으로 보나 國際聯合의 立場에서 보나 커다란 成果라 하겠읍니다.

全世界는 對話를 통한 問題 解決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人間問題의 解決을 爲한 赤十字會談은 始作한지 近 2年이 되었읍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南北調節委員會 會談도 아직 問題解決의 실마리조차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南北間의 相互不信은 깊어가고 있으며, 北으로부터 우리에게 對한 理由없는 誹謗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西海岸의 우리 島嶼에 對한 正當한 航海權이 威脅을 당함으로서 다시 緊張은 高潮되고 있으며, 世界는 다시 韓半島 安全問題에 關心을 갖기 始作하였읍니다.

全國의 基督教人 여러분!

統一에 關한 우리의 主張은 分明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겠읍니다.

1950年과 같은 韓國戰爭은 斷乎히 防止하여야 하겠읍니다.

南과 北사이에 緊張을 緩和시키고, 平和를 定着시킴으로써 相互 信賴를 樹立한다면 그 基礎위에 進行될 對話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主張은 「韓半島에 平和를」, 그리고 「統一은 平和의 方法으로」라는 것입니다.

平和의 方法이 아닌 統一은 侵略戰爭입니다. 同族相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限사코 反對하며, 防止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또한 確信하고 있습니다.

平和의 統一方法은 對話를 통한 途徑에 있습니다.

對話에 代置하는 方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主張하는 對話에는 아무런 前提條件이 없습니다.

萬一, 北韓當局이 아무 條件없이 우리와 같이 對話를 繼續한다면, 우리民族은 누구나 다같이 祖國分斷의 負擔과 苦痛을 훨씬 輕減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統一의 偉業도 반드시 成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南北이 統一되어, 5千萬이 힘을 合한다면 우리 韓民族은 世界 어느나라에도 遜色이 없는 偉大한 發展을 이룩할 수 있으며, 世界史에 커다란 比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極東에 있어서의 平和의 安全勢力으로 커다란 貢獻을 하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昨年 11月 15日 第28次 國際聯合總會에서 北韓當局이 參席한 가운데 全世界 代表들에게,

“우리의 統一問題는 가장 重要하며, 쉽게 解決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民族의 슬기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悲劇的 歷史를 바로잡아 우리땅에 平和의 基礎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歷史的 使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全國의 基督教人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問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世界의 어느 누구도 우리 以外에는 解決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解決하여야 하겠습니다.

統一에의 길이 平坦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努力은 決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어려운 問題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意味가 있는 줄 압니다.

悠久한 民族의 歷史를 되돌아 보면, 分斷祖國의 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우리야말로 特別한 使命을 가진 時代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本人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休戰線 저편을 아무 支障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날이 올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5千萬 同胞가 누구나 自由로이 南北을 오고 가며, 서로 만나게 될날이 올것을 믿고 있습니다.

全國의 基督教人 여러분!

基督教의 精神은 “믿음과 所望과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希望에 찬 1974년이야말로 이러한 偉大한 精神을 發揮할 때인 줄 압니다.

統一에 對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統一에 대한 強烈한 所望은 반드시 實現될 것입니다.

民族에 對한 偉大한 사랑은 반드시 南과 北의 障壁을 뚫고 말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偉大한 民族的 使命을 위하여 政府나 國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前進합시다.

여러분의 熱烈한 기도와 讚頌가운데 이 사람 亦是 敬虔한 마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1974年 1月 3日

國土統一院長官 金 溶 植

致 辭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主催 學術會議—

親愛하는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各界各層을 대표하여 오늘 이 會議에 參加하신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本人은 우선 이자리를 빌어 우리 民族의 宿題인 祖國의 統一問題를 檢討하기 위하여 國內碩學들을 總網羅한 가운데 오늘같은 대규모 統一問題學術會議를 開催한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와 關係教授 및 專門家들에게 政府를 代表하여 뜨거운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會議는 시기적으로 보아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큰 기대를 안겨준 7·4共同聲明 第2週年에 즈음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데 대해 本人은 남다른 感懷와 意義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 모임에서 本人이 느끼는 또다른 意義는 參加者들 모두가 너무나없이 分斷된 祖國의 悲劇과 苦痛을 함께 나누면서 成長해온 이 나라의 知性人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問題를 第三者의 立場이 아닌 바로 우리 自身の 立場에서 함께 討論하고 이로써 統一을 向한 우리 民族의 進路를 밝히는데 實質的인 貢獻이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는 點입니다.

이같은 感懷와 期待가 있는 學術會議에 參加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對話하고, 함께 討論하고 우리 民族의 장래를 共同으로 摸索할 機會가 부여되었다는 事實은 本人에게는 가장 보람차고 意味있는 經驗의 一部가 될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各界指導者 여러분!

本人은 政府에서 統一問題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이 機會에 여러분들이 檢討할 主題와 관련시켜 現時點에서 韓半島를 生活터전으로 삼고있는 한민족의 우리 世代가 기필코 成就해야 할 우리 統一課業의 基本性格과 今後의 進路, 方向에 관해 平素의 所信을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우리 民族은 第3次 世界大戰의 終結과 그에 뒤이은 東西世界의 冷戰化 過程에서 우리의 主張과는 아무 관계없이 南과 北으로 갈라지는 悲運에 봉착했습니다.

원래 하나이었고 또 하나로 되어야 할 民族이 他意로 分斷되면서부터, 우리 民族의 이땅에서의 政治生活는 筆舌로 形容할 수 없는 苦痛과 悲劇으로 點綴되어 왔습니다.

解放된지 5年만에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奇襲南侵으로 民族史上 類例없는 同族相殘의 悲劇을 體驗했습니다.

滿 3年間 계속된 戰爭으로 全國土는 焦土化되었고 數百萬의 同胞가 목숨을 잃고 民族의 文化財가 破壞되고 燒失되는 慘狀을 겪었습니다.

歷史上 처음 보는 이와 같은 災殃이 우리가 記錄하는 歷史의 一部로 編入된 이래 南北韓間에는 地球上 어느 곳에서도 目擊할 수 없는 文字 그대로의 “鐵의 帳幕”이 내리워 졌습니다.

한 뿔줄을 이어 받고 한 울타리 속에서 成長해온 同胞間에 한마디의 對話도 往來도 交流도 完全히 遮斷되었고 南北韓은 百萬大軍을 가운데 두고 軍事的 對峙의 歷史를 記錄하기 始作했던 것입니다.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높은 軍事障壁이 펼쳐진 가운데 南北韓은 共히 相互 異質化의 途程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南北韓間에는 外交, 國防, 財政등의 分野에서는 完全히 容納되기 힘든 이데올로기를 構成原理로 하여 異質體制가 確立 되었고 教育 文化의 分野에서도 南北韓間의 社會的 過程의 差異 때문에 異質化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民族에 關한 概念定義가 달라졌고 歷史를 解釋하는 方式이 달라지고 있으며 國民教育의 目的과 方向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民族의 共通된 言語生活에서 마저 異質化가 進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인 줄 압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겨레가 韓半島에 國家的 統一을 成就한 것은 時間的으로는 新羅가 唐나라 軍隊를 逐出시킨 西紀 676년부터이며 空間的으로는 오늘날 大同江 以南의 地域에서 인줄 압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民族은 한 테두리 즉 國家的 單一性을 갖게 되었고 그후 10世紀初의 高麗時代에 이르러 三國의 歷史를 우리의 所有로 하는 共通된 歷史意識을 確立함으로써 民族의 同質性을 굳히 나왔습니다.

또한 15世紀初에 한글이 創制되면서부터 우리 民族은 單一의 領土안에 血緣, 文化, 歷史, 言語를 共有하는 “民族國家의 自己 完成”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民族은 이처럼 國家史的으로는 1千 3百年間의 單一性을, 그리고 民族史的으로는 約 1千年以上의 同質性을 涵養해 왔습니다.

全 世界의 文明史家들이 公認하는 우리 겨레의 이 單一性과 同質性은 分明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民族的 矜持의 源泉일 뿐만 아니라 우리 世代가 이 땅에 다시금 統一民族國家를 完成해야 할 信念의 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히도 1950年代에 共產集團의 南侵으로 始作된 戰爭과 그에 뒤이어 4半世紀 동안 持續된 南北冷戰은 民族의 同質性을 變質시켰고 또한 變質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分斷은 한층 더 深化되고 分斷이 가져다 주는 民族的 負擔은 더욱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같이 同族의 同一性을 完全히 喪失해 버린다면 民族統一에 對한 우리의 主張,

民族의 부르짖음은 그것이 아무리 우렁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實効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歷史로 돌이켜 보는 것은 過去의 事件을 單純히 回顧 하는데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歷史란 本質적으로 過去의 事件들과 未來를 向한 우리들의 目的과의 對話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民族史에 對한 우리들의 回顧는 過去와 未來를 잇는 現時點에서 우리 民族이 解決해야 될 課題인 本質을 明確히 照明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韓民族의 우리 世代는 지금 또 다른 同族相殘의 可能性이 完全 排除되지 않은 狀況속에서 民族統一의 밑바탕이 될 民族의 同質性 喪失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우리 世代가 이 挑戰을 克服하지 못한다면 祖國의 平和的 再統一에 對한 우리의 꿈은 우리가 成就할 수 있는 解決 可能의 範圍를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親愛하는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本人이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世界史속에서 消滅되지 않고 살아남은 民族이란 모든 形態의 逆境속에서도 自身の 位置와 나아갈 바를 正確히 表現할 줄 아는 民族이었다고 합니다. 歷史學者「토인비」는 모든 挑戰에 能動的으로 應答할 줄 알았던 民族만이 文明속에서 生動하고 있다고 證言했습니다.

祖國이 南北으로 分斷된 以來 國內外를 莫論하고 各界 各層에서, 各種의 會議에서 우리의 分斷과 統一問題를 놓고 많은 討論이 展開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統一에 關한 모든 討論은 恒常 問題의 表面을 다루었을 뿐, 本質은 究明하지 못했습니다. 統一에 關한 民族의 意慾을 알세웠을 뿐 어려운 條件에서 統一을 成就시킬 民族의 叡智는 發散되지 못했습니다.

地球上 約 1百 50個 國家中에서 왜 우리가 極少數의 分斷國家속에 包含되어야 했고, 또한 왜 오늘에 이르기까지 分斷狀態가 改善되지 않은 채 한층더 深化되고 있으며 마침내 이 過程에서 祖國統一의 基礎가 될 民族의 同一性이 喪失되고 있는가를 科學적으로 診斷해보고, 이 基盤위에서 統一問題를 智慧롭게 解決할 方向을 案出하는 努力이 不斷히 展開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히도 統一에 關한 意慾과 期待만 높았을 뿐 智慧가 發現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平和統一을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同族相殘의 悲劇을 共產主義者들의 挑發로 인하여 겪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分明코 戰爭이 韓半島 統一의 手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統一의 手段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現行憲法에도 그 前文에 平和統一을 指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統一 理念을 具現시킬 智慧를 開發해야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各界指導者 여러분!

今年으로 우리는 國土分斷 29個 星霜을 지냈고 6·25動亂이 일어난지 25年을 經過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座標는 統一이 民族의 至上 課業이라고 해서 南北韓은 無條件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感想的 民族主義가 우리에게 어필될 수 없는 時機에 이르렀다는 事實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의 悲劇을 통해 공산측이 동족간의 武力行使를 통해 韓半島의 현상타파를 시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無謀한 것이었는가를 切實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6·25의 悲劇을 忘却하는 世代가 되어서도 또 될 수도 없으며 6·25의 敎訓을 되새겨 우리가 追求하는 統一이 5千萬 同胞들의 共存共榮을 約束하는 平和統一이라는 것을 證言할 世代가 바로 우리 世代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金日成의 宣傳員들 처럼 南韓에서 美軍만 撤收하면 우리의 統一이 數個月內에 成就될 수 있다는 妄想을 내세우는 우리 民族의 다른 部分 사람들과도 現實에 뿌리를 내린 對話를 통해 그들을 幻想으로 부터 解放시킬 民族의 使命의 世代로서 進路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統一問題를 어떤 架空의 法理論이나 民族의 悲願이라는 抽象的 期待를 充足시키기 위해 擧論하는 世代가 될 수 없는 狀況에 處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南北으로 갈라져 對立하고 있는 우리 民族의 政治生活에서 具體적으로 提起되고 있는 問題들을 하나씩 解決하는 方向으로 統一問題를 다루어 나가는 智慧로운 民族의 姿勢를 새롭게 定立할 때에 이른것 같습니다.

政府는 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大統領 閣下의 英斷을 받들어 南北間에 平和統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對話를 열었습니다.

1970년 8·15宣言으로 부터 7·4南北共同聲明과 6·23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 그리고 금년도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提議에 이르기 까지 지난 5년간은 한마디로 政府의 統一노력이 東西冷戰의 굴레를 果敢히 벗어나 民族自身の 利益을 향해 現實化되는 時期였다고 斷言할 수 있습니다.

특히 7·4南北共同聲明은 國土分斷以後 最初로 民族의 統一을 平和의 成就하자는데 南北이 合意했다는 점에서 平和統一을 향한 우리 民族史의 展開過程에서 各별한 意義가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北韓은 7·4共同聲明에 合意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聲明에서 闡明된 原則을 遵守하기는 커녕 도리어 韓國의 安全保障을 弱화시킬 心理戰 道具로 7·4共同聲明을 逆利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自主의 原則은 美軍撤收主張으로, 平和의 原則은 韓國단의 一方的인 軍備弱화 要求로 또 民族團結의 原則은 우리들의 反共思想武裝의 解除 要求로 惡用되고 있습니다.

北韓側의 7·4聲明違反은 비단 이같은 心理戰 次元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닙니다.

昨年 8月부터 北韓은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하고 今年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東西 兩海上에서 우리의 漁船을 擊沈하고, 경비정을 沈沒시키는가 하면 武裝間諜船을 南派시키는 등 各種 軍事的 挑發을 激化함으로써 南北關係를 또다시 7·4聲明 이전의 狀態로 後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의 이같은 處事는 한마디로 그들이 祖國의 統一을 7·4聲명의 精神에 立脚하여 解決할 意圖가 없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는 7·4南北共同聲明이 어느 境遇에도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精神的 指標임을 確信

하기 때문에 北韓側이 하루빨리 7·4聲明의 根本精神에 復歸할 것을 다시금 促求하는 바입니다.

· 政府는 이 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對話를 通해 같은 民族이 또다시 武力으로 對決하는 悲劇을 未然에 防止하는 한편 南北間에 民族的 連繫를 되찾는 交流의 基盤을 造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解決 可能한 것부터 하나씩 덜어 나가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萬一 南과 北이 冷戰의 論理가 아닌 民族 共榮의 論理에서 對話를 正常的으로 展開해 나간다면 우리 民族의 分斷苦痛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民族的 同質性 回復의 可能 範圍도 그만큼 擴大될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解決方式은 統一에 對한 性急한 期待는 滿足시킬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世代가 追求해야 할 統一의 實質的 目的, 즉 分斷에 起因하는 苦痛과 不便은 分明코 덜어 줄 것입니다.

現在의 南北間에서는 社會的 同質性이 없고, 이데올로기가 對立되고 있으며 對外關係에서 共通된 紐帶意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形態로도 政治的 一括解決을 期할 수 없는 形便에 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世代는 統一問題에 關한 制度的 解決을 性急히 追求하기에 앞서 南과 北이 아무 支障없이 서로 來往하고 物資를 交換하고 民族文化를 共通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狀態로 時急히 回復하는데 統一努力을 集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南北關係를 誘導할 수 있는 條件의 形成過程 하나 하나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統一에 가까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本人은 이러한 見地에서 한 民族의 우리 世代가 이 時點에서 摸索해야 할 統一은 統一成立의 條件이 나날이 改善되는 “過程으로서의 統一” 바로 이것이 우리가 目標로 삼아야 할 統一의 길이라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過程으로서의 統一”은 오늘날 우리 民族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制約과 可能性속에서 우리가 達成할 수 있는 目標와 達成하고 싶은 目標를 區別하고 이 두 目標間의 間隔을 좁혀 가는 統一努力을 말합니다.

體制와 理念이 根本적으로 다른 條件下에서 하나의 正統 政府와 이에 挑戰하기 위하여 樹立된 共産集團이 一朝一夕에 하나의 單一政府로 統合된다는 것은 그 前例도 없거니와 現時點에서는 거의 期待할 수 없는 줄 압니다.

本人은 오늘날 分斷國家問題의 世界的 解決方向이나 또한 우리 南北關係의 現實에 비추어 우리의 統一方向은 오직 하나 統一條件을 하나씩 改善해 나가는 過程에 우리 自身을 能動的으로 參與시키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統一條件이 改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땅에 平和가 定着되어야 할 줄 압니다.

戰爭도 平和도 아닌 冷戰的 對峙狀態속에서는 우리의 統一條件이 改善될 수 없습니다.

武力對決의 또 다른 可能性이 孕胎되는 條件 속에서는 平和統一의 意志가 開發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는 열렸어도 民族的 同質性 回復을 위한 積極的 開放과 交流가 展開되지 않고 있습니다.

體制와 理念은 달라도 協力과 交流가 繼續 擴大趨勢에 있는 것이 오늘의 世界요, 國際關係입니다. 우리의 南北關係가 改善되지 못하는 것은 一方의 主義主張을 他方에 強要하려는 冷戰을 共產側이 清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땅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關係에서 冷戰의 論理가 清算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願하는 平和는 單純히 南北間에 戰爭再發만을 防止하는 消極的 平和가 아니라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시킬 수 있는 積極的 平和統一條件을 改善하는 平和이기 때문입니다.

政府는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을 통해 南北 共히 平和統一을 위해 冷戰의 論理에서 解放되는 民族史의 새로운 局面을 開拓할 것을 提案하고 우리의 統一政策을 이 方向으로 轉換시켰습니다. 또한 南北 共히 유엔에 同時에 加入할 것도 主張했습니다.

南北關係 改善의 現實的 代案으로 休戰協定の 効力이 遵守되는 가운데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涉하지 않을 不可侵協定の 締結을 北韓當局에 提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政府의 이같은 現實的 努力은 北韓當局의 非現實的主張, 幻想的 強辯에 의하여 事實上 아무런 實效를 걸우지 못하고 있고 이로 因하여 南北關係는 重大한 試鍊期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韓半島 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寄與할 建設的 提案을 내놓으면 北韓은 冷戰論理를 그대로 繼承하는 否定的 心理戰으로 應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當面한 現實입니다.

金日成과 그의 宣傳員들은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과 不可侵協定이 우리 民族의 分斷을 固定化시킨다는 心理戰을 對內外的으로 積極展開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國際法의 現實에서 狀況을 보지 않고 그들의 架空的 觀念위에서 現實을 判斷합니다.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이 分斷固定化의 法的 根據가 될수 없다는 것이 유엔秩序의 嚴然한 現實임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우리의 正當한 主張을 全面 拒否하고 있습니다.

北韓側의 이같은 態度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의 規模로 幕을 올린 鐵의 帳幕이 아직도 이 땅에는 그대로 내리워져 있습니다.

親愛하는 統一問題 專門家 여러분!

이제 本人의 이야기를 끝맺을 段階에 이른것 같습니다. 本人은 平素부터 分斷國家의 統一은 그것이 外部로 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必要로 하는 國民들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할 課題라고 믿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이틀동안 繼續될 國內學者 統一問題 學術會議가 이 時點에서 우리民族이 直面

하고 있는 南北關係 改善에 現實的 代案 開發의 產室이 될 것을 本人은 굳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여러분들의 討論에 多少라도 貢獻한다는 意味에서 政府의 當面한 平和統一推進의 基本立場과 構想 그리고 北韓側에서 取해야 할 姿勢를 몇개 項目으로 나누어 提示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政府의 基本立場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統一努力은 南北韓이 過去, 現在, 未來를 通해 決코 分離될 수 없는 하나의 祖國을 平和的 方法에 依하여 統一하여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의 認識에서 出發합니다.

分斷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爲해서는 相互信賴와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며 統一條件의 實質的 改善을 이룩해야 합니다.

南北韓이 分斷된후 처음으로 合意하고 그 후 28次 國聯總會에서 萬場一致로 支持된 7·4共同聲明의 遵守가 平和統一에 이바지 할것을 確信하며 北韓이 이를 遵守할 것을 促求합니다.

둘째로, 平和定着을 위해 取할 措置의 方向은 다음과 같습니다.

北韓은 韓半島 平和維持의 根幹으로써 休戰協定の 効力を 持續시키는 가운데 相互不干渉 武力不行使를 約束하는 不可侵協定 締結에 同意해야 합니다.

北韓은 大韓民國을 所謂 共產革命 및 解放對象 地域으로 定義해 온 非現實的 革命統一路線을 拋棄함으로써 祖國의 平和統一에 對한 原則的 障礙要素를 除去해야 합니다.

北韓은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이 南北韓의 冷戰的 對峙狀態의 解消에 寄與할뿐 分斷을 固定시킬 法的根據가 될 수 없다는 國際法의 現實을 認定해야 합니다.

우리는 7·4南北共同聲明을 支持하는 모든 國家와 關係를 改善하는 同時에 過去와 現在를 통해 存續해온 일체의 不自由스러운 敵對關係를 解消하는데 注力할 것입니다.

우리는 人道的 次元의 分斷苦痛을 解消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에서 北韓側이 誠意를 다할 것을 促求합니다.

앞으로 北韓當局이 각기 이상의 原則을 尊重하고 提示된 措置를 取한다면 우리는 極東地域에서의 緊張緩和에 寄與하고 나아가 東北亞細亞의 平和秩序 形成에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으로 本人은 믿읍니다.

우리는 이 立場에서 더 以上 後退할 수 없으며 北韓의 態度가 이 方向으로 轉換되도록 諸般努力을 傾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健闘를 빕니다.

1974年 7月 5日

國土統一院長官 金 溶 植

基 調 演 說 文

—光復30周年記念 在外國民統一會議—

內外 貴賓 여러분

그리고 世界 各 地域의 우리 國民을 代表하여 이 會議에 參席하신 在外國民 代表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民族의 宿願인 祖國의 統一問題에 관한 우리 政府의 基本政策 方向을 在外國民 여러분에게 說明 드리게 된 것을 無限한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 이 會議가 祖國이 日帝의 쇠사슬에서 解放되어 光復을 찾은지 滿 30年, 그리고 北韓 共產集團이 同族相殘의 武力南侵을 敢行 하였던 6·25動亂으로부터 滿 25年이 되는 時點에 열렸다는데 대해 깊은 感懷를 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은 祖國分斷 以後 처음으로 在外國民 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祖國의 統一問題를 같이 걱정하며, 胸襟을 털어 놓고 서로 論議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었다는 點에 특히 이 會議가 갖는 重大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民族은 西紀 7世紀 中葉에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룩한 以來 連綿 千三百餘年 동안 單一한 歷史와 單一한 文化와 單一한 中央集權의 統治體制를 維持·繼承해 왔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王朝의 交替가 있었지만 우리의 單一民族으로서의 傳統은 깨어지지 않았으며, 甚至於 우리가 國權을 빼앗겨 異民族의 植民地 奴隸生活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던 暗澹한 時期에도 우리의 民族的 單一性만은 喪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土가 兩斷되고 그 사이에 어떠한 帳幕보다도 굳은 鐵壁이 가로 놓임으로써 南北을 완전히 隔離시켜 놓은 第二次世界大戰後의 事態는 우리 民族의 半萬年 歷史上 일찌기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變則的인 狀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事態는 우리들 韓國 國民이 절대로 容認할 수 없는 것이며, 이제부터 兩斷된 國土의 再統一은 우리의 國家的·民族的 至上課題로 되었습니다.

韓國 國民의 統一에 대한 熱望을 받아드려 國際聯合은 1947年 第二次總會에서 全韓國의 統一·獨立된 民主政府 樹立을 위해 韓半島 全域에 걸친 自由總選舉를 實施할 것을 決議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拒否와 妨害로 말미암아 不得已 UN 韓國臨時委員團의 監視가 可能하였던 北緯 38度線 以南에서만 總選舉가 實施되어,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고, UN은 이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하였던 것입니다.

그後 얼마안된 1950年 6月 北韓 共產軍의 天人共怒할 武力南侵으로 同族相殘의 凄慘한 動亂이 시작되었습니다. 3年以上 계속된 이 戰爭에 의해 우리의 國土는 廢墟가 되었고, 數百萬 同胞의 犧牲

을 났으며, 勇猛한 우리國軍은 鴨綠江邊까지 進擊하였으나 中共軍의 介入으로 인하여 南北은 또다시 分斷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0餘年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平和롭고 아름다워야 할 우리 강토는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南北韓의 百萬 大軍이 一觸即發의 險惡한 態勢로 對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祖國統一에의 希望과 決意를 拋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單一民族이며, 單一國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人爲的 分斷으로 말미암아 南北으로 흩어진 一千萬 離散家族을 하루속히 再結合시켜 주어야 하겠으며, 또한 分斷에서 오는 모든 苦痛을 解消시켜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이 統一됨으로써 우리는 總人口 五千萬에 達하는 큰 나라를 形成하여 現代國際社會에서 正當한 地位와 威信을 차지할 수 있게 되며, 南韓의 優秀한 技術과 近代的 產業裝備를 가지고 北韓의 地下資源을 開發하여 急速한 發展과 繁榮을 期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韓半島의 統一은 極東에 있어서의 紛爭의 불씨를 除去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安全에 크게 寄與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에게 民族의 再統一은 避할 수 없는 當爲이며 오늘의 世代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야 할 使命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手段方法을 써서든지 統一만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또다시 同族의 피를 흘리는 方式에 의한 統一은 避해야 하겠습니다.

6·25事變의 記憶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生生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北韓共產集團의 非人道性과 反民族性을 糾彈하는 것도 그들이 이처럼 野蠻的인 武力統一을 企圖하였고 또 企圖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6·25와 같은 戰爭의 再發을 防止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自身이 武力에 의한 統一을 追求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北韓共產集團의 武力南侵企圖를 결단코 許容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平和的 統一은 우리 政府의 確固不動한 統一方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70年代에 들어서 朴大統領께서는 國際情勢의 推移에 발맞추어 平和的 統一을 위한 重要한 措置들을 계속 講究해 왔습니다.

우선 1970年 8月 15日 大統領께서는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劃期的인 平和統一構想을 內外에 宣言 하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北韓에 대하여 戰爭挑發行爲와 武力赤化統一野慾을 拋棄할 것을 促求하고 그들이 이를 行動으로 實踐한다면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除去하는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음을 表明하면서, 平和的 統一을 위한 UN의 努力을 認定한다면 北韓의 UN參席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이며, 南北韓의 어느 편이 보다 더 國民을 잘 살수 있게 하는 體制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善意의 競爭에 나설 것을 提議하였습니다.

이 「8·15宣言」은 分斷 四半世紀의 南北韓關係에 하나의 轉換點을 이루고 우리의 平和的 統一政策의 새로운 出發을 뜻하는 歷史的인 措置입니다.

다음 해인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는 離散家族찾기를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을 提案하였습니
다. 이 提案은 國土分斷으로 말미암은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려는 人道的인 見地와 아울러, 지
금까지의 南北韓間의 對決關係를 對話關係로 轉換시키는 契機가 되었다는 點에서 또한 歷史的인 意
義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어 1972年 7月 1日에는 南北이 다같이 統一問題를 自主的·平和的으로 解決할 것에 合意한 「南
北共同聲明」이 公表되어 國內外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平和的 統一을 위한 우리政府의 다음 措置는 1973年 6月 23日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입니다.
이 宣言은 우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우리民族의 至上課業임을 強調하고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
하여 南北韓이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말 것과 侵略을 하지 말 것을 다짐하면서, 緊張緩和와 國際協調
에 도움이 되고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면 南北韓의 UN同時加入도 反對하지 않으며, 理念과
體制에 關係없이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闡明했던 것입니다.

이 「6·23宣言」은 分斷以來 30年間의 韓半島에 있어서의 冷戰的對峙狀態를 果敢히 除去하고 平和
的 共存體制를 確立할 것과 모든 非敵性國家에 대한 門戶開放原則을 宣布하였다는 點에서 우리의
統一外交政策에 또 하나의 劃期的인 前進를 記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昨年에 들어 朴大統領께서는 1月 18日의 年頭記者會見席上에서 平和維持의 具體的 方案으로
南北韓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提議하였습니다. 이 協定의 內容으로서는 南北韓이 相互 絶대로 侵犯
하지 않을 것과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을 것,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現行 休戰協定은 그 効力이
存續되어야 할 것 등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이 提議는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를 定
着시키기 위한 가장 合理的인 方案이라 하겠습니다.

같은해 8月 15日 朴大統領께서는 다시 光復節, 慶祝辭를 빌려 「平和統一 三大原則」을 提示하였습
니다. 이는 우리韓國의 統一政策을 集約, 體系化한 것인데, 그것은

첫째, 南北韓은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둘째,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시킴으로써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을 이룩하여, 南北間에 相互 門戶
를 開放하고, 信賴를 回復시키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여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段階的인 統一原則이야말로 오늘의 環境與件속에서 戰爭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
으로 分斷된 祖國을 統一할 수 있는 唯一의 道입니다. 왜냐하면 南北韓과 같이 「이데올로기」와 政
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面에 있어 極度로 異質的이며 深刻한 相互不信과 敵愾心이 가로놓인
두 體制를 그대로 하나로 統合한다는 것은 事實上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不可不 그
異質性을 漸進的으로 解消할 수 있는 여러 段階의 過程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過程을
順調롭게 거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南北間에 平和가 確保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平和의 定
着은 우리 民族의 統一을 위해 必須 不可缺한 先行要件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1971年 以來 우리政府는 國土兩斷으로 인한 民族的 苦痛을 덜고 南北韓間의 緊張을 緩和하며 統一與件을 改善하려는 目的으로 南北對話를 提議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을 對話의 테이블로 誘導해 내는데 成功하였읍니다. 그러나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두갈래 通路로 進行되어 온 北韓과의 對話는 지금까지 간신히 對話의 通路가 유지되어 왔다는것 以外에는 아무런 實質的 成果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그리고 빠른 時日內에 解決되리라고 豫想되었던 赤十字會談은 1971年 9月부터 3年餘 동안 豫備會談·本會談등 67回나 會議를 거듭하였지만 合意에 이른것이라고는 겨우 離散家族의 生死와 所在를 確認하는 問題를 비롯하여 本會談에서 討議될 議題 5個項의 選定뿐입니다 그 第1項의 處理조차도 北韓側의 臆說的인 遲延戰術에 부딪쳐서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들의 本會談再開忌避로 말미암아 近來에는 실속없는 實務會議만 거듭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한 南北共同聲明에 의하여 1972年 10月에 構成된 南北調節委員會도 共同委員長會議·本會議등 18回의 會談을 거듭하였으나 여기서도 相互誹謗 中止, 調節委員會幹事會議 構成, 共同事務所 設置 등 枝葉的인 問題에 관해서만 合意를 보았을뿐 平和的 統一을 위한 本質的인 問題는 하나도 解決되지 못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合意된 誹謗中止 마저도 北韓側이 約束을 어기고 韓國에 대해 前보다도 더욱 甚한 中傷·誹謗을 계속하고 있으며, 共同事務所の 設置 같은 것은 전혀 論議조차 할 氣色을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런데다가 1973年 8月 28日 北韓側 共同委員長은 韓國의 內政에 관한 當치않은 理由를 들어서 一方的인 對話拒否를 聲明하여, 이때부터 調節委員會 本會談은 完全히 中斷되고 말았읍니다. 다만 우리측의 忍耐와 努力으로 겨우 副委員長會議만 이따금 開催되어 왔는데, 그나마 지난 3月을 마지막으로 北韓側의 理由없는 拒否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이와 같이 南北對話가 아무런 成果도 없이 膠着狀態에 빠져 있는것은 北韓側이 對話를 통한 平和的 統一에의 接近을 事實上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對話의 經過를 分析해 보면 北韓側은 언제나 막바지에 와서는 온갖 口實을 만들어서 合意를 妨害해 왔읍니다. 그들은 덮어놓고 統一問題를 一括妥結하자고 버티면서 平和的 統一의 唯一한 可能한 方法인 漸進的 段階的인 解決을 無條件 反對하였으며, 議題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問題를 들고 나와서는 惡辣한 政治宣傳만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南北對話가 이처럼 進展이 없게된 根本的인 原因은 한마디로 말해서 雙方이 追求하는 對話의 目標가 처음부터 相反된 데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韓國은 對話를 통해 6·25動亂과 같은 同族相殘의 戰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事前에 抑制하고 國土分斷에 의한 民族的 苦痛을 解消하며, 平和的 統一의 基礎인 南北共存秩序를 形成함으로써 南北間의 交流와 協力을 可能케 하여, 점차 民族 同質性을 恢復하고, 이리하여 마침내 5千萬同胞의 意思가 自由롭게 表現될수 있는 방식에 의한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었읍니다.

이에 反해 北韓側은 南北對話를 하나의 鬭爭手段으로 삼고, 共產主義者들의 이른바 協商戰·心理戰의 道具로 利用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의 基本目標은 始終一貫해서 共產化統一에 있으며, 일찌기 그들이 일으켰던 同族相殘의 피비린내 나는 戰爭에서 얻지 못한 것은 協商의 테이블위에서 얻어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UN軍司令部의 解體와 駐韓美軍의 撤收를 끈질기게 要求하고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取消, 反共法, 國家保安法의 廢棄, 南韓에서 逮捕된 共產間諜의 釋放 등 터무니 없는 內政干涉의 條件을 내어 걸어서 對話의 進展을 不可能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北韓側의 主張은 결국 그들의 意圖하는 바가 祖國의 眞正한 平和的 統一이 아니라 暴力手段을 통한 赤化統一에 있음을 드러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軍事力의 балан스를 그들 自身에게 有利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韓國의 防衛力과 安保態勢를 弱化시키며, 우리 國內의 政治的·社會的 混亂과 分裂을 助長함으로써 그들의 所謂 人民革命을 위한 與件을 造成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目的達成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對話中斷을 圖策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北韓共產集團의 根本意圖는 그동안 그들이 提案해 온 統一方案이라는 것을 檢討해 봄으로써 더욱 分明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主要提案의 하나는 소위 聯邦制案입니다. 이것은 1960年 4·19後 우리國內의 政治的 不安期를 노리고 처음 나온 것인데, 그후에도 간혹 되풀이 하다가, 1973年 6月 23日 즉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에 宣言을 反對하기 위해 황급히 發表된 金日成의 이른바 5大統一綱領의 하나로 새로운 形態를 갖추어 提起되었습니다. 그 內容은 南北이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이름의 聯邦을 構成해서 이 單一國號로 UN에 加入하자는 것입니다.

이 提案에서 새롭다는 것은 소위 聯邦의 國號를 定한 것 외에 그러한 聯邦이 成立되기까지는 南北이 다 UN加入을 하지말자는 點인데, 이는 確實히 過去의 그들의 態度와는 다른 것입니다. 北韓 共產集團은 이미 1949年과 1952年의 두번에 걸쳐서 UN加入을 申請한 일이 있었으며, 그후에도 각종 UN機構에 加入하려고 안간힘을 쓴 結果 마침내 世界保健機構(WHO), 萬國郵便聯合(UPU), 「유네스코」등 UN의 專門機構에 加入한 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聯邦制라는 것은 同一한 國家理念을 基盤으로 해서 비로소 成立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南北韓의 경우와 같이 理念과 體制가 全然 相異하고 相互간에 極度の 不信과 緊張이 高潮되어 있는 狀況下에서는 그것은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도저히 不可能한 일입니다. 實際로도 民主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가 하나의 聯邦을 形成한 例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聯邦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具體的 條件, 이를테면 中央政府의 形態라든지 中央政府와 支分國과의 權限配分등에 관한 說明이 있어야 하는데 金日成의 提案은 단지 漠然하게 聯邦制의 必要性을 主張했을 뿐, 이런 問題에 관해서는 一言半句의 言及이 없습니다.

또한 單一國號로 UN에 加入하자고 하지만, 이미 南北韓이 함께 會員國으로 되어 있는 각종 國際機構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事事件件에 相反되는 態度를 취하는 兩側이 UN에서만 어떻게 行動統

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點을 綜合해 볼 때 北韓의 聯邦制案이라는 것은 우리 韓國이 6·23宣言에서 表明한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을 反對하기 위한 術策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南北의 共存과 交流를 通해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고, 그 바탕위에서 南北韓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자는 우리의 平和的 統一方案을 拒否하기 위한 口實에 不過한 것입니다.

한가지 여기서 明白히 해 두어야 할 것은 南北韓 UN同時加入이 우리 民族의 分斷을 永久化하고 統一을 沮害한다는 北韓의 主張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主張의 虛構性을 暴露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實例를 들기만 하면 足할 것입니다.

「에짚트」와 「시리아」는 오래 前부터 UN에 加入해 있는 會員國이었지만 그 事實이 이 두 나라가 統一 「아랍」 共和國으로 합치는데 아무런 障礙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쑤비에트」 聯邦의 構成 自治國인 「우크라이나」와 白「러시아」는 다 같이 UN에 議席을 가지고 있는 加入國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蘇聯邦의 單一性을 아무도 否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最近에는 共產化된 南北越南이 다같이 UN加入을 申請하였습니다. 이리하여 北韓의 同時加入 反對論은 스스로 그 不合理性과 自己矛盾을 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北韓側 統一提案으로는 이른바 大民族會議 召集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前記 五大綱領의 하나이며 또 南北調節委員會 같은데서 번번히 들고 나오는 提案입니다. 그들의 主張에 따르면 大民族會議란 南北 各各 數百名씩 兩쪽을 합치면 적어도 千名 以上の 「各界各層의 代表」가 한자리에 모여서 統一問題를 論議하자는 案입니다.

우리가 이미 經驗한 바 南北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와 같이 불과 十餘名の 極히 限定된 人員에 의한 會議에서도 雙方의 意見對立으로 實質的인 問題의 合意에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韓國에 數千名에 달하는 사람이 모인 一種의 群衆大會와 같은 集會에서 複雜微妙한 統一問題를 妥結짓자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大「民族」會議라는 名稱과는 달리 民族統一에 대한 그들의 不誠實性을 들어 내는 것이며, 現在 그것이 南北調節委員會를 休紙化 하기 위한 名分으로 利用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認하고, 우리 內部的 分裂과 混亂을 造成해 보려는 底意를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또한 그 統一戰略의 一環으로서 南北韓 軍隊의 각기 10萬 以下로의 減縮, UN軍可解體와 美軍撤收, 그리고 軍備競爭의 中止와 軍裝備의 導入禁止 등을 內容으로 하는 소위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北韓共產集團의 가장 그럴듯한 平和愛好제스츄어도 애당초 UN軍을 이 韓半島에 불러 드린 者가 바로 6·25事變을 일으킨 그들 自身임을 想起할 때 크게 褪色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 보다는 注目할 點은 이 「平和協定」締結案이라는 것이 우리 韓國의 異論의 餘地없이 正當한 平和定着方案인 南北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拒否하기 위한 口實로 使用되고 있는 點입니다. 따라서 이 「平和協定」案도 其實 「平和」를 위한 것이 아니라 反對로 韓·美共同防衛體制를 崩壞시키고 우리의 安

保態勢를 瓦解시키며, 나아가서 그동안 20餘년간 韓半島에 있어서의 위태로운 平和를 간신히 지탱해 온 現存 休戰體制를 實質적으로 死文化함으로써 殘存하는 平和마저 完全히 破壞해 버리려는 속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反對를 위한 反對에만 熱中하는 北韓共產集團의 立場은 물론 그 武力赤化統一의 基本戰略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편 對話와 交流를 통한 平和的 統一 推進이 그들의 體制에 던져주는 不安이 깃들어 있음을看過할 수 없습니다. 즉 30年동안이나 持續된 1人獨裁下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敎條的·劃一的·全體主義的 閉鎖體制가 自由로운 世界 앞에 開放됨으로써 일어날 衝擊과 動搖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前近代的·샤머니즘的 偶像化를 통한 駭怪망착한 個人崇拜와 그것을 위한 歷史의 虛偽捏造가 白日下에 暴露되고, 모든 資源을 戰爭準備에 集中投入하기 때문에 北韓 住民의 消費生活를 極도로 抑壓하고 있는 機械화된 社會相을 그 「人民」이 깨닫게 되는 것을 北韓의 支配層은 念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側에서 提案한 모든 現實的인 南北交流方案을 한가지도 受諾하지 않으려 들고, 심지어 가장 손쉽게 實踐할 수 있는 秋夕省墓團交換이나 老父母 相逢, 그리고 離散家族의 書信交換提議까지도 必死的으로 反對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北韓共產集團은 最近 더욱더 暴力路線으로 기울어져 우리에게 대한 露骨的인 挑發을 날로 激化시키고 있습니다. 1970年 11月 저들의 소위 5次黨大會 席上에서 金日成은 戰爭準備가 이미 完了되었다고 壯談했는데, 그들의 狂的인 軍備增強實態로 보아 이 말만은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南北對話가 進行中이던 72年 以後에 그들은 最新型 戰爆機를 비롯하여 重戰車와 각종 미사일 기타 奇襲攻擊用 武器를 大大的으로 導入한 事實입니다. 그리고 昨年 11月 15日에는 마침내 休戰線을 깨뚫어 非武裝地帶 南方에 이르는 地下터널 工事が 發覺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狀況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튼튼한 安保態勢를 갖추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굳건한 防衛力만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誤判에 의한 再南侵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고 韓半島의 平和를 維持할 수 있는 唯一의 방패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政治·經濟·社會의 모든 面에서 北韓을 壓倒할 수 있는 國力을 培養하는데 總力을 傾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念願하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基盤을 다져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統一은 어디까지나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한 自由民主主義下의 統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赤化統一을 容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個性과 人格의 尊嚴性이 尊重되고 多元的이며 開放的인 自由社會體制를 固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社會體制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統治機構는 高度의 效率性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10月維新은 바로 이 目的을 위해 遂行되었습니다. 維新憲法은 그 前文에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立脚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를 建設할 것을 宣布함으로써 우리의 國是와 至上課業이 무엇인가를 明確히 밝혔습니다. 이리하여 우

리의 維新體制는 다른 어떤 體制보다도 統一指向的이라는 本質的 特徵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國家機構의 頂上에 統一主體國民會議를 두었고, 最高領導者로서의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誠實한 義務」를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親愛하는 在外國民 代表 여러분!

나는 이 나라의 統一政策 立案의 責任者로서 한시바빠 統一된 民主祖國이 實現되는 것을 鶴首 苦待하고 계시는 海外同胞 여러분의 앞에 깊은 自責의 念이 솟아 오름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最近의 情勢發展이 우리가 念願하는 平和的 統一의 目標에 接近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멀어져가는 感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民族의 將來와 統一의 展望에 대해서 결코 悲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現下의 切迫한 危機를 슬기롭게 克服하기만 하면 戰爭의 危險性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北韓의 好戰的인 侵略主義者들도 武力으로 大韓民國을 破壞하는 것이 不可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暴力的 手段에 의한 赤化統一의 企圖를 拋棄하고, 對話의 테이블로 돌아 오게 될 것입니다.

分明히 時間은 우리의 편에 있습니다.

北韓의 極도로 閉鎖的이며 硬直化된 獨裁體制가, 멀지않은 將來에 甚한 停滯와 混沌 속으로 빠져들어 갈것이 豫見되는 反面 우리의 開放된 自由體制는 政治·社會의 모든 면에서 더욱 急速한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大韓民國은 半萬年 民族史의 正統性을 確固히 保有하고 있으며 우리 祖上의 빛나는 일과 값있는 文化遺産을 繼承·發展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思想과 制度를 超越해서 모든 나라가 平和的으로 共存하며 交流와 協力을 增大시켜 나가려는 世界的 潮流는 北韓의 時代에 뒤떨어진 鎖國主義를 그대로 放置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人類文明의 새로운 빛은 北韓의 어두운 洞窟 속을 비치게 되고 드높아 가는 自由化의 물결은 北韓社會에 둘러쳐 있는 教條主義의 障壁을 넘어 들어가서 結局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現在 우리의 國土가 兩斷되어 있는데다가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同族을 헐뜯으며 가진 誹謗·中傷에 熱을 올리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恥辱的인 民族自害行爲로 말미암아 在外國民 여러분이 당하시는 苦痛과 受傷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汚辱된 苦難의 時期가 하루바빠 지나가도록하고, 진실로 平和롭고 繁榮된 統一祖國의 實現을 앞당기기 위하여 全國民과 더불어 身命을 다해 奮鬥·努力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 歷史的인 在外國民 統一會議가 始終 和氣靄靄하면서도 眞摯한 雰圍氣 속에서 훌륭한 主題發表와 隔意없는 討議를 거쳐, 우리 民族의 統一成就를 위해 크나큰 貢獻을 하게 될것을 期待해 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契機로 모든 海外同胞가 平和統一의 大義 아래 굳게 뭉쳐서 祖國統一의 榮光된 날을 向해 共同邁進하여 주실 것을 懇曲히 당부하면서 基調演說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75年 8月 9日

國土統一院長官 愼 道 晟

致 辭

—光復 30周年記念 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

· 尊敬하는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內外碩學 여러분!

本人은 우리 民族의 宿願인 統一問題를 多角的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平和統一研究所가 마련한 光復30周年記念 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에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歡迎과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이 意義있는 學術會議의 結果가 韓國의 統一을 위해 實質的인 貢獻이 될 수 있게 되기를 懇切히 祈願합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韓國의 統一問題를 直接 具體的으로 擧論하려 하지 않습니다.

本人은 다만 우리 政府의 統一業務를 直接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會議의 主題와 關聯하여 우리 政府가 追求하고 있는 平和統一의 基本方向과 그 동안의 對話의 經緯와 事情만을 要約하여 言及함으로써 여러분의 討議에 參考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第2次 世界大戰이 終熄될 무렵 美·蘇兩國이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分擔하기 爲하여 劃定한 38線으로 因하여 우리 韓國은 우리 民族 全體의 意思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이 南과 北으로 國土와 民族이 兩斷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後 1950年 北韓共產侵略主義者들의 武力南侵으로 全國土는 廢墟가 되고 數百萬의 人命被害와 重大한 財產損失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史上類例없는 同族相殘의 民族的 悲劇의 結果로 統一이 아니라 休戰이란 不安定한 平和속에서 155마일의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南北間에는 敵愾心에 불타는 軍事的 對峙로 因하여 一切의 民族的 連繫가 斷絶되고 北韓地域에서는 所謂 金日成 唯一思想이라는 共產主義 불덕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駭怪하고 徹底한 閉鎖強壓 劃一體制로 民族的 異質性만 더욱 深化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休戰 以後에도 오늘까지 우리 民族은 國內外的으로 莫大한 損害를 입어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民族은 五千年의 오랜 歷史를 통하여 韓半島에서 單一民族으로서의 生活共同體를 營爲하여 왔습니다.

특히 西紀 7世紀 中葉에 新羅가 三國統一의 大聖業을 完成한 이후로는 韓半島에 이미 完全한 統一民族國家가 成立되었고 그후 高麗 朝鮮의 두 王朝의 交替가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民族의 單一化 體制는 계속 維持 發展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20世紀初에 우리 民族이 日本의 植民地가 된 후에도 우리 民族 固有의 文化傳統은 期於코

保存되고 繼承되어 왔습니다. 한 民族이 兩斷되어 對立相爭하는데서 오는 그 民族的 苦痛과 悲哀와 損害는 이를 直接 體驗하지 못한 나라의 國民은 도저히 理解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같은 民族分斷의 苦痛을 덜어주고 除去하고 兩斷된 國土와 民族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世代에게 주어진 民族史的 至上命題인 것입니다.

親愛하는 內外碩學 여러분!

이와같은 確信에서 朴正熙大統領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題인 韓國統一의 現實的인 可能性을 誘導하고자 對話를 통한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의 原則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은 一聯의 重要한 統一政策들을 先導的으로 提示하여 왔습니다.

1970年の 8·15宣言, 1971年の 南北赤十字會談 提議, 1972年の 7·4南北共同聲明, 1973年の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1974年 1月 18日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 提議, 그리고 이러한 平和統一政策를 集約한 1974年 8月 15日의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闡明하신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朴正熙大統領은 지난 8月 15日 光復30周年 慶祝辭를 통해 北韓體制의 開放과 北韓同胞의 기본권을 최저한이나마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朴正熙大統領의 이러한 一聯의 平和統一을 위한 政策決斷은 한결 같이 韓半島에서 戰爭의 再發을 防止하고 恒久的인 平和를 確保하며 南北關係를 善意의 競爭과 對話의 關係로 誘導하여 分斷韓國의 平和的 再統一을 促進하고 追求하는 것입니다. 分斷 四半世紀만에 韓國의 主導下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의 두 對話通路를 통해 水炭不相容의 對決關係에 놓여 있던 南北關係를 對話의 關係로 誘導하여 平和統一에의 現實的 接近을 促進하고자 우리 政府는 모든 精誠과 努力을, 寬容과 忍耐를 가지고 傾注하여 왔습니다.

우리 五千萬民族은 이와같이 南北對話가 異質化된 南北間에 同質性을 回復하고 相互不信과 敵對感情을 解消하는데 크게 寄與하리라고 期待하였습니다. 또한 國內輿論과 온 世界의 國家들이 南北對話를 크게 歡迎 支持하고 7·4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에 따라 韓國의 統一問題를 自主的, 平和的으로 解決하겠다는 韓國民族의 빛나는 叡智에 對하여 아낌없는 讚辭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當局者들은 7·4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할 무렵부터 休戰線 一帶에 여러개의 땅굴을 파서 韓國을 不時에 侵攻하려는 計劃을 推進하고 있었다는 事實이 이미 全世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4年 8月 15日 서울 國立劇場에서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을 宣言하는 우리 朴正熙大統領을 日本居留 韓國人 2世 文世光이라는 者를 使曠하여 殺害하려다가 우리 5千萬同胞가 모두 사랑하고 尊敬하는 大統領 令夫人을 弑害 하였습니다. 東海와 西海에서 漁撈하는 漁船을 擊沈 또는 拉致해 가고 1968年 1月 21日 北韓特殊 124軍部隊의 靑瓦臺 襲擊事件 등 北韓當局은 계속적인 侵略行爲를 敢行하여 왔습니다. 마침내 北韓當局者들은 이미 合意된 議題와는 아무런 相關도 없는 엉뚱한 要求 條件들을 들고 나와 會談 분위기를 흐리게 하더니 급기야는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北韓當局者들이 對話를 통해 南北間의 同質性을 回復하고 緊張을 緩和하며, 平和를 定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對話를 利用해서 韓國內部的 政治的, 社會的, 混亂을 造成한 다음 소위 「共產主義統一戰線의 戰略 戰術에 의거한 南朝鮮革命」의 契機를 마련하던가 또는 武力이나 暴力으로 韓國을 速戰速決로 強占하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北韓支配體제의 核心的 獨裁權力機關인 勞動黨 規約 前文에 그들의 「當面目標는 北半部の 社會主義的 建設과 勝利이고 最終目標는 全韓半島의 社會主義 建設」이라고 明文化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이 南北對話에 應한 底意가 무엇이였겠는가를 充分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北韓當局者들이 南北會談을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기로 約束된 것을 不過 數3次 試圖하다가 갑자기 理由가 되지 않는 臆說로 中斷한데는 저들 自身の 閉鎖體制에 重大한 威脅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過去 25年間 하루같이 北韓은 地上樂園이고 南韓에 사는 同胞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電氣 불도 못켜고 살고 있다고 虛偽宣傳하여 왔습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韓國政府는 國民을 暴壓하고 美軍의 掠奪과 橫暴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地獄과 같은 社會라고 虛偽宣傳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南北對話가 始作되면서 延人員 數百名씩 南北을 往來하였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韓國은 經濟的으로 또 文化的으로 눈부시게 發展하고 있는 中進國中에서도 上位圈에 屬하는 나라입니다.

秩序面에 있어서는 先進國들보다 훨씬 安全한 社會입니다. 이러한 事實은 아무리 北韓當局이 徹底한 言論統制를 하여도 입과 귀를 通하여 北韓社會에 傳播되기 마련입니다.

이로 因하여 北韓體制에 重大한 衝擊을 준것이 分明합니다. 그 證據로 1974年에 北韓勞動黨은 所謂 黨集中 指導事業을 展開하여 全黨員과 全北韓住民의 思想動向을 再點檢하였었습니다. 서울에서 開催한 第1次 赤十字會談 北韓側 諮問委員으로 參加했던 在日朝總聯 副議長이었던 金炳植이가 우리 記者들이 물었던 「서울의 印象」에 對하여 그는 서슴치 않고 日本의 東京과 다를것이 없다고 對答하였었습니다. 金炳植은 平壤에 돌아간 후 代表團에서 除去되었을 뿐 아니라 그 消息이 杳然합니다.

北韓當局의 이러한 態度에도 不拘하고 朴正熙大統領은 오직 平和統一의 一念에서 累次에 걸쳐 南北韓이 相互 門戶를 開放하고 서로 交流하여 相互理解와 信賴를 促進하고 「유엔」에 同時加入할 것과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할 것을 促求하였었습니다. 그러나 北韓當局者들은 우리 韓國의 現實的이고도 合理的인 統一政策을 無條件 反對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그들은 「유엔」同時加入이 韓半島의 「永久分斷을 策動」하는 것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辱說로 非難하고 있지만 지난 30年의 分斷을 通해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하지 않았다해서 統一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앞으로도 쉬워지지 않는다는 事實은 너무도 明白합니다.

저들은 1949年의 9月과 1952年의 9月에 우리 韓國이 「유엔」加入 申請을 내자 우리를 뒤따라 同時加入하겠다고 「유엔」加入을 申請하였던 것입니다.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이야말로 統一의 障礙要素를 除去하고 오늘날의 國際狀況에서 民族의 共

同利益을 「유엔」의 안과 밖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追求할 수 있는 最善의 方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各各 「유엔」에 加入하였다가 統一아랍共和國을 樹立하자 「유엔」에서도 單一議席을 가졌습니다. 또다시 分立하자 또 各各 「유엔」의 議席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韓國과 같은 分斷國인 東西獨도 民族의 共同利益을 圖謀하고자 이미 「유엔」同時加入을 實現하였습니다.

또한 北韓當局은 우리의 正當한 提議인 南北韓이 서로 侵略하지 않고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休戰協定の 效力을 持續시킨다는 內容의 不可侵協定締結도 休戰協定 當事者의 調整과 協定 效力의 持續을 前提로한 「유엔」軍司令部의 自進解體案도 反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外勢」云云하면서 「유엔」軍의 撤收를 主張하고 있습니다.

其實 駐韓 「유엔」軍은 北韓共產 侵略者를 膺懲하고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기 爲하여 派遣된 「유엔」平和軍이며 休戰協定の 當事者입니다.

「유엔」軍의 韓國派遣을 自招한 것이 바로 金日成 集團의 6·25 南侵대문이라는 것도 世界의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특히 朴正熙 大統領께서 지난 8월에 이미 示唆한 바와 같이 韓半島에서 外部勢力에 의한 戰爭威脅이 完全히 排除된다면 駐韓美軍의 維持必要性도 그만큼 相對的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南北間의 緊張이 緩和되고 戰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制度的 保障이 없는 狀況下에서 「유엔」軍司令部를 解體하는 것은 現休戰協定の 實質的 死文化를 意味하며 南北間의 不安한 平和마저 完全히 破壞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입니다.

南北不可侵協定の 締結과 休戰協定當事者의 調整은 現休戰協定效力 存續의 가장 效果的 代案이며 韓半島의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를 定着시켜 平和統一의 基盤을 構築하는 가장 現實的인 方案입니다.

親愛하는 內外碩學 여러분!

우리 政府의 이 같은 平和統一追求 努力에도 不拘하고 北韓當局이 妄想的 武力統一 野慾을 계속 固執함으로 말미암아 南北關係는 더욱 어려운 試鍊期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現下 南北關係는 7·4共同聲明 以前보다도 더 緊張이 高潮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半島의 共產化以後 이에 鼓舞된 北韓 金日成集團의 南侵可能性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增大된 가운데 一觸即發의 對峙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金日成은 北韓住民에게 南韓地域의 武力統一을 每日같이 煽動하면서 國際社會에 對하여서는 平和를 追求하는 양 僞裝宣傳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6·25南侵直前까지도 그러한 手法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暴力이나 武力에 依한 南北統一은 너무나 큰 代價를 치뤄야하는 民族自殺行爲입니다.

南北間에 가로 놓인 모든 問題點을 쉬운 것부터 하나씩 段階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民族의 再結合과 統一에 不可避한 過程이며 體制와 理念이 다르고 極度로 異質化된 그리고 緊張이 緩和되지 않은 南과 北을 聯邦制로 한다면가 一舉에 統合한다는 北韓의 主張은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 전혀 不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南北關係가 膠着狀態에 빠지게 된 것은 北韓共產集團의 教條主義的 對南暴力革命路線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北韓共產集團의 對南革命戰略에 劇的인 變化가 없는 限 우리 民族의 再統一問題는 더욱 압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時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時急한 問題는 어떻게 하면 北韓共產集團의 變함없는 非妥協的인 態度를 改變시켜 우리의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모든 提案에 순순히 應해 오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서로가 對話를 할 때 意見交換과 妥協과 讓步를 통해 相反된 見解의 間隔을 좁히므로써 意見의 一致點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南北間의 對話도 無條件的 自己犧牲이 아니라 妥協과 協力を 통해 南北間의 民族의 共同利益을 追求하기 위한 具體的 方向과 進路를 摸索하자는데 있습니다.

비록 北韓이 對話를 忌避하고 韓國을 誹謗 謀略하더라도 忍耐로써 미움을 사랑으로, 싸움을 平和로 昇華시키고 寬容과 忍耐로써 北韓共產集團을 說得하여 對話에 誘導하고자 합니다.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어떻게 하면 韓半島周邊의 情勢變化를 우리에게 有利하게 展開시키고 이를 超克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를 平和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唯一한 方法은 우리의 國力과 政治力이 相對方보다 顯著하게 優越할 때에만 可能하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經濟成長에 있어서 그리고 政治의 民主的管理에 있어서 이미 北韓을 壓倒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4年度 GNP 가 172億弗에 達하였는데 反해 北韓은 48億弗에 不過합니다.

우리의 貿易量은 110億弗인데 反해 北韓은 11億弗로 우리의 10分の 1에 不過합니다.

저들의 經濟는 教條主義的인 社會主義方式을 固執하여 極度の 非能率과 過多한 軍事費支出 그리고 우리 南韓을 非難하기 위한 國際的 虛爲宣傳費에 浪費하여 74年以來 不過2億弗內外의 償還金도 갚지 못하고 日本, 英國, 스웨덴, 佛蘭西等 諸國으로부터 去來를 拒絕當하고 있는 形便에 있습니다.

우리 韓半島에 平和만 持續된다면 5年後 또는 10年後에는 南北韓의 經濟力과 國力은 現在보다도 몇갑절 顯著한 隔差가 생겨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武力이나 暴力으로 南韓을 強占하여 赤化統一하려는 妄想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들은 眞摯한 對話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平和統一業務는 進陞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國際的 「오피니온·리더」들이 活潑한 輿論을 提起케 하여 國際的인 壓力이 加하여지면 저들은 意外에 빠른 時日안에 平和協商 테이블로 나오게 될 可能性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積極的인 貢獻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8月 31일부터 9月 6일까지 11名의 閣僚와 이나라의 言論, 敎育, 宗教界의 最高指導層 都合 98名과 같이 새마을研修院의 社會指導者 研修課程을 履修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全國 各마을에서 온 새마을指導者 300餘名과 같이 生活하면서 對話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指導者들은 이 課程을 通하여 自身을 再點檢하고 全國 3萬 6千個마을에서 조용히 그리고 着實하게 그러나 強力하게 偉大한 平和的 革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事實을 確認하고 돌아왔습니다.

安逸과 無爲로 가난에서 허덕이던 農村사람들이 勤勉과 自助와 民主的 協同으로 富者가 되고 또 富者마을을 이룩한 피눈물나는 勝利의 歷程을 感激의 눈물속에서 듣고 貧困의 자국을 말끔하게 씻어버린 새마을現場을 이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一國의 長官들과 新聞社의 社長과 大學의 總長들이 시골마을의 農民들과 같이 食卓에 마주앉아 各自가 손수 들고 온 食事を 같이 하고 對話하고 討論하여 決定하는 光景은 民主主義의 꽃을 피웠다는 美國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니 볼 수 없는 自由와 平等의 眞正한 民主主義의 現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政府는 只今 不條理와 不正의 剔扶을 조용히 그러나 果敢하게 進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經濟力은 勿論 道德的力量과 民主的力量을 着實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 社會가 繼續前進하면 우리는 期必코 強力한 國力을 갖게 될 것이고 神은 우리를 勝利케 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平和的인 南北統一을 成就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韓半島에서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가고 있는 새마을 現場을 視察하실 수 있는 機會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南北關係와 國際環境을 어떻게 調整하여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를 定着시켜 統一을 向한 우리 民族의 前進를 멈추지 않게 하고 最小限 後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當面한 가장 緊急하고 重大한 課題라고 生覺합니다.

本人은 여기서 韓國의 統一問題가 반드시 韓國民만의 問題가 아니라는 點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韓國의 分斷은 戰後 世界政治秩序의 不條理가 낳은 產物이며 그 分斷이 30年을 지난 오늘날까지 持續되고 있는 것은 現存 國際政治秩序가 아직도 不條理를 充分히 處理하지 못했다는 證據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韓國의 分斷이 繼續되고 韓半島에서 不安이 繼續되는 限, 東北亞의 平和는 勿論 世界의 平和도 威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韓國의 統一은 不可侵協定을 締結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南北間의 交流와 協力을 通해 相互信賴와 同質性을 回復하고 우리에게 敵對하지 않는 限 共產主義國家와도 門戶를 開放交流하고 나아가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하여 5千萬同胞의 總意에 따라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民主的 選舉에 의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한다는 事實을 다시 한번 強調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韓國政府의 確固不動한 平和統一政策의 基本方向입니다.

이 會議가 우리에게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人類平和를 爲하여 有益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書を 滯在가 즐거우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75年 9月 9日

國土統一院長官 俞 尙 根

祝 辭

—陸軍士官學校主催 全國大學校 國防科學學術會議—

親愛하는 陸軍士官學校 生徒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나에 參加한 各大學의 發表者 및 討論參加者 여러분!

나는 오늘 祖國의 來日을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大學生들이 國家의 安全保障問題를 놓고 文武의 智慧를 모으게 될 이 意味있는 자리에 招請받아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할 主題에 關聯해서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없는 榮光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行事를 組織함으로써 國土防衛의 實役을 맡게 될 젊은 知識人들에게 國家防衛政策 形成에 直接 이바지하고 參與할 機會를 널리 開放한 陸軍士官學校 校長以下 關係教授들에게 政府의 安保關係 閣僚의 한 사람으로서 各別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련한 이 세미나가 다음 두가지 면에서 큰 意義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 參席했습니다.

첫째로 이 세미나는 參加者 構成面에서 韓國의 安保問題에 대한 文武의 智慧가 綜合調整 補完될 수 있다는데 意義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國防政策에 대한 理論과 實際, 目標와 手段의 問題에 關하여 各各 相異한 立場에서 教育받은 젊은이들이 各樣한 立場에서 觀察하고 思惟한것을 披瀝하고 綜合 比較하여 補完하는 節次가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세미나가 構成되어 있다는 點입니다.

둘째로 이 모임은 主題의 選定面에서 國家的 狀況과 要請에 一致하고 있다는데 特別한 意義가 있는 줄 압니다.

莫然한 未來의 問題가 架空의으로 討論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大學의 '知性人들이 바로 當面하고 있는 實在的 問題가 眞摯하게 討論되고 檢討될 수 있다는 點입니다. 이 點에서 오늘 이 會議는 過去에 大學生들이 즐겨 參加했던 어떠한 類의 學術 세미나 보다 값지고 보람있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이제 나는 한때는 大學의 講壇에서 지금은 政府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한 先輩의 資格에서 여러분의 討議에 길잡이가 될 몇가지의 見解를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狀況의 課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하고 緊急한 課題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國家의 安全保障 問題일 것입니다. 그러나 最近 印支事態가 全自由世界에 可恐할만한 충격을 몰고오기 以前까지만 해도 國內 一角에서는 國家安保의 重要性을 實感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國家安保를 大韓民國이 直面하고 있는 最優先의 挑戰課題로 設定하자는데 國民的合意가 만족할만큼 다져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一般國民들 보다 知性人들 社會에 더욱 현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知識人들 가운데 形成되어 있는 이같은 安保觀은 다음과 같은 假說에 입각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첫째 美軍이 韓半島에 駐屯하는 限 北韓의 南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각하고 있는 둘째 假說은 西歐的 意味의 自由와 民主主義의 追求만이 共產侵略에 對處할 수 있는 唯一最善의 代案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假說은 그 妥當성이 組織화된 強力하고 苛烈한 共產主義侵略勢力이 없었을때 成長해온 北大西洋 條約機構(NATO)國家들의 安保狀況에서는 部分的으로 肯定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悲劇的 終末을 목격했던 인도차이나 事態에서는 이상 두가지 假說이 결코 現實的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몇십배나 많은 美軍이 駐屯했고, 싸웠고, 또 支援했으나 마침내 美軍은 撤收했고 越南은 共產化되었습니다.

티우政府의 獨裁를 糾彈하고 自由와 民權을 부르짖던 월남의 카톨릭 教徒, 反政府鬪爭을 鼓舞하기 위해 焚身自殺을 서슴치 않았던 越南의 佛敎徒들, 大學의 自由를 守護하기위해 連日 反政府테오를 감행했던 귀논의 大學生들 그리고 言論自由를 웨치던 사이공의 新聞들은 이제 永遠한 침묵, 率直히 表現해서 死亡의 深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國際적으로 反共民主勢力으로 추앙받던 이들은 마침내 그들의 祖國 越南을 적어도 우리가 同意할 수 있는 意味의 自由와 人權은 姑捨하고 大量虐殺과 大量追放, 모든 自由의 徹底한 暴壓으로 人類史 以來의 悲慘한 狀態로 몰아넣는데 一翼을 擔當했고 그 代價로 피의 속청의 對象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國際的 流浪民으로 轉落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書 5장 15절의 「萬一 서로 물고 뜯다가 피차 滅亡할까 操心하라」는 말씀을 우리모두 銘心하고 警戒해야 하겠습니다. 結局 이들은 共產侵略이 越南全域을 壟斷하는 狀況속에서 自由와 人權만을 웨치다가 國論을 分裂시키고 越南의 自由화가 아닌 越南의 共產化를 招來하여 越南民族을 戰慄과 恐怖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어 悲劇的終末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自由가 아닌 「奴隸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越南은 美軍의 支援이 소홀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美國의 軍事力이 不足해서 越南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直接 경험했던 6·25動亂初期 처럼 共產軍이 裝備와 兵力面에서 優勢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越南의 滅亡은 한마디로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國民들의 確固한 安保觀의 缺乏에서 招來되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斷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共產集團과 싸우면서도 共產主義의 本質을 몰랐고, 共產黨에게 조종받으면서도 조종받는 줄을 몰랐고 利敵行爲를 하면서도 自身들의 行爲가 利敵인 줄을 모르는데 越南의 悲劇이 始作되었던 것입니다.

結局 越南人들은 共產主義와 싸우는 方法을 몰랐기 때문에,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安保哲學이 없었기 때문에 敗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越盟, 中共, 北傀로 이어지는 아시아 共產勢力의 戰略과 그것이 最初로 거둔 勝利의 열매로서의 越南의 悲劇을 결코 對岸의 火災로만 보아 넘길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越南은 自然的 地理的 條件이 다릅니다. 國民들의 安保觀이 다릅니다. 韓·美關係의 形成背景이 越南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보는 아시아 共產勢力의 本質은 전혀 同一합니다. 越南과 우리나라의 諸般條件이 懸隔하게 差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越南에서의 經驗을 韓半島로 擴大시키기 위한 各種의 國際陰謀를 策動하고 第3世界에서 적지 않은 支持票를 얻은 北韓侵略主義者들은 이에 鼓舞되어 積極 便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事態를 背景으로 지금 國內에서는 國家安保의 重要性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確固히 다져지고 總力安保에의 意志가 高潮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鼓舞的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國防政策은 이같은 무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國民들의 意識속에 內面化시키고 內面화된 意識을 生活化시킬 수 있는 方法을 案出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共產主義에 對決할 수 있는 安全保障의 方法論과 이 方法論의 現實的 代案이 되고 있는 總力安保態勢, 確立問題에 관해 나의 소견을 이자리에서 披瀝하고자 합니다.

먼저 總力安保의 方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親愛하는 士官生徒, 그리고 討論參席者 여러분!

나는 먼저 總力安保에 대한 우리들의 立場을 說明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우리와 對決하는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의 本質이라고 生覺합니다.

共產主義는 그 理論이 多種多樣한 修飾語와 形容詞 그릴듯한 理論體系로 粉裝되어 있지만 共產主義의 戰略理論은 한마디로 憎惡의 哲學에 立脚한 힘의 哲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의 論理로 集約

되고 있습니다.

共產主義 戰略은 19세기 중엽의 과립품문이라 오늘날까지 革命과 政權은 「銃口에서 이루어 진다」는 힘, 그 중에서도 暴力의 哲學을 한번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힘이 상대방보다 劣勢일 경우에 한해서만 共存 또는 對話를 追求합니다. 그리고 이 때의 對話나 共存도 그들의 目標가 아니라 相對方의 強한 힘이 弱해지고 自己의 弱한 힘을 補強할 수 있을때까지 時間을 벌기위한 自己防衛의 手段으로 採擇되는 것입니다.

金日成이가 72년에 우리 朴正熙 大統領께서 提示한 7·4共同聲明에 合意하면서 休戰線一帶에 不時侵攻을 爲한 地下땅굴을 파기 始作했다는 事實은 바로 이 論理를 立證하는 하나의 實例입니다. 中國 共產黨의 戰術로서 有名한 談談打打, 邊打邊談, 打打談談은 이같은 힘의 理論의 簡명한 表現인 것입니다. 즉 自己便의 힘이 약할 때는 相對方과 協商하면서 戰力を 기르고, 힘이 成長하면 협상과 공격을 併行하고, 힘이 강해졌을 경우에는 相對方을 再起할 수 없게 徹底히 攻擊한 후 政治協商으로 降伏받는 戰略을 中國共產黨이 구사했던 것입니다.

共產黨이 갖는 또다른 힘의 哲學은 相對方의 力量觀입니다. 그들은 相對의 힘이 아무리 強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弱點이 깃들어있다고 보고 따라서 힘은 強點과 弱點의 結合이라고 단정합니다.

共產黨들은 바로 이같은 힘觀에 입각하여 相對方의 強點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各種心理戰, 謀略戰, 謀反戰, 矛盾戰을 구사하고 그 結果 相對方의 強點을 弱화시키는 한편 어떠한 犧牲을 내더라도 自己의 弱한 힘을 一糸不亂하게 組織化하여 強化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共產集團과 對決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緊要한 것이 共產集團을 壓倒할 수 있는 절대우위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적어도 共產主義者들이 결코 攻擊의 對象으로 삼을 수 없을 만큼 強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政府가 強調하고 있는 國力培養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力培養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政治的 安定的 土臺위에서 全體國民의 精神的, 物質的 에너지가 낭비없이 國家建設에 投入될 수 있는 條件을 確保할 때 비로소 國力은 培養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政府는 바로 이같은 條件을 구축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共產主義와 對決하여 勝利를 爭取하기 위해서는 物理的意味의 힘만을 培養하는 것으로 充分한 것은 아닙니다. 共產主義者들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상대방의 힘의 優位를 弱화시키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이 갖는 힘의 強點을 弱點化하기 위해 各種의 工作과 陰謀를 부단히 展開하기 때문입니다.

貧富의 差를 煽動하여 階級對立을 誘導하고, 소득不平等과 利益均霑을 내세워 勞使紛糾를 일으키고 大學의 自由를 煽動하여 政府와 學生들을 이간 대립시키는 心理戰을 展開하는가 하면, 相對方地

域의 들어난 모순을 極大化 煽動하고 잠재된 모순을 暴露誇張시키는 矛盾戰을 展開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政黨과 國家機關內部에 浸透하여 上下 同僚關係를 離間 對立 分裂시키는 謀反戰을 획책하는
가 하면, 國民들의 잠재적 不滿을 煽動하여 反政府 勢力으로 變質시키는 離間戰도 서슴치 않습니
다. 特定の 集團이나 人物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國民들의 反撥을 자아내는 謀略戰도 자
행합니다.

그리고 國際的으로는 特定國家를 他國의 植民地로 악선전하거나 內政의 非理를 造作 宣傳하여「이
미쥐·크라이시스」에 빠뜨림으로써 對外協力を 惡化시키기도 합니다. 萬一 이같은 攻勢에 自由主義
國家가 效果的으로 對處하지 못한다면 현재 保有하고 있는 힘은 不知不識問에 弱화되고 마침내는
힘은 있으나 有事時에 組織化하지 못하여 使用할 수 없는 無力한 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越南은 바로 이러한 共產浸透에 對處하지 못함으로써 주어진 力量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共產
主義에 敗亡하는 不幸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緊要한것은 第1次的으로는 共產主義를 凌駕할 수 있는 經濟的, 軍事力, 知識力
의 培養인데 이러한 힘은 倫理와 道德으로 뒷받침 되어 있는 힘이어야만 強力하게 作用할 수 있습
니다. 不道德하고 不條理한 土壘위에 세워진 物量的 힘은 砂上의 樓閣과 같은 것입니다. 國民黨 政
府가 中國本土에서 敗退한 重要한 原因이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越南과 크메르의 主要敗因도
그 例外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確保된 國力이 國民的 正當性, 國民들의 올바른 倫理精神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人間社會에 完全無缺한 倫理나 正義는 存在하지 않습니다. 人間社會는 恒常 寬容과 사랑
의 前提없이 存立할수 없습니다. 아무도 完全하다고 自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倫理 道德的 側面에
서는 아무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包含해서 相對方의 非違를 公開的으로 糾彈할 수 있는 資格
者는 이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寬容과 사랑의 精神으로 融和된 社會, 國民이야말로 真正
한 힘을 確保 維持할수 있는 것입니다. 特히 特質의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精神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積極的으로 도와서 우리 社會에 그늘진 구석어 없게
하는 것이 우리 社會를 強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歷史 以來의 淒絶한 狀況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
는 唯一最善의 方法이라고 나는 確信 합니다.

現代화된 軍事力은 軍人들의 愛國心과 戰友愛精神에 기초를 두어야 勝利할 수 있는 힘이 되고
大企業의 生産能力은 勞使間의 家族愛, 兄弟愛 精神과 協同精神에 입각할 때 能率性과 持續性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分明히 말하거니와 自由世界의 力量과 힘이 바로 이같
은 兄弟愛精神, 倫理精神의 뒷받침을 받게 된다면 共產集團의 어떠한 攻擊에도 能히 對處하고 나아

가 共產黨의 挑戰을 壓倒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이 艱難에서 講究하려고 하는 總力安保도 바로 이같은 方向에서 追求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져나갈 總力安保는 民族的 總和 團結을 基盤으로서 北韓 共產集團의 모든 形態의 挑戰에도 능히 對處하고 나아가 大韓民國主權下에 韓半島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할 수 있는 力量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結論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親愛하는 士官生徒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나의 發表者 여러분!

이제 나는 이야기의 結論을 내릴 段階에 이른것 같습니다.

오늘날 共產主義는 倫理的 次元에서나 現實的 側面에서 그 正當性이 무너져 가고 虛構性과 非人道性이 드러나고 있는 過程에 있습니다.

自由世界와의 發展競爭에서 그 劣等性이 점차 實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 朝鮮과 東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수정주의적 變化가 이를 證據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 구라파 國家들간에 서명된 헬싱키 宣言도 事態의 이같은 變化를 背景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政府가 平和統一의 對象地域으로 設定하고 있는 北韓 地域은 아직도 地球上에서 두터운 鋼鐵의 帳幕으로 國民을 閉鎖하고 國民을 暴力으로 彈壓하는 가장 落後된 教條主義的 共產集團에 의해 管理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韓半島는 共產勢力과 對峙되고 있는 地球의 어느 地域에서도 보기 힘든 戰爭一步前의 緊張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側은 談談打打的 戰術을 驅使할 目的으로 南北對話에 應해 왔으나 막상 서울과 평양을 來往하는 몇차례의 對話를 가져본 후부터는 大韓民國을 보는 눈이 根本的으로 달라졌습니다.

談談打打的 戰術은 그들의 戰術이 될 수 없고 오히려 大韓民國의 눈부신 發展相과 國民들의 徹底한 反共姿勢는 그들의 閉鎖社會에 重大한 衝擊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하고 北韓側을 凌駕하는 大韓民國의 諸般強點을 弱화시키지 않고는 對話를 계속할 수 없다는 立場을 드러내기 始作했습니다.

1973年 8月 28日 南北調節 委員會 北韓側 共同委員長 김영주가 發表한 南北對話 一方的 拒否聲明이 바로 이것을 意味합니다.

그리고 이 聲明과 맥을 같이하여 大韓民國의 諸般 強點을 弱화시키기 위해 各種 心理戰을 多角的으로 展開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들은 越南人들과는 달리 共產集團의 底意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共産側의 도발이 激化되면 될 수록 國民總和의 바탕위에서 總力安保 態勢를 加一層 強化하고 있습니다.

共産側의 挑發이 심하면 심할 수록 우리 國民들의 反共思想 武裝은 더한층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結果 지금 이 시점에서 弱化되는 것은 北韓의 體制維持 能力이요, 強化되는 것은 우리 國民의 總力安保態勢인 것입니다.

北傀는 南朝鮮 人民革命을 일으키려고 煽動하지만 人民革命이 일어날 可能性은 大韓民國이 아닌 北韓에서 한층 더 增大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인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狀況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또한 우리 國家의 國防科學을 놓고 文武의 智慧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勿論 지금의 南北關係는 後世의 歷史家들이 同族相殘의 再發만 抑制된다면 지극히 다행스러웠던 時期라고 말할만큼 모든 면에서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分明히 말씀드리려는 것은 時間의 利는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總力安保를 말로서가 아니라 實踐으로 具現해만 나간다면 韓半島의 平和統一은 分明코 우리들의 主導下에 이루어 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總力安保의 길은 分明코 수고스럽고 값비싼 代價가 要求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에 굳게 서서 南北關係를 戰爭아닌 平和의 方向으로 展開시켜 나간다면 5千萬 우리겨레가 戰爭없는 平和속에서 民族的 繁榮을 謳歌할 祝福의 歷史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前進를 계속합시다.

이 모임에 參加한 여러분과 우리 5千萬 겨레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加護가 恒常 같이 하시기를 빌면서 나의 말을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1975年 10月 17日

國土統一院長官 俞 尙 根

南北共同聲明

—7.4 南北共同聲明 全文—

最近 平壤과 서울에서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는 問題를 協議하기 爲한 會談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日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 部長을 代身한 朴成哲 第2 副首相이 1972年 5月 29日 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李厚洛 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雙方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虛心坦懷하게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는 데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過程에서 雙方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結果로 생긴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1. 雙方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2. 雙方은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신뢰의 霧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3.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南北 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

4. 雙方은 지금 온 民族의 巨大한 期待 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하는 데 合意하였다.

5. 雙方은 突發的 軍事 事故를 防止하고 南北 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과 平壤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6. 雙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 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 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7. 雙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 民族 앞에 嚴肅히 約束한다.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1972년 7月 4日

李 厚 洛

金 英 柱

合 意 書

—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

雙方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1. 南北調節委員會는 1972年 7月 4日附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南北사이의 關係를 改善 發展시키며 各分野에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2.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가. 合意된 祖國統一 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나.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의 人士들 사이의 廣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다. 南北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의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라.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대치 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마.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取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宣揚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3.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雙方에서 各各 共同委員長과 副委員長 1名, 幹事委員 1名, 委員 2名으로 構成한다. 委員數는 必要에 따라 增加시킬 수 있다.

共同委員長은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으로 한다.

副委員長과 幹事委員 및 委員은 長官(相) 또는 次官(副相)級으로 하되 事前協議를 거쳐 各各 雙方 共同委員長이 任命한다.
 - 나. 南北調節委員會안에 幹事會議를 둔다.

幹事會議는 雙方 共同委員長の 委任에 依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休會期間에 提起되는 諸般問題 등을 協議, 決定하고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幹事會議는 雙方幹事委員과 各各 幹事 2名으로 構成한다.
 - 다. 南北調節委員會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 委員會를 둔다. 各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진척되는데 따라 設置하며, 그 機能과 構成은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따로 規定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事務局을 板門店에 둔다.

共同事務局長은 雙方이 各各 1名씩 任命하며 그 밑에 必要한 數의 人員을 둔다.

4.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運營한다.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必要에 따라 板門店에서도 할 수 있다.

나.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는 2~3個月에 1次, 幹事會議는 1個月에 1次 進行하며, 이밖에 雙方의 合意에 따라 臨時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다. 南北調節委員會는 公開會議 또는 非公開 會議로 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와 幹事會議에는 雙方의 合意에 따라 必要한 數의 專門人員들과 共同事務局 要員들을 參加시킬 수 있다.

마. 南北調節委員會의 最終合意는 雙方 共同委員長들이 合意文件에 署名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合意事項은 雙方의 合意에 따라 共同事務局을 통하여 同時에 發表한다.

바.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은 따로 規定한다.

5. 이 合意書는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修正, 補充할 수 있다.

6. 이 合意書는 雙方이 署名하여 交換한 時刻부터 効力을 가진다.

1972年 11月 4日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

李 厚 洛 部長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部長을 代理하여

朴 成 哲

合 意 書

—南北直通電話 架設 및 運營에 관한—

1. 直通電話의 設置目的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적으로 實現하기 爲한 課業과 其他 南北間에 提起되는 問題 및 不意의 事態에 對備하는 問題를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平壤間 直通電話(以下 直通電話라고 함)를 設置 運用한다.

2. 直通電話器 設置場所

直通電話器는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事務室, 그리고 平壤에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의 事務室에 各各 設置한다.

3. 運用 時間

直通電話는 日曜日과 公休日을 除外하고 每日 9時부터 12時까지 16時부터 20時까지의 사이에 運用하며 雙方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以上에 指定된 時間과 날짜에 拘碍됨이 없이 事前에 날짜와 時間을 設定하여 運用한다.

4. 通話 者

直通電話의 通話者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그가 指名한 3名으로 하며 平壤에서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그가 指名한 3名으로 한다.

5. 試驗 通話

直通電話의 異常有無를 確認하기 爲하여 第3項에 指定된 날의 10時에 試驗通話를 한다.

6. 故障 修理

直通電話에 異常이 있을 때는 板門店 常設連絡事務所를 通하여 이를 通報하고 雙方은 各己 管轄地域을 責任지고 補修하며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內的 故障은 兩側이 共同으로 修理한다.

7. 秘密 保障

雙方은 通話內容의 秘密을 嚴格히 保障한다.

8. 修正 또는 補充

本 合意書의 內容을 修正 또는 補充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雙方의 合意에 依해서만 할 수 있다.

9. 有效 期間

本 合意書는 서로 署名하여 交換한 때로부터 發效하며 雙方의 合意에 따라 廢棄하기 前에는 繼續 有效하다.

1972年 7月 4日

서 울

中央情報部長 李 厚 洛

平 壤

組織指導部長 金 英 柱

調節委員長 演說文

—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 會議 —

朴成哲 공동위원장대리선생, 그리고 이자리를 빛내주신 平讓의 동포여러분!

지금 朴成哲 공동위원장대리선생께서 말씀하신 인사에 대하여 일부방법과 순서 절차의 見解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사실을 제 소견으로 전제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인 나와 나의 一行은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會議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平讓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오늘 이미 舊面인 平讓의 要路人士 여러분을 다시 뵈게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되는 바이며 또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우리 一行을 대표하여 깊은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南北調節委員會 雙方대표들은 다시 흥금을 터놓고 祖國과 民族問題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 교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견교환은 거듭되는 가운데 理解를 두텁게 하고 또 理解가 두터워지면 의견의 접근이 촉진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會談을 거듭한다는 것은 항상 改善을 약속하는 것이며 生産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 회의는 매우 귀중한 會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南北관계는 南北에 흩어진 離散家族 및 친척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고 또 한편 社會 文化와 經濟분야에서도 交流와 協力을 구현해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南北의 동포들이 이러한 南北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지혜롭게 맞이하는 것은 南北간에 理解를 두터이 하고 신뢰를 돈독히 하며 나아가 祖國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南北調節委員會는 이제 5千萬 겨레의 기대와 全世界人類의 주시속에 착실하게 會談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半世紀의 단절로 말미암아 南北간에 제기되어있는 여러문제들이 한 두번의 會談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南北의 同胞여러분도 分斷祖國이 안고있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한두번의 회담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조급한 期待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반복하거니와 會談이 거듭되는 가운데서 이해를 낳을 것이며 그렇게 조성된 相互間의 이해는 쌍방간의 의견접근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南北會談은 南北쌍방이 인내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여 會談을 거듭할때 성공이 기약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5千萬民族이 지켜보는 이 南北會談은 결코 파탄되어서는 안되며 또 民族의 念願을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戰爭이 없는 平和속에서의 繁榮을 지향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大潮流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共同委員長으로서 우리의 南北會談을 기어이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命題들을 엄두에 두고 투철한 民族的使命意識과 역사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會談에 임할 것이라는 나의 결의를 다시 한번 平壤의 同胞여러분에게 밝히면서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7.4南北共同聲明이라는 民族의 大憲章이 있으며 또 南北調節委員會라는 民族輿望의 南北會談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憲章과 會談기구는 南北의 우리동포들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에대한 공포를 기어이 몰아 내고야 말것이며 南北關係에 往來와 交流 그리고 協力을 실현하여 상호 깊은 이해와 두터운 신뢰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民族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統一을 가져 오고야 말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새해에도 北韓의 동포여러분에게 萬福이 깃들기를 빌고 또 南北調節委員會가 성공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을 비는 뜻에서 여러분 다같이 건배할 것을 제의합니다.

1973年 3月 14日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李 厚 洛

調節委員長 演說文

— 第 3 次 南北調節委員會 會議 —

● 朴成哲 共同委員長代理先生,

平壤에서 오신 貴하신 同胞 손님여러분, 또 來賓여러분!

오늘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會議를 이곳 서울에서 갖게 되어 南北이 이렇게 다시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 意義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南北간에 7·4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된지도 벌써 한달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南北관계의 進歩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겪은 6·25동란이라는 同族相殘과 4반세기에 공한 南北斷絶은 동족인 우리사이에 異民族처럼 많은 不信과 오해, 증오와 懷疑를 낳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냉철하게 음미함이 없이 한꺼번에 모든것을 잊고 「과거는 과거, 장차는 장차」로 단순한 환과정으로 쉽게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쓰라리고 깊은 民族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가 果然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하는 것이 祖國을 위해 가장 效果的일 것이냐 하는 問題를 이자리를 빌어 提起하여 서울側 共同委員長으로서 南北關係에 對한 나의 所信을 披瀝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南北 相互間에 不信과 誤解를 몰아내고 相互 理解와 信賴의 새로운 南北關係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위해 나는 우리쌍방이 7·4南北共同성명을 민족의 平和憲章으로 성실히 지켜 나가야하며 인도적 赤十字會談을 하루바삐 성사시켜 離散家族들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어야 하며 우리 南北調節委의 經濟分科委를 조속히 발족시켜 經濟人의 교류, 물자의 교류, 科學기술의 교류, 차원의 공동개발 商品전시회의 교환개최, 商社의 교환 常駐등 경제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치들을 실천에 옮겨야하며, 또 社會文化分科委를 조속히 발족시켜 남북간에 學術文化분야의 교류, 체육분야의 교류와 국제경기 단일팀의 구성, 영화—무대예술의 교류, 考古學과 민족사의 공동연구와 개발, 固有언어의 보존을 위한 연구, 각종 社會人士와 단체의 교류, 記者의 교류와 常駐, 서신 전화 전보등 통신의 교류, 관광분야의 교류등 社會的 공동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며 민족고유의 文化를 창달하는 사업

들을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라고 믿고있는 것입니다.

南北의 동포여러분. 나는 우리 南北쌍방이 이렇게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의 分野들을 개척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社會로 서로에게 완전히 개방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상호간에 不信과 誤解를 추방하고 남북간에 새로운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첩경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며, 그렇기때문에 南北상호간의 「相互社會開放」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앞서야 될 과제라는 나의 소신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 平壤側에서는 平和協定, 軍縮, 政黨—社會 단체인식회의 등 남북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것을 잘알고 있다. 나는 이 課題들이 언젠가는 南北간에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같이 우리의 南北관계는 남달리 비극적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은 방법들에 의해 상호이해와 신뢰의 바탕을 먼저 구축함이 없이 지금 당장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大事를 그르치기 쉽다는 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經濟와 社會·文化分野에서 廣範한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相互의 社會를 完全開放』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相互理解와 信賴의 바탕 마련을 위해 當面한 우리의 課題이며 또 南北關係의 참된 改善·發展을 바라는 우리 雙方의 誠實한 자세를 거례앞에 보여 줄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強調하는 바입니다.

南北의 現實에 비추어 볼때 쉬운 일부터 하나 하나 解決해 나가는 姿勢, 이것이 우리로서 바람직한 姿勢임에는 異論의 餘地가 없을 것입니다.

民族장래의 運命이 걸려 있는 큰 일을 하면서 쉬운 일을 버려두고 구태여 어려운 일에 執着하여 우리의 前進를 스스로 가로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朴成哲 共同委員長代理先生, 그리고 平壤에서 오신 同胞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러한 精神에 立脚하여 이번 會議에서야말로 南北關係의 前進를 위해 큰 成果를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며, 또한 여러분의 서울滯在가 즐거운것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자리에 參席하신 南北의 同胞여러분!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成功을 위하여 또 祖國의 統一을 위하여, 여러분, 다같이 乾杯합시다.

1973年 6月 12日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李 厚 洛

聲 明

—8·29 李厚洛共同委員長의 聲明全文—

南北調節委員會 金英柱 平壤側 共同委員長은 8월 28일 오후 6시 들인 聲明을 발표하고 『中央情報部가 金大中 납치 사건을 主謀하였다』느니,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인 본인이 『共同聲明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려 하지않고』 『말로는 완전개방을 떠들면서 실제적 대책을 취하는 것은 회피하며』 『반공정책을 강화하여 수많은 親共人士를 체포, 탄압하고』 『수많은 間諜을 잡아죽이며』 『國家保安法 위반자들을 체포, 구금했다』느니, 또 朴大統領 閣下의 6·23平和統一外交宣言이 『2個의 韓國을 統轄하는것』이라느니 하는 등등의 이유로 나, 李厚洛과는 南北調節委員會를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北韓側의 일방적인 성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7·4南北共同聲明의 정신에 입각하여 韓半島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南北關係를 개선발전시키며, 분단 조국의 자주적 平和統一을 모색하여 5千萬 民族의 영원한 복지와 번영의 길을 개척하려는 숭고한 목적아래 진행되어온 南北對話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北韓의 돌변한 태도는 단적으로 말하여 朴大統領 閣下의 6·23平和統一 外交宣言이 국내의 큰 지지를 받게 되고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그들의 입장이 非勢로 몰리게 됨을 자인하고 당혹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는 임시변통이며 平和를 지향하는 對話의 進行을 기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5월 2일 본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朴大統領 閣下의 뜻을 받들어 平壤을 방문하였으며 성의를 다하여 北韓측을 설득시킴으로써 南北對話의 通路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朴大統領 閣下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명백하게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韓半島에서 전쟁재발의 위험을 억제하고, 南北間에 平和的 關係를 定立하며 나아가 祖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본인이 北韓을 방문할 때 본인은 본인의 신분을 감춘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大韓民國中央情報部長이라는 직책을 분명히 그리고 뚜렷하게 밝혔으며 또 본인의 소임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를 다스리는 기관의 책임자라는 것을 金日成씨에게도 명백하게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金日成씨도 본인을 보고 『나는 공산당 잡는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밀지 다른 사람이 왔다면 불신입할 수도 있다』고 함축성있게 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왕의 일을 두고 볼 때 이제와서 그들이 反共法을 위반한 공산주의자들을 체포, 처벌한다 하여 本人을 『愛國志士를 처형하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논법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6·25전쟁의 도발자요, 따라서 수백만 동포를 虐殺한 北韓勞動黨, 그뿐 아니라 수많은 진정한 애국지사들을 소위 反動分子로 규정하여 무참히 처형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阿吾地炭鑛에서 죽음의 노동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노동당의 組織指導部長 金英柱와는 본인도 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역시 성립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民族의 대사에 감정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체 과거와 감정을 조율하여 오로지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對話를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北韓은 어제의 성명에서 본인과 또 大韓民國에 대해 7·4南北共同聲明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느니, 남북관계개선의 구체화에 반대했다느니 여러가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本人은 反問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南北調節委員會의 알차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南北調節委員會와 간사회의, 그리고 共同事務局 운영체제를 조속히 마련하자, 共同事務局을 조속히 발족시키자, 또 공동사무국 건물을 板門店에 공동으로 건축하자는 제의를 거듭했지만 이러한 제의를 외면한 쪽은 바로 北韓측입니다.

南北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바 있고 또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제 2차회의에서 상호 대남, 대북방송을 하지않기로 합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남 비방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것도 바로 北韓側입니다.

우리가 南北이 서로 사회를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쌍방이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것을 구체적으로 제의했으나 이것을 거부한 것도 바로 北韓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平壤측을 대표하는 共同委員長이라는 사람이 신병을 핑계로 한번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준 것도 바로 北韓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7·4南北共同聲明의 정신을 위배했고 南北間 합의사항을 위반했으며, 또 과연 누가 南北關係改善의 구체화를 가로 막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北韓측의 트집이야말로 바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朴大統領 閣下의 6·23平和統一外交宣言을 가리켜 「2개의 韓國」음모 운운이라고 헐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6·23선언이야말로 7·4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하여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祖國統一을 촉진시키려는 현실적인 평화통일정책인 것입니다.

만약 北韓이 공동성명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서 間諜를 남파시키지 않았던들 우리가 間諜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 北韓이 대남폭력혁명지령을 내려보내지 않았던들 반공보안사범의 걸거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작년 11월 平壤에서 金日成씨를 만났을때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이 필요없는 사회를 갖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北韓의 대남폭력혁명지령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아 말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그들이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말한 모든 문제의 씨앗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뿌린 것들인 것입니다.

본인은 확신하거니와 南北의 5천만 동포들은 평화적 祖國統一을 위한 民族의 대헌장인 7·4南北共同聲明의 전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平和를 갈망하고 統一을 염원하는 民族의 여망을 외면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민족반역행위로서 歷史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입장에서 北韓의 당국자들이 다시 한번 이성으로 되돌아가 7·4南北共同聲明의 기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할 소위 8월 28일자 성명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우리側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7·4남북공동성명의 精神에 입각하여 南北對話를 성실과 인내로 이끌어 감으로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거듭 國內外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1973年 8月 29日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李 厚 洛

大韓赤十字社 特別聲明

— 1971年 8月 12日 서울에서 —

四半世紀에 걸친 南北間의 障壁은 온갖 民族悲劇의 源泉이며 특히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들의 悲劇은 今世紀 人類의 象徴的悲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狀態는 人類愛와 災難의 救護를 爲한 봉사를 基本으로하는 赤十字精神을 구현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離散家族의 悲劇은 南北間의 障壁이 解消됨으로써 完全히 종식될 것이나, 이것이 短時日內에 이룩되기 어려운 現實下에서 적어도 一千萬 南北離散家族들의 實態를 確認하고 이들의 消息을 알려주며 再會를 앞선하는 「家族찾기 運動」만이라도 우선 展開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大韓赤十字社를 代表하여 赤十字精神에 따라 南北간의 순수한 人道的 問題들을 早速히 解決할 目的으로 北韓赤十字社에 대해 다음과 같이 提議합니다.

첫째, 南北간의 家族찾기 運動을 具體的으로 協議하기 위해 가까운 時日內에 南北赤十字社代表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會談할 것을 提議한다.

둘째, 本會談의 節次上的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十月안으로 「제비바」에서 豫備會談을 開催할것을 提議한다.

以上과 같은 우리의 提議에 대하여 北韓赤十字社가 放送 通信網 또는 國際赤十字社를 通해서나 餘他 可能한 方法으로 그 意思를 우리에게 傳達하여 줄것을 希望한다.

우리는 北韓赤十字社가 赤十字精神과 그 基本任務에 立脚하여 이러한 순수한 人道的 提議를 好意的으로 받아들일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 總裁 崔 斗 善

開 會 演 說 文

— 第 1 次 南 北 赤 十 字 本 會 談 韓 赤 首 席 代 表 —

代表團長 金泰熙先生, 代表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27년이라는 긴 歲月을 두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同胞 兄弟가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된 이 感懷와 기쁨을, 우리는 우리들 祖上靈前에 자랑스럽게 告하면서 기어이 열리고야만 이 첫 會談의 歷史的 瞬間을 지금 우리는 5천만 겨레와 온 人類앞에 뚜렷하게 傳하게 되었습니다.

國土가 兩斷되고 民族이 갈라져 살기를 어느덧 4半世紀, 分斷된 祖國은 기어이 統一되어야 한다는 엄숙한 民族의 召命앞에 우리는 마다할것이 없고, 또한 흩어진 父母兄弟가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어하는 哀切한 所願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 심경으로 우리 一行은 由緒깊은 平壤에 와서 오늘 여기에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지금 本人은 南녘 3천5백만 同胞들의 마음 속으로부터의 안부를 이곳 동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 뜻깊은 使命을 本人이 맨 처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또한 이 자리를 빌어 大韓赤十字社와 우리 代表團을 代表하여 第1次 南北赤十字會談을 이곳 平壤에서 開催함에 勞苦를 다하신 孫成弼委員長을 비롯한 關係諸位에게 深甚한 感謝의 뜻을 表하며 또 우리 代表團一行을 따뜻이 맞이해 주신 여러분들의 親切에 대해 기쁜 마음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瞬間 悠久한 民族史에 새로운 章을 記錄하기 始作합니다.

그 누가 記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記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各其 갈라져 앉은 南과 北의 代表이기 보다는 民族과 歷史앞에 民族的 課業을 遂行할 役軍으로서 榮譽로운 會談에 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야호로 世界의 關心과 人類의 注視속에서 우리 民族의 슬기로운 傳統을 誇示하며 건전한 自主性을 實證시켜 民族史의 榮光스러운 한 페이지를 記錄해야 하는 聖스럽고도 무거운 使命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베올로지」와 「體制」는 時代에 따라 變할 수 있지만 民族은 永遠한 것이기에 먼 後代에 오늘의 南北赤十字會談은 과연 赤十字人들로써 슬기롭게 進行되었고 그 成果가 끝내는 祖國統一을 위한 보

람찬 礎石이 되었다고 길이 길이 새겨지도록 우리는 다같이 敬虔한 使命意識과 民族的 自覺으로 이 會談을 進行해야 할 줄 압니다.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南北赤十字間의 對話가 始作된지 1年이라는 긴 歲月이 흘렀습니다.

歴史的인 오늘의 이 會議을 열기위한 豫備會談이 雙方의 誠實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滿1年이라는 歲月을 必要로 하였다는 그 事實이 무엇보다도 잘 立證하듯이 27年이라는 오랫동안의 斷絶狀態가 낳은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이 現實로서 우리 앞에 存在한다는 것을 否認못할진대 우리는 本會談 當事者로서 이와같은 現實을 率直이 認識하면서 더욱 차근차근히 말겨진 問題들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할수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南北의 障壁을 허물어 뜨리는것 以上으로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率直이 살피건대 南과 北은 障壁을 사이에 둔채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고 서로 不信속에 살아왔으며 友好가 아닌 緊張과 對峙의 狀態로 持續되어 온 것이 事實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現實 앞에서 우선 不信으로부터 相互信賴를 回復시켜야 하겠고, 緊張과 對立으로부터 和解의 霧圍氣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와같은 우리의 當面課題를 成就하기 위하여서는 그 目的과 命題를 設定하는 것만이 重要的인 것이 아니고 이를 成就하려는 그 過程에서의 相互協調의 努力이 더욱 重要的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本代表는 豫備會談에서 合意採擇된 目的과 命題, 即 本會談의 議題들을 成就하기 위한 그 討議過程에서의 相互努力의 基盤으로 삼을 우리들의 本會談에 臨하는 基本姿勢에 관하여 所信을 밝히고자 합니다.

議題들은 우리 同胞들의 懇切한 所願을 集約한 것이며, 또한 밖으로는 第18次에서 第20次에 이르는 赤十字國際會議 決議의 精神을 反映시킨 內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議題들의 妥結은 1千萬 離散家族과 5千萬同胞들의 念願일 뿐만 아니라 赤十字精神을 信奉하는 全世界人類의 興望이기도 합니다.

本會談에 臨하는 우리의 基本姿勢로서 本代表가 強調하고자하는 點은 무엇보다도 우리 雙方代表團은 赤十字人의 立場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貴 赤十字會 代表도 이미 板門店 豫備會談에서 『雙方赤十字團體들의 任務로 말한다면 헤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苦痛을 덜어 주며 끊어진 겨레의 핏줄을 잇는 事業보다 더 큰 일이 또 어디있겠는가』라고 闡明한바 있습니다.

이 會談이 그와같은 赤十字 本然의 使命과 任務에 充實하고 人道主義精神에 立脚하여 事業을 推進할때 會談의 展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雙方 代表團이 始終一貫 誠實과 忍耐를 갖고 서로 信賴하고 서로 理解하는 姿勢가 重要하다는 점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會談은 서로 相對方이 있는 만큼 異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相互理解의 마음가짐으로 諸般問題를 討議한다면 반드시 모든 問題는 圓滿히 解決될 것이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한 本人은 現實的으로, 그리고 段階的으로 事業을 推進하는 것이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는 捷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27년간 겪은 쓰라림을 可能的 일부터 하루라도 速히 덜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使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半世紀동안 斷絶되었던 南北의 對話가 赤十字精神을 통하여 이어져 온 道程에서 우리 民族은 지난 7월 4일 歷史的인 「南北共同聲明」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7·4南北共同聲明」은 4半世紀동안 갈라졌던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자는 南과 北의 基本的 立場을 뚜렷이 하였습니다.

平和的 祖國統一의 原則을 確認하고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여 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해서는 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않는다고 約束한 이 共同聲明의 精神이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勿論 將來 모든 境遇에도 받아들여지고 또한 遵守되어야 할 것입니다.

南北赤十字會談의 基本精神도 이에 相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입니다. 如何한 方式이건 結果的으로 「民族的 大團結」을 害치는 中傷·誹謗은 民族的 수치를 招來하는 以外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難關이 있어도 5千萬 겨레에게 다시는 失意와 落望을 주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代表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오랫동안 南北으로 갈라져 살아왔지만 같은 말, 같은 歷史, 그리고 같은 피로 이어져 온 同胞인 것입니다.

秋夕과 歲時마다 血肉을 잃은 무덤만이 쓸쓸하게 늘어가고 故鄉을 잃은 젊은이들, 이제는 人生의 黃昏길에 서서 父母와 兄弟를 생각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슬픈 事緣과 괴로움을 지닌 안타까운 心情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赤十字精神과 人道主義에 立脚한 우리의 會談이야말로 그 結果로써 우리 同胞들의 괴로움을 꼭 덜어 주고야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始作한 聖스러운 課業은 우리들 祖上의 넋이 길이 지켜보며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代表 여러분!

우리는 勇氣와 忍耐와 智慧와 互讓으로써 이제 離散家族들의 슬픔을 기어이 지워 줄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本人은 다음과같이 提請하면서 本人의 演說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南北赤十字會談에는 「勝利」와 「敗北」「得」과 「失」이없으며 단지 歷史와 民族앞에 서로가 얼마나 忠實한가 그것만이 있을뿐입니다.』 感謝합니다.

人 事 文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接見時—

오늘 歷史的 使命을 갖고 平壤으로부터 먼 길을 달려 이곳에 到着하신 金泰熙團長을 비롯한 代表 隨行員, 記者團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합니다.

여러분이 崇高한 赤十字精神과 따뜻한 同胞愛로서 離散家族들의 애타는 念願을 풀어주며, 이들間의 血肉의 情을 이어주는 聖스러운 課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반가운 마음 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代表團 一行이 지난 第1次 本會談을 위하여 平壤에 머무는 동안 孫成弼委員長을 비롯한 여러분과 그리고 關係人士들이 따뜻하고 精誠어린 歡待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誠意있는 協調로서 우리 代表團이 不便없이 所任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大韓赤十字社도 여러분께서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不便한 點이 없도록 誠意를 다 할 것입니다.

부디 얼마 안되는 滯留期間이나마 보람있고 즐거운 會談日程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本人은 雙方 代表들이 그간 여러가지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業績을 쌓아 올린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勞苦를 다시 한번 致賀해 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第2次 本會談에서도 더욱 빛나는 成果를 거두리라고 確信합니다.

우라 赤十字人들은 1千萬 離散家族과 親戚들의 切實한 念願과 겨레의 所望을 切感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이 聖스러운 人道的 事業을 成就하도록 努力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努力의 成果는 民族의 團合과 祖國統一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우리의 先人들이 남긴 빛나는 業을 되살려 子孫萬代에 길이 남길 歷史的 業績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健康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2日

大韓赤十字社 總裁

祝賀 演說文

—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 —

親愛하는 南北赤十字 代表團, 그리고 記者團 여러분!

5千萬 겨레의 興望과 全世界의 耳目이 集中되어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이 우리 民族의 心臟이며, 歷史的 首都인 이곳 서울에서 開催되는 오늘,

本人이 大韓赤十字社 總裁의 資格으로 祝辭의 序頭를 裝飾하게 된데 對하여 크나큰 榮光으로 생각 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金泰熙團長, 그리고 北韓에서 오신 代表團, 諮問委員, 隨行員과 記者 여러분!

本人은 먼저 平壤으로부터의 먼길을 오로지 崇高한 赤十字精神과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 주려는 뜨거운 同胞愛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며, 아울러 이곳 3千5百萬 國民의 同胞愛에 넘치는 뜨거운 歡迎을 傳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代表團一行이 北韓땅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北韓赤十字會 孫成弼 委員長을 비롯한 關係人士 여러분의 따뜻한 配慮에 對하여 再三 感謝의 뜻을 表하여 마지 않습니다.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것도 없이 赤十字事業은 피비린내 나는 戰爭터에서 負傷者들에 對한 國際的 救護團體의 設立으로부터 그 誕生을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敵과 我軍이 없고 오로지 救護를 기다리는 人間이 있을 뿐이며, 누가 옳고 그르코를 따지기에 앞서 高貴한 生命을 救하려는 崇高한 人類愛가 있을 뿐입니다.

人類愛를 바탕으로 한 「人道主義」가 赤十字의 基本精神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公正」과 「中立」이 赤十字의 姿勢이며 결코 어떠한 代價도 바라지 않는 희생적 「奉仕」가 바로 赤十字의 行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今年의 赤十字 世界標語는 “人道의 架橋”입니다.

그것은 文字 그대로 모든 곳에 人道主義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國境을 超越하고, 人種을 超越하고, 宗教와 文化와 言語의 差異를 超越하여 人間과 人間 사이에 斷絶된 곳이 있으면 이 世上 어느곳에는 人道主義의 다리를 놓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南北赤十字 關係人士 여러분!

이 人道主義의 架橋를 가장 빨리, 가장 成功的으로 놓은 것은 바로 우리들 南北赤十字人들이라고

本人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난해 8月 12日 前任 崔斗善 總裁의 “家族찾기” 提議는 北韓赤十字會의 熱烈한 歡迎속에 受諾되었으며, 滿 1年間에 걸친 兩側 赤十字人들의 꾸준한 努力과 5千萬 民族의 뜨거운 聲援은 드디어 4半世紀에 걸친 두터운 障壁을 뚫고, 또 險峻한 溪谷을 넘어 서울과 平壤사이에 「人道의 架橋」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大韓赤十字社 代表團과 報道陣 54名은 平壤으로 갔으며 그곳에서의 4泊 5日은 우리 겨레가 결코 헤어져 살 수 없는 한 핏줄이라는 것을 皮膚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北韓赤十字會 여러분은 또다시 이 다리를 건너 이곳 서울에 와서 뜨거운 同胞의 情으로 무릎을 맞대고 앉은 것입니다.

이 다리는 앞으로도 南과 北으로 흩어져 살며 애타게 그리는 父母 兄弟와 姉妹들이 서로의 消息을 알고, 便紙를 주고 받으며 다시 만나는 เบิก찬 기쁨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南北赤十字 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南北의 5千萬 同胞 여러분!

本人은 이 자리에서 어둡고 괴로웠던 過去 27年間の 斷絶된 歷史를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뜨거운 同胞愛와 民族的 使命感으로 連結된 이 架橋를 마련한 오늘날 우리 겨레의 앞날에는 빛나는 曙光과 밝은 希望이 가득차 있기에 不信과 對立으로 얼룩진 쓰라린 過去는 모두 옛 이야기로 묻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1972年 9月 13日, 오늘은 우리 겨레의 자랑스럽고 굳건한 自主的 力量을 全世界에 誇示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後世의 歷史는 이날 바로 이 자리를 祖國統一로 向하는 굳건한 다리를 놓은 뜻깊은 날이라고 記錄할 것입니다.

5千萬 겨레가 夢寐에도 잊을 수 없는 念願인 祖國統一의 大業은 赤十字會談이 이루어 놓은 이 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南北赤十字會談을 通하여 우리는 서로 信賴하고 서로를 理解하는 마음의 氣風을 바로 잡고 民族的 使命感에 불타는 誠實한 役軍으로서의 姿勢를 確立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마음과 姿勢가 바로 統一의 礎石이 됨을 銘心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의 差異點을 찾아서는 아니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서로의 共通點을 찾아야 할 자리입니다.

展望이 뚜렷하지 못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確實히 可能한 일을 앞세워야 하며 理念과 體制를 달리 함에서 派生된 여러가지 얽히고 설켜진 問題들은 同胞의 情으로써 解決될 수 있는 問題의 뒤에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現時點에 있어서 南北間의 最大公約數이며 共通分母는 흠어진 家族들의 苦痛을 덜어 주자는 赤十字會談입니다. 그리고 이 赤十字會談이 우리가 온갖 精誠을 다 기울여야 할 南北間의 關門인 것입니다.

親愛하는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그리고 記者團 여러분!

首都 서울에서 가지는 赤十字會談의 歷史的 意義와 四半世紀의 斷絶을 건너 서울에 오신 여러분의 感懷에 比하여 4泊 5日의 日程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3千5百萬 國民이 한결같이 간직 한 曷찬 感激과 뜨거운 同胞愛를 여러분에게 表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期間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짧은 滞在속에서도 여러분이 願하시는 그 어느곳이나 案内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물어질 수 있음을 約束드립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 어느 곳에서나 우리 國民의 뜨거운 歡迎과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바라건대 모든 所任을 다 마치고 돌아 가시는 날 北녘에 계시는 1千5百萬 同胞에게 다음과 같이 傳하여 주십시오.

“南녘에 있는 3千 5百萬 同胞들이 感懷깊고 精誠어린 安否를 傳하며 아울러 이 赤十字會談이 成功的인 結實을 맺어 서로가 일싸안은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고...”.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3日

大韓赤十字社 總裁

歡 迎 人 事

— 第 2 次 南 北 赤 十 字 會 談 —

金泰熙團長先生, 그리고北韓에서 오신 同胞 여러분!

本人은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으로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이 자리를 마련 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分斷된 民族의 苦痛을 解消하는 길을 摸索하기 爲해 27年間 우리서로를 가로막아 온 障壁을 넘어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歡迎의 人事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27年前, 남의 힘에 依해 남의 나라의 壓制에서 풀려난 우리는 다시 남의 힘에 依해 國土가 兩斷되는 悲運을 겪어야 했습니다. 國土의 兩斷은 單純히 國土의 分斷에 그치지 않고 民族의 分斷마저 招來하였습니다.

이러한 國土와 民族의 分斷은 끝내는 同族相殘의 淒慘한 戰禍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에 걸쳐 南北으로 韓半島를 휩쓸고 오르내린 이 戰禍는 南北의 우리 民族에게 數 많은 人命의 被害와 헤아릴 수 없는 財産의 損失을 안겨 주었으며, 1千萬이라는 離散家族을 남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同族相殘의 戰禍는 人命의 被害나 財産의 損失이라는 有形的悲劇에 그치지 않고 民族의 分斷을 더욱 深化시키는 無形的悲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戰禍의 廢墟위에 雜草처럼 자라난 같은 民族끼리의 反目·中傷·不信·憎惡·相互否定等 民族感情의 乖離現象을 말하는 것입니다. 戰塵이 걷히고난지도 이미 20個 星霜이 지났지만, 戰禍가 썩부리고 잔 이러한 不幸한 遺産은 오늘까지도 持續되고 더욱 뿌리를 내리어 純粹한 單一民族으로 5千年的의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民族의 同質性마저 威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戰後 거의 한 世代에 該當하는 歲月이 흘러간 오늘까지 흘러진 家族들과 完全히 斷絶된 가운데 살고 있는 1千萬 離散家族의 苦痛이야말로 哀切하기 이를데 없는 事緣인 것입니다.

이러한 分斷과 相殘은 南北間에 수 많은 障壁을 쌓아 올렸으며, 이 障壁들은 날이 갈 수록 높아지기만 해왔습니다. 韓半島의 허리를 가로지른 地理的인 障壁은 結局 思想의 障壁·理念의 障壁·體制의 障壁·價值觀의 障壁·社會生活上의 障壁等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술한 障壁들을 또 쌓아 올려, 우리들 서로의 사이를 더욱 깊게 갈라 놓고야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障壁들을 하나 하나 허물고 分斷되기 前의 한 民族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嚴肅한 歷史的 使命感 속에서 南北對話를 始作하였습니다.

南北의 同胞 여러분!

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同族相殘의 悲劇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누가 果然 이에 對한 責任을 져야 하느냐를 새삼 따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四半世紀의 歲月의 斷絶속에서 虛送해야만 했던 우리에게 이제 過去의 잘 잘못을 따지고 닦할 時間이 없습니다. 只今の 우리는 보다 改善된 條件속에서 우리 共同의 未來를 함께 設計하기에만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南北間에 쌓인 四半世紀의 障壁들을 除去하려는 우리의 對話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行動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과 行動이 一致할 때 비로소 結實을 期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眞理인 것입니다. 앞으로 南北對話를 펼쳐나가는 過程에서 우리가 追求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言行을 一致시켜나가는 誠實性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입니다.

對話가 理解를 낳고, 理解가 信賴를 낳을 때 南北間에 쌓인 障壁들은 하나 하나 무너져 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南北間의 理解造成과 信賴回復의 聖스러운 橋梁役割을 맡고 나섰습니다. 이 聖스러운 課業의 完遂를 爲해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相互誠實과 忍耐 그것입니다.

7·4 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誕生한 南北調節委員會와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爲한 南北赤十字會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分斷民族은 四半世紀의 暗鬱했던 過去를 떨어버리고 밝고도 希望찬 未來를 期約하는 慶事스러운 새 轉機를 마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離散家族의 哀切한 苦痛을 人道主義의 次元에서 덜어주려는 이 南北赤十字會談을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南北間에 現存하는 어떠한 障壁도 意識해서는 안되며, 또 이러한 障壁을 意識하지 않을 때 會談은 비로소 順調로운 進展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 南北調節委員會는 7·4 共同聲明에서 分明히 밝힌 바와 같이 南北赤十字會談의 成功을 爲해 온갖 努力을 다할 것이며, 또 南北赤十字會談은 반드시 成功하여 四半世紀의 悲願의 하나인 離散家族의 苦痛을 기어코 덜어주게 될 것임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南北의 同胞 여러분!

二次世界大戰後 國土와 民族이 分斷되는 悲運에 處한 民族이 비단 우리 民族만은 아닙니다. 또 이들 分斷民族들이 그들의 分斷狀態를 終熄시키는데 成功한 事例를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事實들을 勘案하면서,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다짐을 나눌 것을 提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半萬年歷史는 우리 民族이 굳게 다져진 하나의 礎를, 하나의 柱이며 地球上에 存在한 어느 民族보다도 優秀한 民族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祖上들의 矜持에 찬 叡智를 이어받아 우리도 한번 民族史의 偉業을 함께 이룩해 봅시다.

모든 難關을 오로지 誠實과 忍耐와 同胞愛로 突破하고, 只今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南北對話를 어떻게든 成功시킵시다.

그리하여 “남의 힘에 의해 分斷되어 四半世紀를 살았던 한 民族이 스스로의 힘으로 再結合을 이

록했다”는 자랑스러운 記錄으로 20世紀 人類文明史의 한 페이지를 裝飾해 봅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地球上 모든 分斷民族들이 民族分斷의 悲劇을 克服하는 知慧를 우리에게서 얻도록 합시다.

金泰熙團長先生, 그리고 北韓에서 오신 同胞 여러분!

本人은 여러분이 서울에 滯留하시는 동안 부디 便宜하게 지내시고 우리 社會의 모든 구석을 골고루 돌아보아, 우리에게 對한 많은 理解를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마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愉快한 日程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4日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李 厚 洛

歡 迎 激 勵 辭

—北韓赤十字會 代表團을 위한 晚餐—

南北赤十字人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같이 해 주신 여러분!

특히 金泰熙團長을 비롯한 北녘에서 오신 代表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國民을 代辯하는 國會의 重要幹部들입니다. 與·野의 副議長이 나와 계십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國會는 贊成과 反對의 自由가 無制限 保障된 國政討論의 殿堂입니다. 執權黨과 反對黨을 代表하는 兩黨 院內總務가 여러분을 歡迎하기 위해 이자리에 參席하였습니다. 온 國民의 이름으로 北녘 同胞여러분을 맞이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會談代表 여러분!

다시 한번 앉은 자리의 周圍를 살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닮은 얼굴들입니다. 하나같이 흠잡을 곳 없는 兄弟들입니다. 祖上이 가르쳐 주신바 바로 그 솜씨로 빨간 김치가 있고 다섯가지 산나물 그리고 떡도 빛은 두집한 食卓앞에 우리는 가득찬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밤 여러분 앞에 선 六旬의 이 가슴이 이토록 벅찬 뜻을 아십니까.

27年間을 뿔어졌던 血肉이 다시 이어진 이자리에서 脈搏치지 않은 者의 이름은 分明 倍達人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鼓動치고 있는 것입니다.

限없는 激勵를 보내드리고 싶은 金團長, 李範錫首席代表, 그리고 이자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들의 相逢은 偶然이 아니라 必然입니다. 기어이 만나고야 말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7·4 南北共同聲明은 서로의 憂鬱한 對立을 清算하고 光明의 來日을 追求하려는 民族正氣의 復活이요, 赤十字會談은 歷史앞에 宣揚한 人類良心의 表現입니다.

南北分斷이란 悲劇的 狀況에 終止符를 찍기 위한 겨레의 巨創한 품부림은 始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民族的인 召命作業에 발벗고 나선 先驅者들입니다.

서울과 平壤은 가깝고도 먼 「차더찬」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힐듯이 가깝고 「뜨거운」 길입니다. 不信과 對立은 信賴와 和解로 바뀌어 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서로 빛나간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서고 있는 터입니다. 南北赤十字人여러분의 精誠으로 建設된 人道의 架橋는 아무리 모진 비바람에도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二十九日 大韓赤十字社 會談代表一行이 平壤으로 가던날 統一路에서 板門店을 잇는 街道와 언덕은 望鄕의 발돋움으로 봄볏입니다.

四半世紀前의 새 파란 젊음도 주름잡힌 半白되어 赤十字깃발에 悲願을 실어 보내던 수 많은 離散家族들의 눈시울의 焦點은 北녘땅이었습니다. 었드려 父母兄弟의 安寧을 祈禱하는 모습에서 分斷의 서러움과 血肉의 값짐을 함께 배웠습니다.

報道를 통해 傳해진 平壤消息에 南녘의 同胞들은 時間가는 줄 몰랐습니다. 託兒所의 귀여운 것들이 재롱떠는 품은 정녕 이땅의 孫子들이었으며 옛모습 그대로의 善竹橋는 가신님에 대한 모두의 丹心을 새삼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서울求景 하고 싶다는 開城少女의 구김살없는 所願이 어찌나 南녘 아버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草木 한그루도 잘생긴 모습은 우리를 호뭇하게 하였습니다. 北에 자리 하거나 南에 있거나 그것은 民族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南北赤十字會談代表 여러분!

그 누구도 拒逆할 수 없는 天倫이 南과 北을 잇고 있거늘 감히 어떤 힘이 우리를 영영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莫重한 課業은 끝내 失敗를 모를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名分없는 固執으로 모처럼의 名譽로운 對話를 명들게 한다면 民族史 앞에 얼굴을 못들게 될것입니다. 이미 당신들은 歷史에 登錄된 證人들입니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歷史의 法則은 正直합니다.

잘못된 歷史의 責任은 全的으로 人間이 져야하는 것이며 歷史自體가 負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會談成功을 위해 여러분들의 姿勢는 始終一貫 人道的인 次元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政黨社會團體의 介入等「政治의 作用」은 會談精神의 純粹性を 잃게하여 우리의 念願을 깨뜨리게 될것이라는 나의 忠告를 밝혀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代表 여러분!

이미 民族의 이름으로 決定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役割은 聖스러운 것입니다. 華麗한 言語보다는 소탈한 行動이 더욱 要緊합니다. 백번의 다짐보다는 단한번의 行爲야말로 더욱 참된 것입니다. 혼자서 決定하기란 쉬운법이며 한층 迅速합니다. 두사람이 하나의 決定을 내리기 보다 세사람이 모여앉는 決定의 過程은 散慢할는지 모릅니다. 구차스럽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多數의 論議는 더욱 智慧로운 決定을 保證할 것입니다.

여러분!

흘어진 血肉들의 끝없는 사연들을 하나같이 所重히 다루어 別離의 아픔을 아물게 하는 그일, 그것은 救援의 길이요 同胞愛의 發露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秋夕節입니다. 省墓길이 베풀릴 것입니다. 祖上의 넋앞에 큰절 하는 이날이면 斷

腸의 失鄉曲이 더욱 사무칠 것입니다. 來年 이맘때면 흩어진 家族들의 消息이 自由롭게 南北을 오가는 秋夕맛이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합니다.

아직은 오솔길이지만 27年間 막혔던 길은 터졌으니 썩된일 싫다않고 구비마다 誠心誠意를 다하여 一千萬 離散의 怨恨을 풀어줄 것을 約束합니다. 그리하여 五千萬의 念願을 바라봅니다.

親愛하는 代表여러분!

五千萬이 뭉치는 날 敢히 누구도 우리를 알보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五千萬의 合唱은 움트기 始作하였습니다. 우리의 課業은 分裂이 아니라 結合입니다. 民族의 哲學은 統一이어야 할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치던 指導者의 목소리가 꺾전을 울립니다.

뭉쳐서 東方의 燈불을 다시 밝힙시다.

나는 大韓民國國會의 이름을 빌어 5千萬 祖國의 首都에서 다음과 같이 提請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國旗는 둘일 수 없으며 우리의 國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五千萬 民族앞에 嚴肅히 다짐합니다.

그리고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도록 겨레의 同質性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또하나의 다짐을 世界에 소리높혀 宣言합니다.』

南北會談의 成功과 民族의 繁榮을 위하여 祝盃를 높이 듭시다.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5日

國會議長 白 斗 鎮

首席代表 演說文

—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 —

北韓赤十字會 代表團長 金泰熙 先生, 代表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신 大韓赤十字社 總裁님, 任·委員, 內外 貴賓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드디어 首都 서울에서 南北赤十字會談 第2次 會議를 갖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이 時間, 本人은 먼저 平壤으로부터 먼 길을 오신 代表 여러분에게 大韓赤十字社와 우리 代表團의 이름으로 따뜻한 歡迎의 뜻을 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平壤에서의 會談과 나흘 머무는 동안에 北韓赤十字會가 베풀어 준 親切과 歡迎에 對하여서는 本人이나 一行이 모두 感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이곳 3千5百萬 同胞들도 서로가 和氣에 싸인 平壤消息을 호뭇하게 생각했으며 서울에 오신 代表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하면서 우리의 會談을 注視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世上에서 住所를 적고 郵票를 붙여도 配達되지 않는 斷絶된 곳이 단 한군데 있었다면 그곳이 바로 이나라 南北 사이의 높은 障壁 넘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8月 29日, 비록 住所가 적히지 않고 郵票가 붙지는 않았으나 數많은 哀切한 事緣을 가지고 높은 障壁의 門을 넘어 平壤에 갔었고, 여러분들도 또한 오늘 住所와 郵票가 없는 數많은 그곳 겨레들의 事緣을 안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數千萬의 同胞들은 바로 그 事緣들을 27年동안 듣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 同胞들의 熱望과 聲援을 우리 代表들은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代表團 一行이 平壤으로 떠나 가고 돌아오던 날도 그러했거니와 바로 어제 여러분들이 板門店을 넘어 首都 서울에 오는 동안 道路沿邊에서 南北赤十字會談 代表들을 歡迎하는 同胞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會談의 成功을 祈願하는 그 모습과 期待에 찬 그 눈동자는 길이 길이 우리의 腦裡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고 27年間이나 冷酷한 緊張과 對峙狀態에 놓여 있던 南과 北에서 오고 가는 代表이기에 앞서 우리들은 南北으로 흩어져 있는 1千萬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爲하여 崇高한 赤十字 精神에 透徹한 赤十字의 代表 이기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는 實踐에 옮기기 爲하여 오고 가는 길이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歡迎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代表 여러분!

果然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祝福과 우리의 겨레, 그리고 全人類의 期待와 聲援속에서 偉大한 새 歷史의 創造를 爲한 巨步를 내 디디기 始作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第1次 會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자리에 각기 갈라 앉은 南과 北의 代表이기 보다는 民族과 歷史앞에 나란히 앉은 民族的 共同課業을 遂行할 役軍으로서 이제부터 悠久한 民族史에 새로운 章을 우리들의 손으로 記錄하기 始作합니다”라고.

平壤에서 開催된 第1次 南北赤十字 會談에서 우리 雙方代表團이 記錄한 새로운 民族史의 第1章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雙方 代表團은 過去 南北間에 存在하였던 不信과 緊張狀態를 信賴와 和解의 雰圍氣로 이끌어 감에 크게 寄與하였고 雙方 代表團은 赤十字本然의 使命과 任務에 忠實하였으며 그리고 雙方 代表團은 相互理解의 마음가짐으로 諸般問題를 誠實히 討議하여 앞으로의 會談推進을 爲한 基礎를 훌륭하게 이룩하였다”고.

우리는 이와 같이 記錄하고 平壤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서울서 다시 맞이하여, 새로운 民族史의 第2章을 記錄하려는 刹那입니다.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爲한 南北赤十字會談은 7·4 南北共同聲明과 더불어 眞實로 民族史의 새로운 記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時時刻刻으로 變遷하는 國際潮流속에서도 우리 民族만이 해낼 수 있다는 矜持를 가슴에 안고 우리는 民族的 叡智와 力量을 發揮하여 우리 民族의 悲劇을 우리 民族 스스로의 손으로 解決한다는 民族的 自負心과 覺悟를 갖고 우리는 毅然히 일어섰습니다. 人間 本然의 慾求를 채우려는 民族의 意志를 그 누가 敢히 꺾을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와 같은 民族의 意志를 赤十字 精神으로 이어받아 새로운 民族史의 第2章을 記錄하기 始作합니다.

代表 여러분!

우리 雙方 代表團은 옷깃을 여미고 우리에게 주어진 使命과 任務를,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事業의 領域을 다시 한번 直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南北赤十字會談이 赤十字會談의 本 領域에서 벗어나 雙方이 合意한 議題 以上の 問題들을 너무도 躁急히 擧論하는 것은 우리 會談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서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率直히 말해서 우리 民族 누구에게 물어도 祖國統一이 一刻이라도 앞당겨 成就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7年이라는 斷絶狀態가 빚어낸 여러가지 難問題가 現實로서 嚴然히 存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칫 會談의 雰圍氣를 그르칠지도 모를 飛躍된 論議는 自重 自制되어야 하며, 때로는 會談을 에워싼 非肯定的 周邊要素들에 對하여서는 일부러 外面해야 하는 配慮마

저도 必要로 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相互信賴와 誠實한 努力으로 이 赤十字會談의 軌道가 順坦하게 이어져 간다면 언젠가는 다음 段階의 歷史的 課業의 軌道로 連結될 것임을 믿어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

代表 여러분!

우리 雙方 代表團은 平壤에서 가졌던 第1次 會談에서 앞으로의 會談進行에 關한 서로의 基本姿 勢와 立場을 밝히면서 本 會談의 成功을 다짐하였고 우리는 平壤에 머무는 동안 公式的인 會談에서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接觸과 對話를 通하여 相互理解의 雰圍氣 造成을 爲한 努力을 傾注하였읍 니다.

이와 같은 努力은 第2次 會談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용히 그러나 着實 하게 進行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平壤에서 가졌던 第1次 會談과 서울에서 가지는 第2次 會談을 通하여 漸進的으로 쌓아올린 相互理解와 信賴의 雰圍氣를 바탕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會談에서부터는 南北으로 흩어 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所願을 풀어주기 爲한 보다 實質的인 討議에 들어가 하루빨리 우리 雙方 代 表團에게 맡겨진 任務를 遂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討議 解決하기로 이미 合意한 다섯가지 議題는 南北 雙方 代表團 사이에 그 議題 하나 하 나에 對한 眞摯하고도 細密한 討議를 거쳐야만 實踐에 옮겨질 것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會談의 보다 빠른 進展을 爲하여 本 代表는 이 자리를 빌어 將次 討議해 나갈 다섯가지 議題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適用되어야 할 基本 原則을 밝혀 두코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 雙方이 推進하는 事業의 모든 分野에서 반드시 尊重되어야 할 것은 事業對象인 離 散家族과 親戚들의 “自由意思”의 保障입니다.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나 當事者 個個人의 自由意思에 違反되거나 그들의 安全을 害치는 處事는 容納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南北赤十字 會談에서 推進되는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爲한 모든 事業들은 반드시 雙方赤十字社의 主管과 責任下에 “獻身的인 赤十字 奉仕精神”에 立脚하여 遂行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各議題에 例示된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國際赤十字의 傳統的이고 普遍的인 事業方式 을 基盤으로 하여 “迅速하고도 正確하게” 遂行되어야 한다는 點입니다.

以上 세가지의 基本原則이 앞으로의 實質的 討議에 適用될때 우리의 事業은 더욱 效率的으로 推 進될 것임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代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난날 歷史의 한 瞬間에 人爲的으로 갈라 놓은 民族分裂과 國土兩斷의 엄청난 悲劇은 想起조차 하기 겨웁습니다. 그러나 이 悲劇의 幕은 내려지고 民族을 새로 團合하며 祖國은 다시 平和的으로

統一해야 한다는 우리 民族의 念願을 우리는 반드시 成就시켜야 하겠습니다.

나는 率直히 말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南北赤十字會談이 決코 容易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겠다는 굳은 意志 앞에는 아무도 그 길을 막지 못한다는 人類歷史의 鐵則을 本 代表는 믿고 있습니다.

將次 우리 앞길에 如何한 難關이 다가 서더라도 우리 雙方 代表團이 赤十字人으로서의 矜持와, 自負와, 誠實과, 忍耐를 갖고 서로 信賴하고, 서로 協調하면 반드시 우리의 任務는 圓滿히 解決될 것이라는 것을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슬기로운 民族, 보람찬 祖國의 앞날에는 希望이 넘칩니다.

우리는 다 함께 1千萬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 주는 聖스러운 事業의 誠實한 길잡이가 되어 봅니다.

平壤에서 오신 代表 여러분과 一行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愉快한 日程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3日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首席代表

演 說 文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 祝賀演說—

南北赤十字 首席代表 및 代表 여러분!

그리고 이 會議에 參席하신 雙方의 諮問委員과 隨行員 여러분!

지난 8月 30日 平壤에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苦痛을 하루 速히 풀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의 議題를 採擇한데 이어 오늘 또 다시 서울에서 雙方代表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理念과 思想과 制度의 障壁에도 不拘하고, 南北으로 흩어진 父母 兄弟들과 親戚들의 외로움과 苦痛을 덜어 주겠다는 南北赤十字人들의 굳은 決意의 證據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四半世紀동안, 우리 겨레는 너무나도 눈물겨운 苦難과 慘酷한 試鍊을 겪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家族과 親戚들이 南北으로 흩어지게 서로 消息도 모르고 苦痛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事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大韓赤十字社는 南北間의 理念的 差異에도 不拘하고 우선 갈라진 血肉의 苦痛부터 덜어주는 것이 時急하다는 事實을 痛感하여,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을 찾아주는 運動을 벌일 것을 提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一年間에 걸친 豫備會談에서 雙方의 꾸준한 努力의 結果로 지난 8月 30日 第1次 南北赤十字會談이 開催됨으로써 우리는 온 世界의 關心과 五千萬同胞의 懇切한 期待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人道的 目的을 成就하고 말겠다는 굳은 決意를 行動으로 立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야흐로 우리 民族史에 길이 빛날 聖스러운 課業을 오로지 忍耐와 誠實로서 이끌고 나갈 것을 五千萬 겨레 앞에 嚴肅히 約束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미 가신 祖上의 靈魂앞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歷史를 이어받을 앞날의 主人公들 앞에 南北間의 오랜 障壁을 뚫고, 우리 民族의 團合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터 놓을 것을 마음깊이 盟誓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四半世紀에 걸쳐 무겁게 쌓아올려진 南北間의 障壁은 外面할 수 없는 獰惡한 現實임을 直視해야 합니다. 그리고 理念과 思想과 制度上의 差異도 否認할 수 없는 오늘의 現實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豫備會談에서 證明된바와 같이, 그처럼 오랫동안 끊어졌던 對話의 길을 넓혀 나간다는 것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實로 歷史에는 奇蹟이나 飛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段階的인 發展과, 꾸준한 努力에 依한 漸進的인 結實만이 可能한 것입니다.

홀어진 우리 겨레의 苦痛을 덜어주고 갈라진 우리 民族의 團合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들의 努力에 있어서도 難關을 헤쳐나갈 수 있는 決意와 覺悟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民族의 課業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이에 못이겨 우리들의 人道的인 目的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所重한 歷史的 使命을 맡겨준 우리 民族의 興望을 背反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困境과 障礙에도 不拘하고 기어코 우리 겨레의 苦痛을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決意를 絶對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찾아줘야 한다는 人道的 使命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南北赤十字雙方의 代表나 諮問委員이 모든 理念과 思想과 制度의 差異에 關與하지 말고 오로지 주어진 課業을 完遂하는데에만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萬一 홀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찾아 주겠다는 이 마당에서, 人道的 테두리를 벗어나서 政治的 理念과 社會的 制度의 問題들을 論하게 된다면, 우리는 理念과 思想과 制度를 超越하여 民族의 團合을 圖謀하겠다는 우리들의 本來의 目的과는 멀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雙方의 代表團은 그야말로 「理念과 體制의 障壁」을 뚫고 넘어서 우리 同胞들의 人間的인 苦痛을 풀어주겠다는 目的만을 가지고 여기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萬一 人道的 問題가 解決되기도 前에 赤十字會談에 다른 어떤 種類의 問題들이 提起된다면 이것은 人道的精神으로써 障壁을 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人道的 目的의 實現을 다른 障壁으로 막아버리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쁜 事實은 지난 第1次 南北赤十字本會談에서 雙方은 「赤十字 人道主義原則에 기초하여 南北赤十字會談 議題로 設定된 모든 問題들을 成果의으로 討議解決함으로써 南北으로 홀어진 겨레들의 苦痛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努力을 다한다」는 內容에 合意한 事實입니다.

이로써 雙方은 이미 南北赤十字 會談의 基本精神이 思想, 理念, 體制와는 完全히 分離된 純粹한 人道主義에 立脚하고 있음을 全世界에 宣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와같은 人道主義的 赤十字精神을 發揮하였기 때문에 南녘 3千5百萬 同胞들은 그야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歡迎과 聲援을 아끼지 않았으며 온 人類는 純粹한 人道主義的 姿勢를 크게 讚揚하여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雙方代表團은 이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지난 8月 30일에 發揮한 人道主義的 精神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追求하는 目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것을 確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人間의 苦痛을 없애준다는 그 崇高한 目的을 向하여 계속 前進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分斷된 우리 民族의 切實한 念願인 祖國統一을 위하여 지금 바로 이 瞬間에도 그야

말로 하나씩 하나씩 더듬들을 짊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떠한 理念에도 拘碍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民族의 窮極적인 團合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最善을 다하여 努力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忍耐와 誠實과 智慧를 한데 모아, 우리들을 한데 묶는 人道的 目的만을 위하여 꾸준히 努力하여 나간다면 南北赤十字會談은 成功的으로 妥結될 것이며, 祖國統一의 展望도 分明히 밝아 올것을 確信합니다.

沈黙을 깨뜨리고 對話는 이미 始作되었습니다. 暗黒을 헤치고 밝은 希望의 불빛이 비치기 始作한 것입니다.

이러한 歴史的 剎那에 南北赤十字代表 여러분은 다시한번 人道的 精神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보다 榮光된 來日을 위하여 모든 슬기와 忍耐와 雅量을 아끼지 않을 것을 付託드리면서 이만 祝辭를 마치겠습니다.

1972年 9月 13日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諮問委員

人 事 文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諮問委員을 위한 午餐에서—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金泰熙團長!

南北赤十字代表, 諮問委員, 隨行員 및 記者 여러분!

나는 오늘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諮問委員 一同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따뜻한 同胞愛로써 歡迎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素餐에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는 우리가 지난번 平壤에 갔을때 北韓赤十字會側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厚意와 歡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再三 感謝를 表함과 아울러 오늘의 이 小宴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待接에 조금이나마 報答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南北으로 흩어진 1千萬 離散家族들의 念願과 나아가서는 5千萬 同胞들의 興望을 받들어 이번 서울에서 열린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은 또다시 國內外的 耳目을 集中시킨 가운데 盛大히 열렸으며 人道主義精神과 民族愛的 使命感에 充滿된 會談雙方的 眞摯하고 誠實한 努力끝에 새로운 會談의 成果를 거두었음은 다 같이 慶賀할 만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들이 먼저 平壤에 갔다 음으로써 27年間 높고 두텁게 쌓여졌던 南北의 障壁을 밀어 제치고 뚫어놓은 通路가 이번에 여러분께서 서울에 오심으로써 보다 더 탄탄해지고 또 보다 더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南北의 赤十字人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닦아진 이 通路는 앞으로 南과 北으로 갈라져 있는 家族과 親戚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어린 再會를 하게 될 「人道의 大路」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赤十字 人道主義事業이 成功하게 되면 이 길은 「7·4南北共同聲明」에서 豫見된 各種 部門의 南北交流의 實現에도 決定的 寄與를 하게될 것이 分明하므로 統一을 念願하는 온 겨레의 所望을 實現해 나아갈 「統一의 大路」가 될 것이니 오늘의 이길은 반드시 維持되어야 할 것이며 또 漸次로 넓혀져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民族的 至上命題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南北赤十字會談에서 榮光스럽게 一役을 맡게된 우리들 雙方代表團 諮問委員들의 責任도 莫重하다는 點을 새삼스러이 認識하면서 會談 雙方은 各者 맡은 職分의 如何를 不問하고 이 會談을 本然의 軌道에서 離脫하거나 또는 民族的 念願에 어긋나지 않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

여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苦痛을 하루 빨리 그리고 實質적으로 덜어주는 目標을 向하여 前進하여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짧은 期間이나마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많은 것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람되고 즐거움이 될 것을 바라며 여러분께서 見聞하고 또 皮膚로 느끼신 體驗들이 앞으로 우리 南嶽 同胞들의 生活相을 好意的으로 理解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懇切합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여러분의 서울 滯在中에도 더욱 有益한 時間을 즐기시고 또 더욱 더 많은 追憶들이 여러분의 가슴과 가슴 속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5日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諮問委員

人 事 文

—北韓赤十字會 代表團을 爲한 午餐에서—

1千萬 離散家族의 애타는 念願을 풀어 주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신 南北赤十字會談 代表團, 諮問委員, 隨行員, 그리고 記者團 여러분!

이번 서울에서 그 歷史的인 두번째 會談이 열리게 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더우기 오늘 이자리에 모시게 된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南과 北으로 갈라져 사는 우리겨레의 所望이 어찌 한두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홀어저 사는 血肉끼리의 情을 다시 이어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解決되어야 할 가장 切實한 人道的命題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비단 그 家族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를 外面하지 못할 온겨레의 한결같은 所願이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우리 俗談에 「始作이 半」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赤十字精神에 立脚한 人道的 見地에서 이 보람있고 聖스러운 課業을 遂行하고자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南과 北 사이에 굳게 닫혔던 障壁을 무너뜨리는 첫 役事を 始作한 것이며 같은 民族끼리 27年동안이나 끊겼던 對話가 다시 이어지는 오늘의 快事는 온 겨레의 가슴속에 길이 길이 새겨질 것입니다.

옛부터 서울은 이름 그대로 이나라의 首都로서 온겨레의 마음의 故鄉이었습니다.

北韓赤十字會 代表 여러분께서도 지난날의 서울의 모습을 記憶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서로 斷絶되었던 4半世紀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서울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리만큼 크게 變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變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이와 같은 變함 없는 마음이 北韓同胞에게 傳해 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會談이 알찬 成果를 거두어 離散家族의 所望을 하루속히 이루어주고 나아가 民族團結의 黎明이 더욱 밝아지기를 6百萬 市民과 함께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南北赤十字會談 代表團 여러분의 勞苦에 衷心으로 깊은 敬意를 表하고 特히 北韓에서 오신 여러분의 서울滯留가 즐겁고 平安한 日程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人事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3日

서울 特別市長

首席代表 人事文

—北韓赤十字會 代表團을 위한 晚餐에서—

金泰熙團長, 代表, 諮問委員 여러분!

그리고 隨行員과 記者團 여러분!

우리 疆土의 大動脈이며, 우리文化의 母體인 漢江물을 굽어보는 이곳에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을 모시고 多情한 한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生覺합니다.

우리 一行이 平壤에 가서, 또 여러분이 서울에 와서 그동안 우리들은 서로 會議場內에서 或은 會議場밖에서 여러차례의 會合을 通하여 數많은 對話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對話는 「多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한겨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對話에는 「對立」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같이 赤十字의 깃발 아래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對話는 「眞摯」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헤어져 살던 空白를 넘어 共同의 廣場으로의 첫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南北으로 갈라져 四半世紀라는 기나긴 歲月을 對立과 不信속에서 살아온 우리겨레로서 이러한 對話의 始作은 劃期的인 것이 있으며, 그러기에 지금까지의 會談過程에서는 會議의 進行 보다도 對話 그 自體에 더욱 큰 意義를 賦與했던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對話는 對話 그 自體만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이들 對話는 信賴를 造成하고 이 信賴를 바탕으로 共同의 目標가 設定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 目標를 現實하기 위한 協力の 行動化가 要請 되어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會議를 모두 成功的으로 끝맺었습니다. 이제부터는 外形 보다는 內實을 그리고 말보다는 行動을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感激과 興奮으로 흥청거리고 들떴던 「잔치」의 霧圍氣를 차분이 가라 앉히고 1千萬 離散家族의 울부짖음과 5千萬 겨레의 所望을 되새기면서 보다 具體的이고 前進的인 靑寫眞이 提示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勿論 이와같은 靑寫眞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벌써부터 그려지기 始作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窓門」을 활짝 열고 봄을 맞이 합시다.

우리들이 살아온 지나간 27年이 눈보라 치는 겨울이었다면, 따뜻하고 和暢스런 봄이 멀지 않아 찾아 들것이며 이봄은 바야흐로 우리 南北赤十字人들의 손으로 맞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져 살은 쓰라림을 겪은 우리이기에 우리民族은 결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다는 敎訓을 얻었으며 서로가 그리워 찾던 우리이기에 다시 만난 뒤의 겨레의 情은 더욱 두터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앞날에는 5千萬 同胞가 舉族的으로 마지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雙方代表 여러분,

이 회담을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諮問委員 여러분!

밤을 낮으로 삼고 會談進行을 위하여 애쓰시는 隨行員 여러분!

그리고 온 겨레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記者團 여러분!

우리 모두 밝고 福된 우리 民族의 燦爛한 來日을 위하여, 그리고 南北赤十字會談의 成功을 위하여, 滿場에 계신 여러 벗들의 健康을 위하여 잔을 들시다.

1972年 9月 13日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首席代表

祝 賀 演 說 文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 離散家族 代表—

역사적인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북한적십자 대표단 일행을 맞이하여 환영과 아울러 회담의 성공을 축원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본인의 감회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임진강 나루터의 뱃사공으로부터 서귀포 바다가의 전북 따는 해녀에 이르기까지, 관문점 이남의 삼천 오백만 동포는 물론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이 강토의 오천만 형제가 다 적십자 정신으로 서울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격려하며 이 모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이 한반도에 터를 잡고 이른바 문화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언 수천년이 되는데,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지나간 27년 동안처럼 답답하고 애달픈 시절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천만을 헤아리는 남북의 흩어진 가족들은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 처자와 친척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간절하여지며, 생사조차 알 길 없는 북녘 하늘 밑에 두고 온 늙으신 부모의 모습을 날마다 그리는 나머지, 어제밤 꿈속에서 분명히 뵈었다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며, 남녘에 있는 아들 딸의 소식을 몰라 안타까와 하는 아버지의 마음,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아픔을 어찌 모른다 할 수 있사오리까!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적십자의 정신입니다. 19세기 중엽 스위스의 젊은 인도주의자 「듀낭」이 솔페리노의 전투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 전쟁 때문에 상처입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며 그 육신의 아픔을 덜어 주려는 숭고한 뜻으로 이 적십자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 못지 않게 쓰라린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피차의 안부를 알고, 서로 만날 수 있으며,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려는 적십자의 사명입니다.

이념과 제도가 있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겨레가 있고, 이 겨레는 부모와 형제로써 이루어졌으므로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은 민족 단합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남북적십자의 흩어진 가족찾기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고 이에 순응하려는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눈이 오늘의 이 모임을 지켜보고 있고, 전세계의 모든 귀가 이 모임에서 흘러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뜻하는 바 열매를 거두어 남북의 흩어진 가족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 전 세계를 향한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의 긍지와 자존심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돌이킬 개인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방향을 밝히 보고 모든 편견을 버리는 동시에 이 겨레에게 봉사하려는 정성만을 가지고 민족의 재단 앞에 경건하게 선다면, 희망신화의 미궁 속같은 엉클어진 현재의 시점에서조차 겨레의 앞날이 흰하게 트인 광명한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리릴 까닭도 없습니다. 한 날, 한 시라도 아껴야 할 우리들의 다급한 처지라고 하겠습니까. 세월은 화살같이 흐르는데 만나뵈어야 할 부모는 그 세월과 더불어 늙어간 생전에는 뵈지 못하고 돌아가신 무덤이나 찾아야 할 슬픈 운명이 우리들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비극을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라면, 절차상의 견해의 차이를 호양의 정신으로 극복하시고 이 민족의 오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길가의 돌 한 개, 산 기슭의 풀 한 포기나 다 이 회담의 성공을 축원하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앞으로 태어날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의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의 대표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이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은 민족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과 평양이 몇 리나 됩니까? 추석도 다가오는 이 때 흩어진 가족이 그리워 잠 못 이루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치고 어떠한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이 세대에 맡겨진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떠나 서울을 찾아주신 북한적십자 대표단 일행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 큰 열매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1972年 9月 13日

離散家族代表

閉 會 辭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

金泰熙團長, 그리고 代表여러분!

5千萬 同胞의 뜨거운 聲援과 全世界의 至大한 關心속에서 서울에서 開幕된 南北赤十字會談은 이제 그 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7年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開催된 이 會談은 우리 民族史에 劃期的인 意義를 남겼습니다. 지난 2月 29日 大韓赤十字社 代表團이 平壤에 가서 第一次 會談을 마치고 돌아온지 2週日만에 北韓赤十字會 代表團이 이곳 서울에 와서 다시 會談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南北赤十字人들은 南北間에 通路를 열어 놓는데 先驅的 役割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民族의 슬기로움과 矜持를 全世界에 誇示한 것이며, 赤十字의 崇高한 人道主義 精神은 그 어떠한 障礙도 除去할 수 있다는 實例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南北赤十字人들은 分斷의 壁을 헐어내는 歷史的인 旗手로서 먼저 南北으로 흩어져 있는 離散家族과 親戚들에게도 南北間의 通路를 활짝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南北赤十字人은 그동안 서로 오고 가는 過程에서 相互間의 信賴와 和睦을 더욱 敦篤히 함으로써 雙方間의 理解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會談을 通하여 構築한 이러한 바탕위에서 앞으로 雙方 赤十字人들은 우리들이 遂行하여야 할 事業들을 하나하나 具體的으로 다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5千萬 同胞들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南北으로 오고 가며 會談을 進行하는 것을 熱烈히 歡迎하며 聲援하고 있습니다. 그와 同時에 南北의 온 겨레들은 우리들의 會談이 하루빨리 進陟되어 나갈 것을 期待하면서 우리들을 注視하고 있습니다.

金泰熙團長, 그리고 代表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들은 서로가 民族의 슬기와 崇高한 人道主義 精神으로 離散家族과 親戚들을 爲한 民族的 事業의 先驅者로 前進해 나갑시다.

이번 歷史的인 서울에서의 會談이 成功的으로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은 雙方 代表團 사이의 隔意없는 協調와 努力의 結果라고 생각하며 매우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나는 끝으로 오늘의 會議를 더욱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께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며 會議를 順調롭게 進行할 수 있도록 準備하여 주신 關係人士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會談의 報道를 爲해 수고하시는 內外 記者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謝意를 表합니다. 感謝합니다.

1972年 9月 13日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首席代表

평화 통일의 의지

—계간 “통일정책” 1권 3호 부록—

1975년 12월 24일 인쇄

197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국 토 통 일 원

인쇄처 대 한 공 립 사

정간위 제31-6-6호 <심의필>

국 통 제75-7-80 <비매품>